책 읽 기 와 글 쓰 기
리딩엠 통합본 Magazine
NO. 27
2017. 여름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12 2층 리딩엠 본사
www.readingm.com

CONTENTS

프로그램 안내 ····· 2p
리딩엠 교육 관련

교육안내 ····· 3p
7월~9월 수업 안내

위례점 오픈 안내 ····· 4p
위례점 공동 원장 인사말

주목받는 리딩엠 ····· 6p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 2년 연속수상

커리큘럼 ····· 7p
2017년 7월~9월 커리큘럼

색깔특강 ····· 8p
초등부 · 중등부 특강 안내

독서교육정책 ····· 10p
2017년 교육정책 및 관련 기사

초등 섹션 ····· 14p
재원생 글쓰기 결과물

토론한마당 · 세상을 읽는 즐거움 ···· 36p
다이어트의 긍정적, 부정적 시각

중·고등 섹션 ····· 52p
재원생 글쓰기 결과물

원장기고 ····· 48p
"착한 아이가 성공한다"

교사기고 ····· 50p
"다양한 독후감을 경험해보세요"

과학이든 인문이든
책읽기와 글쓰기로 판가름 나더라

소비자가 선정한
2017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

리딩엠 위례 오픈!

위례 신도시
우성메디피아 8층

정규 프로그램

평소에는 책읽기와 글쓰기를, 시험기간에는 내신을

책읽기 + 신문칼럼	독서 (매주 수업도서 1권) + 교사추천, 학생선택 도서 추가 기능 조선일보, 한국일보, 한겨레 신문 등의 칼럼을 읽고 어휘력과 배경지식 극대화 세상을 보는 눈과 통합적 사고력 배양
수업진행	정독과 다양독 → 사실적 이해 → 추론적/비판적 이해 → 독서록 쓰기/논리적 글쓰기 → 독서이력관리
특징/효과	다양한 장르와 주제의 책을 매주 1권 읽고 배경지식 극대화와 글쓰기 완성 글쓰기를 통해 이뤄지는 학교 수행평가 해결능력 배양 다양한 주제의 칼럼을 통해 최고의 독해능력 완성 독서록 노트 작성을 통해 학교 생활 기록부 등재 및 독서교육지원시스템 등 독서이력관리
보조교재	리딩엠 자체 워크북 / 신문칼럼
결과물	독서활동 노트 / 주제별 신문칼럼 노트 / 논리적 글쓰기 원고지

리딩엠 특장점

- 체계적 글쓰기
- 목적수업 시스템
- 학생부 독서활동관리
- 필독도서 대출시스템
- 주제별 신문칼럼 수업
- 독서이력진단과 관리
- 추천도서와 선택도서

리딩엠 수업이 궁금한
우리 아이와 학부모님을 위한

시범수업 예약

궁금하시죠?
우리 아이 책읽기와
글쓰기 수준!

초등 M플러스 정규반
독서수업을 통해 어휘,어법,
배경지식,사고력,표현능력 강화

중등 M플러스 정규반
주제별 신문칼럼과 독서수업
그리고 학생부 독서활동 관리

중등 M다빈치 정규반
과학인문 융합 커리큘럼
영재고, 과학고 등 특목고 준비
(중등 M다빈치반은 1년 이상 재원생중 선발해 진행)

책읽기와글쓰기 리딩엠

위 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로 141 우성메디피아 8층 802호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www.readingm.com
상/담/문/의 031.756.0802 직통전화 010.3463.3682

책읽기와 글쓰기 교육센터 리딩엠

"이제, 책읽기와 글쓰기 전문 리딩엠에 맡겨주세요"

우리 아이에게 무슨 책을 읽혀야 할지? 정독하며 꾸준하게 읽게 할 수는 없는지?
독서 후 확인하고 글쓰기까지 잡을 수는 없는지? 어휘력, 배경지식, 생각하는 힘, 또박또박 글쓰기 능력까지?

위례신도시에도 리딩엠이 생겼습니다

안녕하세요. 위례신도시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금번 <책읽기와 글쓰기 전문 리딩엠 위례 교육센터>를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리딩엠은 현재 대치, 목동, 서초, 잠실, 송도, 분당, 대전둔산 등에서 검증된 책읽기와 글쓰기 전문 교육센터입니다. 위례에 사시는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도 리딩엠의 질높은 교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무척 기쁘고 마음이 설레입니다.

저희 리딩엠은 위례 신도시에서 새롭게 꿈을 키워나갈 우리 아이들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책읽기와 글쓰기를 통해 최상의 학습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나가겠습니다. 스스로 독서습관을 갖추게 하고, 배경지식을 탄탄하게 하겠습니다. 생각하는 힘을 키우고 궁극적으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말과 글로 표현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 바뀐 교육정책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사람이 되려면

교육학에서 아동의 지능 발달은 언어의 발달과 맥을 같이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여러 가지 정보들은 언어를 통해서 그 의미와 관계를 인지하게 되고 나아가 폭발적인 사고의 확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릴 때 유연하다가 나중에는 이것이 점점 굳어지게 되지요. 우리가 선호하는 인재상인 창의적인 사람, 열려있는 사람이 되려면 생각과 사고를 유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책읽기와 글쓰기의 중요성

어렸을 적 어머니 아버지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들려주시던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자랐다면 요즘 아이들은 각종 영상매체와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고 자랍니다. 하지만 이런 영상 매체들은 아이들의 사고를 차단하기도 합니다. 가령 뽀로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상상하는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책은 기본적으로 이해와 사고를 하는 작용을 필수적으로 동반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시각적 효과를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 자체로 어휘력과 이해력, 상상력이 한꺼번에 발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쓰기 활동을 통해 이것을 강화하고 나아가 자기 생각과 감정을 다채롭게 표현하고 설명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속에 행복한 아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들 속에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 속에서 성공한 삶이란, 그리고 행복한 삶이란 사람들과의 관계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더 깊고 더 넓게 사고하고, 상상하고, 이해하고, 표현하고, 설득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재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능력을 발전시키는 최선의 방법은 책읽기와 글쓰기입니다.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약속드립니다.

국어국문학 및 교육학을 전공한 교사들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글쓰기는 물론 책읽기와 글쓰기에 재미를 붙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서초, 강남, 대치 등에서의 오랜 경력으로 학생들을 지도하며 얻은 노하우로 위례 지역 학생들의 책읽기와 글쓰기 수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교내 대회와 공모전의 수상 경력으로 학생들이 대회에서 실력을 펼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저희 리딩엠 위례 이정원, 최원철 공동 원장은 학생과 학부모님과 새로운 만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항상 대화하고 소통하는 자세를 바탕으로 책을 사랑하고 책과 대화할 수 있는 아이. 글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표현할 수 있는 아이. 사고의 폭이 넓고 창의적인 아이가 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지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리딩엠 위례 공동원장 이정원·최원철

리딩엠
위례교육센터
오시는 길 ▶

리딩엠 책읽기와 글쓰기 리딩엠 프로그램 안내

책읽기와 글쓰기로 전문화된 리딩엠의 모든 노하우를 우리 아이들에게 제공합니다.

구 분	내 용
책읽기와 글쓰기 리딩엠	■ 목동,대치,서초,인천송도,분당,대전둔산, 잠실, 위례 신도시에서 운영중 ■ 책읽기와 글쓰기를 통한 최상의 학습능력 완성 ■ 2016년~2017년 2년 연속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교육기업 대상' 수상 ■ 독서이력진단과 분석방법(특허획득) ■ 도서출판 <초등시기 나는 이렇게 책을 읽었다> 서울대생 13인의 초등시기 독서이력 (YES 24 주간판매 1위도서) ■ 용인외고,민사고,한성과학고 등 초등학년 때부터 5년 이상 다닌 재원생의 고등진학 실적
M플러스 (초)1주1회 2시간/월수업도서4권,5권 (중)1주1회 2.5시간/월수업도서4권,5권 *주제별 신문칼럼수업 병행	■ 자기주도로 책을 읽는 습관을 갖추도록 지도 ■ 리딩엠에서 수업도서 내용과 토론·글쓰기·첨삭 진행 ■ 1교시에는 <책글활동지 워크북>으로 수업 진행 ■ 2교시에는 생각나누기 또는 토론과 글쓰기,첨삭 진행 ■ 수업도서·추천도서·선택도서 등 주 4권이내 대출 ■ 학교 수행활동,서술논술형 문제해결 능력 갖추도록 지도 ■ 매주 글쓰기와 첨삭진행 통해 사고력과 창의력 극대화 ■ 읽은 책은 시계열화해 독서이력분석관리와 피드백 진행
목적수업 프로그램_별도원비	■ 학교대회·수행활동·교외대회 등 요청수업 진행
초등 JT반 1년이상 정규반 학생중 구성 우수한 학생들로 모둠 구성	■ 재원생 중 책읽기와 글쓰기 우수학생에 대해 좀 더 깊이 있는 수업 진행 ■ 수준높은 도서읽기와 다양한 활동수업을 바탕으로 최고의 인재 양성
중등 다빈치반 1년 이상 정규반 학생 중 구성 과학인문 융합 커리큘럼	■ <과학중심+인문학>커리큘럼으로 진행 ■ 과학고·자사고·외고 등 특목고와 자사고 진학희망자 대상수업
독서이력진단과 분석관리	■ 중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주제분류에 따른 독서이력관리 ■ 문학-비문학, 과학·인문·사회·문화·예술체육으로 주제분류
RAMS 시스템 업로드(초중) **학교생활기록부 등재(중등)**	■ 학생들의 도서에 대한 글쓰기 결과물(독서감상문 등) 유지관리 ■ 중학교 학교생활기록부에 1년 2차례 등재될 수 있도록 지도
리딩엠 RAMS 솔루션	■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 ■ 읽은 책, 대출도서, 평가결과, 활동결과, 진단결과
리딩엠매거진	■ 글쓰기 등 리딩엠 수업 결과물 등 수록 ■ 학생별로 번갈아가며 원고 수록
<초등학생을 위한 미리내 국어>	■ 초등학생의 기본문장과 표현능력 등 강화교재 ■ 교과서 수록 어휘,문장,어법,띄어쓰기,맞춤법,관용어(속담,격언),문장,표현 지도

리딩엠 교육안내

리딩엠 공지사항

▶ 리딩엠은 방학휴원은 없으며, 설연휴, 어린이날, 추석연휴, 성탄절만 휴원합니다.
▶ 리딩엠은 1주 1회 수업이며 지속독을 위해 매주 필독도서 대출이 이뤄집니다.
▶ 방학중에는 오전 10시부터 개방되므로 학생이 와서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 가정의 휴가일정과 겹치는 경우가 발생할 때, 휴가일정 전후로 보충이 진행됩니다.
▶ 대출도서는 꼭 읽은 후 반납 부탁드리며, 신규도서는 매월 안내판에 공지됩니다.
▶ 원비수납은 선납으로 매월 23일부터~말일까지 익월분을 결제해주시면 됩니다.
▶ 스마트폰으로 RAMS를 바탕화면에 설치해 학생의 독서상황, 수업상황 등 실시간 확인가능합니다.

2017년 7월 ~ 9월 수업 안내

교육일정

7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1	2
2주	3	4	5	6	7	8	9
3주	10	11	12	13	14	15	16
4주	17	18	19	20	21	22	23
5주	24	25	26	27	28	29	30

8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31	1	2	3	4	5	6
2주	7	8	9	10	11	12	13
3주	14	15	16	17	18	19	20
4주	21	22	23	24	25	26	27
5주	28	29	30	31			

9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1주					1	2	3
2주	4	5	6	7	8	9	10
3주	11	12	13	14	15	16	17
4주	18	19	20	21	22	23	24
5주	25	26	27	28	29	30	

리딩엠 일정

■ 7월 설명회
▷기간: 7월 3일(월)~7월말까지
▷장소: 각 교육센터
▷신청: 각 교육센터에 일정 문의후 신청
▷내용: 교육정책의 변화와 리딩엠 정규 및 특강 프로그램

■ 7월 시범수업
▷기간: 7월 5일(월)~7월 말일까지
▷신청문의: 각 교육센터
※각 교육센터별로 시범수업 실시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여름방학 색깔특강
▷특강기간: 7월 31일(월)~8월 18일(금)
▷등록마감: 7월 27일(목)
▷수업횟수: 주2회 3주간 진행
※ 각 교육센터에 개설과목등 상세내용 문의

■ 목적수업
독서감상문, 보고서, 토론대회, 수행평가, 수행과제, 방학과제 등 특정 목적을 위해 학생과 학부모님이 요청하는 개인 또는 모둠수업
▷신청: 상시상담 접수

리딩엠 정규수업, 학기중에도 방학에도 꾸준히 하면 성공합니다

책읽기와 글쓰기를 바탕으로
어휘력과 배경지식을 강화하고 사고력과 문제해결능력을 키워
학습과 생활면에서 자기주도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합니다

○ 스마트 RAMS 솔루션 전문화된 솔루션을 자체 제작 운용하고 있습니다. 매주 학생의 독서활동, 글쓰기를 스마트폰으로 확인가능합니다.

■ 사용방법
1. 스마트폰용 램스 URL online.readingm.com 을 클릭해주세요.
2. 보내드리는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해 주세요.
3. 스마트폰에서 <홈화면추가>또는 <바로가기 추가>를 선택해 스마트폰의 홈화면(바탕화면)에 보이게 해 추후 클릭만 하면 아이디와 패스워드 입력없이 바로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선정한 교육기업대상_어린이와 청소년 독서활동 부문>에서 대상을 2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리딩엠_어린이와 청소년 독서활동부문 2년 연속 대상 수상

체계적 독서활동 프로그램 호평

어린이·청소년 독서활동 부문

㈜리딩엠이 어린이와 청소년 독서활동 부문에서 소비자가 뽑은 2016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에 선정됐다.

리딩엠의 최대 경쟁력은 체계적인 독서활동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갖췄다는 점이다. 또한 학생들에게 최고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도교사 등 전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해 임금과 복지 측면에서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갖췄다. 각 교육센터에 1만권 내외의 필독서를 구비한 것도 장점이다. 학교활동·진학과 연계할 수 있는 추천도서·선택도서 프로그램을 갖췄으며, 학생이 독서와 연계된 교내활동 준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목적수업을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다.

리딩엠은 국내 최초로 특허를 획득한 독서이력진단과 분석시스템,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독서활동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보유하고 있다. ▲학생들의 독서활동 결과물을 분기별로 모아 발행하는 리딩엠매거진 ▲학생의 독서활동 과정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는 RAMS 솔루션 등도 타 업체가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다. 또한 올해는 황종일 리딩엠 대표가 교육방법론과 지도 경험을 전수하는 '독서활동 매니지먼트 지도교사 양성 과정'도 시작했다.

리딩엠은 앞으로도 시장 변화를 선도하며 독서활동 매니지먼트 서비스 등으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이끌 것이다.

● 문의: (02)537-2248
www.readingm.com

오선영 조선에듀 기자

● 도서는 반별 특성, 절판 여부에 따라 순서, 배치에 변동 가능. 5주차 수업도서는 별도공지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7월	1학년	손님 (윤재인 / 느림보)	바늘 부부, 모험을 떠나다 (도바시 에츠코 / 시공주니어)	지각대장 존 (존 버닝햄 / 비룡소)	기차 할머니 (파울 마르 / 책내음)
	2학년	머시의 신나는 토요일 (케이트 디카밀로 / 비룡소)	내 생애 최고의 캠핑 (수지 모건스턴 / 크레용하우스)	가방 속 책 한 권 (버지니아 리드 에스코발 / 도토리숲)	껄떡이와 옴살 (김춘옥 / 청어람미디어)
	3학년	문화재에 얽힌 8가지 재미있는 이야기 (배수원 / 작가정신)	관혼상제 재미있는 옛날 풍습 (우리누리 / 주니어중앙)	경복궁에서의 왕의 하루 (청동말굽 / 문학동네)	애벌레가 애벌레를 먹어요 (이상권 / 웅진주니어)
	4학년	시장에 간 홍길동 경제의 역사를 배우다 (이명애 / 파란자전거)	좋아? 나빠? 인터넷과 스마트폰 (이향안 / 동아M&B)	열 살에 배운 법 백 살 간다 (이정화 / 가교)	이만하면 나도 꼬마사업가 (어린이문화진흥회 / 삼성당)
	5학년	살롯의 거미줄 (엘윈 브룩스 화이트 / 시공주니어)	한국사 편지 4 (전반부) (박은봉 / 책과함께어린이)	한국사 편지 4 (후반부) (박은봉 / 책과함께어린이)	노마의 발견 공자 가라사대 (어린이철학교육연구소 / 해냄주니어)
	6학년	어린이 외교관, 중국에 가다 (김용수 / 뜨인돌어린이)	세계사 이야기 1(전반부) (초등역사교사모임 / 늘푸른아이들)	세계사 이야기 1(후반부) (초등역사교사모임 / 늘푸른아이들)	미국이야기 (손세호 / 아이세움)
	중1학년	기말시험대비 (리딩엠 / 리딩엠)	소크라테스를 구출하라 (좌백 / 마리북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 / 웅진주니어)	14살, 그때 꿈이 나를 움직였다 (최정화 / 다산에듀)
	중2학년	기말시험대비 (리딩엠 / 리딩엠)	파도 (토드 스트라써 / 이프)	철학우화 (류관홍 / 베이직북스)	거짓말을 하면 얼굴이 빨개진다 (라이너 에를링어 / 비룡소)
	중3학년	기말시험대비 (리딩엠 / 리딩엠)	세 얼간이 (채단 바갓 / 북스퀘어)	장자 사기를 당하다 (김종옥 / 탐(디딤돌))	플라톤 영화관에 가다 (조광제 / 탐(디딤돌))
8월	1학년	내 얼룩무늬 못봤니 (선안나 / 미세기)	까만 나라 노란 추장 (강무홍 / 웅진주니어)	고양이는 나만 따라해 (권윤덕 / 창비)	몰라쟁이 엄마 (이태준 / 우리교육)
	2학년	색깔없는 세상은 너무 심심해 (공주형 / 토토북)	아름다운 가치사전 (채인선 / 한울림어린이)	거꾸로 나라 임금님 (이준민 / 삼성당)	다섯 손가락 이야기 (카미유 로랑스 / 산하)
	3학년	마법의 빨간 립스틱 (공지희 / 비룡소)	그림 도둑 준모 (오승희 / 낮은산)	검정 연필 선생님 (김리리 / 창작과비평사)	엉뚱이 소피의 못말리는 패션 (수지 모건스턴 / 비룡소)
	4학년	생각을 뒤집는 논리 세상 (양승완 / 한솔수북)	광고의 비밀 (김현주 / 미래아이)	정의란 무엇인가 (안미란 / 주니어김영사)	꼬마 정치가 마르그리트 (비르지니 루 / 작은책방)
	5학년	한국사 편지 5 (전반부) (박은봉 / 책과함께어린이)	한국사 편지 5 (후반부) (박은봉 / 책과함께어린이)	코끼리 사쿠라 (김황 / 창비)	아빠 법이 뭐예요? (우리누리 / 창비)
	6학년	세계사 이야기 2(전반부) (초등역사교사모임 / 늘푸른아이들)	세계사 이야기 2(후반부) (초등역사교사모임 / 늘푸른아이들)	세계를 움직이는 국제기구 (박동석 / 봄볕)	어린이 이슬람 바로 알기 (이희수 / 청솔출판사)
	중1학년	사씨남정기 (김만중 / 영림카디널)	박문수전 (이동렬 / 영림카디널)	임경업전 (고정욱 / 영림카디널)	홍길동전 (허균 / 영림카디널)
	중2학년	어떤 솔거의 죽음 (조정래 / 다림)	레디메이드 인생 (채만식 / 문학과지성사)	비오는 날 (손창섭 / 문학과지성사)	원미동사람들 (양귀자 / 쓰다)
	중3학년	삼국사기 (김부식 / 타임기획)	남한산성 (김훈 / 학고재)	손님 (황석영 / 창비)	허수아비춤 (조정래 / 해냄출판사)
9월	1학년	쇠를 먹는 불가사리 (정하섭 / 길벗어린이)	버리데기 (박윤규 / 시공주니어)	솔이의 추석이야기 (이억배 / 길벗어린이)	우렁이 각시 (오승민그림 / 네버랜드)
	2학년	화요일의 두꺼비 (러셀 에릭스 / 사계절)	겨자씨의 꿈 (조성자 / 현암사)	우리 집에 온 마고 할미 (유은실 / 푸른숲주니어)	개구쟁이 노마와 현덕 동화나라 (현덕 / 웅진주니어)
	3학년	총을 거꾸로 쏜 사자 라프카디오 (쉘 실버스타인 / 시공주니어)	신데렐라는 시계를 못 본대 (고자현 / 동아사이언스)	제트기만큼 빠른 개 길들이기 (제레미 스트롱 / 웅진닷컴)	조커 학교가기 싫을 때 쓰는 카드 (수지 모건스턴 / 문학과지성사)
	4학년	아기 도깨비와 오토제국 (이현주 / 웅진주니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이문열 / 다림)	서로 달라서 더 아름다운 세상 (노지영 외 / 휴이넘)	춘향전 (정지아 / 창비)
	5학년	책과 노니는 집 (이영서 / 문학동네)	무덤 속의 그림 (문영숙 / 문학동네어린이)	곰의 아이들 (류화선 / 문학동네어린이)	마사코의 질문 (손연자 / 푸른책들)
	6학년	트로이 전쟁(비룡소 클래식8) (패드라익 콜럼 / 비룡소)	돈키호테 (마구엘 세르반테스 / 지식의 숲)	베니스의 상인 (셰익스피어 / 효리원)	셈도사 베레미즈의 모험 (말버터핀 / 경문사)
	중1학년	내영혼이따뜻했던날들 (포리스트 카터 / 아름드리미디어)	사막의 꽃 (와리스 디리 / 섬앤섬)	지붕낮은집 (임정진 / 푸른숲)	아빠, 찰리가 그러는데요 1 (우르줄라 하우케 / 해나무)
	중2학년	중간시험대비 (리딩엠 / 리딩엠)	중간시험대비 (리딩엠 / 리딩엠)	중간시험대비 (리딩엠 / 리딩엠)	사막별여행자 (무사앗사리드 / 문학의숲)
	중3학년	중간시험대비 (리딩엠 / 리딩엠)	중간시험대비 (리딩엠 / 리딩엠)	중간시험대비 (리딩엠 / 리딩엠)	그림공부, 사람공부 (조정육 / 앨리스)

초등 색깔특강 프로그램

※각 교육센터별로 8월 1주차부터 3주간 총 6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아래 특강과목 중 교육센터별로 개설과목이 다릅니다.

01 책읽기와 글쓰기 첫걸음

- 학년 : 초등1~2학년 / 정원 4명
- 교재 : 책읽기와 글쓰기 첫걸음 (리딩엠)
- 대상 : 수업시간에 집중력을 갖고 책을 정독해서 읽고, 반복된 훈련을 통해 읽은 내용을 파악하는 방법과 책의 주제를 생각하는 힘을 키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글쓰기로 연결시켜 궁극적으로 책읽기와 글쓰기의 기본을 탄탄하게 쌓아가고자 하는 초등 저학년 학생

02 철학, 나를 찾고 아는 힘

- 학년 : 초3~초4 / 정원 6~8명
- 교재 : 철학, 나를 찾고 아는 힘 (리딩엠)
- 대상 : 자신의 존재와 인식을 스스로 뿐만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서 파악해나감과 동시에 자신만의 매력과 고유성을 찾아내 학습이나 생활면에서 자신감과 자기주도성의 철학적 힘을 갖추고자 하는 학생

03 매쓰토리 로직_재미있는 수학과 논리세상

- 학년 : 초4~초6 / 정원 6~8명
- 교재 : 매쓰토리 로직_재미있는 수학과 논리세상 (리딩엠)
- 특징 : 수의 시작, 자연수와 정수의 세계, 분수와 소수의 세계, 무리수의 π의 세계, 증명의 세계, 차원의 세계, 경우의 수와 확률의 세계 등을 재미있는 읽을거리를 통해 논리와 연결시키는 훈련을 통해 수학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익히고 결론을 도출해나가는 과정을 글로 표현하는 훈련을 집중적으로 진행

04 초등 한국사

- 학년 : 초4~초5 / 정원 6~8명
- 교재 : 한국사 편지 1권~5권 (책과함께어린이) / 초등 한국사 워크북 (리딩엠)
- 대상 : 파편적인 역사적 지식을 한국사 편지 1권~5권을 읽어가며, 역사의 기본개념에서 출발해 고대부터 현대까지 한국사 지식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집중하여 정리할 뿐만 아니라, 초등 교과서에 나오는 역사내용을 함께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

05 초등 세계사

- 학년 : 초5~초6 / 정원 6~8명
- 교재 : 세계사 이야기 1권,2권 (초등역사교사모임/늘푸른아이들) / 초등 세계사 워크북 (리딩엠)
- 대상 : 인류의 기원에서부터 세계 근현대사까지 세계사를 동양사, 한국사 등과 비교하며 세계사적 사건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등의 흐름과 지식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

06 초등 사회,과학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 학년 : 초3~초5 / 정원 6~8명
- 교재 : 사회,과학탐구 보고서 작성하기 (리딩엠)
- 대상 : 전반부는 사회탐구 보고서, 후반부는 과학탐구 보고서 작성을 진행하되, 탐구주제 선정에서부터 탐구방법과 내용, 과정 등을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스스로 창의적인 주제와 내용으로 한 권의 탐구보고서를 완성할 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방법, 분석방법, 가설설정 방법, 실험방법 등을 함께 진행하며 스스로 탐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하는 학생

07 갈래별 글쓰기

-학년: 초3~초4
-교재: 갈래별 글쓰기
-대상: 글쓰기의 필요성, 글을 만드는 요소, 여러 가지 표현방법을 잘 이해한 후 일기,시,생활문,독후감,설명문,논설문,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방법을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보고자 하는 학생

중등 색깔특강 프로그램

※각 교육센터별로 8월 1주차부터 3주간 총 6회에 걸쳐 진행됩니다.
※아래 특강과목 중 교육센터별로 개설과목이 다릅니다.

01 인문학과 친해지기

- 학년 : 중1~중3 / 정원 6~8명
- 교재 : 인문학과 친해지기 워크북 (리딩엠)
- 대상 : 인문학적 시각이 부족하고 사회현상의 본질에 대한 접근을 어려워해서 정치, 역사, 예술, 사회 등 인문학의 첫 단추를 꿰고자 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세계를 폭넓고 깊이 있게 바라보는 방법을 찾고 더 넓고 깊은 책읽기로 나아가기 전 인문학과 첫 경험을 하고 싶은 학생

02 철학, 내 삶은 내가 주인

- 학년 : 중1~중2 / 정원 6~8명
- 교재 : 철학, 내 삶은 내가 주인 (리딩엠)
- 대상 : 행복, 차이와 차별, 소통방식, 분노와 조절, 자유와 규칙, 자기주도 등 철학적 주제들을 중심으로 청소년기를 겪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행복한 나, 가족을 위해 어떻게 사고하고 구체적으로 행동해 결국 학습과 생활면에서 자기주도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학생

03 중등 한국사

- 학년 : 중1~중2 / 정원 6~8명
- 교재 :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 (신라출판사) / 중등 한국사 워크북 (리딩엠)
- 대상 : '청소년을 위한 한국사'를 읽어나가며 책의 내용과 중학교 한국사 수업내용이 문제은행화된 워크북을 통해 한국사의 흐름과 맥락 뿐만 아니라, 고대부터 근현대사까지의 배경지식과 통찰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한국사 지식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집중하여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

04 중등 세계사

- 학년 : 중1~중2 / 정원 6~8명
- 교재 :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서양편)(동양편)(두리미디어) / 중등 세계사 워크북(리딩엠)
- 대상 : '청소년을 위한 세계사'를 읽어나가며, 책의 내용과 중학교 세계사 수업내용이 문제은행화된 워크북을 통해 고대문명, 중세, 근대 등 시기별로 유럽, 이슬람, 아시아 등의 변화와 발전이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을 세계사의 흐름과 맥락, 배경지식, 시각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 정리하고자 하는 학생

05 중등 주제 연구보고서 작성하기

- 학년 : 중1~중2 / 정원 6~8명
- 교재 : 연구보고서 노트와 활동지 (리딩엠)
- 특징 : 연구주제를 선정하고 인터넷, 문헌 등 다양한 자료수집 방법론, 구체적인 연구방법과 과정 등을 밟아가며 실제 20페이지 분량의 연구보고서를 작성해 산출물로 제출하는 수업

06 국어문법 및 갈래별 개념정리

- 학년 : 중1 / 정원 6~8명
- 교재 : 국어문법 및 갈래정리 (리딩엠)
- 특징 : 중학교로 올라가는 겨울방학동안 중1 과정에 필요한 언어의 본질과 기능, 국어 문법을 쉽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

07 자기소개서 작성

-학년:중3
-교재: 리딩엠 자기소개서 활동지
-대상:학교생활기록부와 학교활동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자기소개서를 완성함과 동시에 면접시 어떠한 질문이라도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백데이타를 갖추고 싶은 학생

[초 · 중 학부모. 수능 절대평가 발등의 불] 수행활동과 글쓰기 능력 중요해져

다음은 에듀진에 실린 문재인 정부 등장과 함께 바뀔 입시정책 중 절대평가제 도입이 가져올 변화에 대한 글을 인용해 싣습니다.

대입→학종→내신→수행평가→글쓰기 능력 중요

현재 중3 학생들이 치르는 2021학년도 수학능력시험부터 절대평가제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교육부의 발표는 아직 없지만, 문재인 정부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실시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수능 절대평가제가 시행되면 입시 판도가 완전히 뒤바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이 모두 수능 절대평가제 아래 대입을 준비하게 될 텐데요. 이처럼 달라질 입시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 이전 학생들의 대입 준비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선 큰일이겠지요.

수능 절대평가제 실시는 수능 성적 줄 세우기를 없애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덜고, 고교 교육을 내실화해 고교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했는지를 보고 학생의 역량을 판단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적 줄 세우기를 통한 수능 상대평가 방식은 수험생의 전반적인 학업 역량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고 학교를 입시학원화해 공교육 정상화를 막고 있어, 일정 성취수준을 넘으면 모두 같은 등급을 부여하는 절대평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입 변별력, 학생부로 가린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수능이 절대평가로 치러지면 대학은 어디서 변별력을 찾게 될까?' 하고요. 정답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있습니다. 올해 고3이 치르는 2018학년도 대입에서 학생부 위주인 수시전형으로 전체 모집인원의 73.7%를 선발합니다. 이처럼 학생부는 대입 당락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생부의 중요성을 데재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20세기에 부모 세대가 그러했듯, 책상 앞에 앉아 들입다 문제풀이만 하면 내 아이가 좋은 성적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대로, 대학은 문제풀이의 달인인 수능형 인재보다는 자기주도적 학습능력과 리더십, 창의력, 협업능력, 성실성과 인성을 갖춘 학종형 인재를 훨씬 선호합니다. 세상을 이끌어갈 리더는 수능형 인재가 아닌 학종형 인재이기 때문이지요.

내신, 수행평가가 좌우한다.

수능 기세가 급격히 약해지고 학생부가 입시의 키로 급부상 하면서, 내신이 갖는 무게감도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학종이 학생의 교과, 비교과 활동을 두루 보고 선발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수한 내신성적이 받쳐줘야 비교과 활동도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시험만 잘 보면 내신은 당연히 올라간다' 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최근 중고교 내신은 예전과 크게 달라졌습니다. 전체 내신 중 중간 · 기말 고사등 지필고사 비중이 60~70%, 수행평가 비중이 30~40% 정도를 차지합니다. 시험만 잘 본다고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이 아니란 뜻입니다. 수행평가 항목을 통한 담임선생님의 평가가 곧바로 내신성적을 결정합니다.

수행평가란 학생이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보고, 학생의 지식이나 기능, 태도 등을 선생님이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학생이 지필고사에서 만점을 받아도 수업태도가 좋지 않거나 학습에 열의를 보이지 않으면 수행평가에서 좋지 않은 성적을 받에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지필고사를 형식만 바꿔 무늬만 수행평가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수행평가로 영어 단어 시험을 본다든지, 수학 문제지 과제를 내주고 평가를 하는 식으로요. 또한 성적 상위 학생에세 평가 점수를 몰아주는 경우도 정지 않고, 수행 과정과 결과에 상관없이 모든 학생에게 만점을주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환경이 달라짐에 따라 수행평가제가 본연의 기능을 찾아갈 것으로 예상되, 이런 부정적인 사례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수행평가에 글쓰기 능력은 필수!

그렇다면 내신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행평가를 잘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수행평가는 학교 수업시간에 발표나 토론에 참여하는 정도, 과제 수행여부, 학습 참여도 등이 평가 요소입니다. 그러니 성실한 수업태도로 적극적으로 수업에 임하고 과제를 충실히 수행하면 되겠죠.

그런데 눈여겨 볼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중고교 수행평가에서 논술 · 서술형 평가 비중이 30%를 넘는다는사실 입니다. 따라서 바른 수업태도와 적극적인 학습 참여도를 보여도, 논술, 서술형 글쓰기 능력이 부족하면 만족할 만한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글쓰기 능력은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것이 아니기에, 결국 수행평가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려면 반드시 논술 · 서술형 글쓰기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글쓰기 능력을 기르기 위해 가장 먼저 할 일은 아이들에게 독서 습관을 길러주는 일입니다. 하지만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해서 글쓰기 능력이 키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책을 읽은 다음 과정입니다.

독서를 통해 문해력과 사고력, 논리력, 글쓰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우선 읽은 책의 내용을 온전히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독서활동에서 중요한 것은 책 읽기 그 자체가 아니라 책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나 느낀 점을 짚어보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문해력과 사고력, 논리력, 글쓰기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올바른 독서 지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부모님이 아이의 모든 독서활동을 지도하기란 힘에 부칩니다.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아이 스스로 책을 읽고 위의 과정을 밟아가는 것이 아이가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가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학종형 인재로 성장합니다.

2018학년도 과학고 입시 준비-독서

다음 기사는 조선에듀에 실린 〈임태형의 입시이야기〉코너 글을 인용해 소개해드립니다.

'학생부에 올린 책이 얼마 안 되는데요...'

입시에서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면 수험생이나 학부모들이 자주 꺼내는 말이다. 반대로 학생부에 가득한 독서활동 상황을 잘 정리된 전리품인양 뿌듯하게 말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아직도 많은 독서 또는 그에 관한 기록들이 입시 주변을 맴돌기만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학생을 선발하는 그 누구라도 독서의 중요성을 독서라는 '행위 형식'에서 찾을 리는 없다. 입시에서 독서가 중요한 이유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수학·과학 영재들을 뽑는 과학고 입시도 예외는 아니다. 문제풀이와 선행학습에 밀려 자칫 소홀하기 쉽지만 당락의 핵심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과학고 입시 준비 독서에 관해 살펴봤다.

독서가 합격에 미치는 영향

내신 절대평가 시대, 과학고는 어떤 학생들을 뽑을까? 수험생들에게 어떤 준비들을 원할까? 핵심 전형요소로 살펴보자. 제출서류 중 유일하게 지원자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소개서 항목만 들여다봐도 과학고가 원하는 내용들은 선명하다.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전국 20개 과학고들의 자소서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수·과학 학습 및 탐구 경험이다. 그 결과는 물론이고 과정에서의 배우고 느낀 점, 열정, 성장가능성, 창의성 등이 평가 대상이다. 지원자 개인에 따라 중점적으로 드러내야 할 역량은 다를 수 있지만 공통분모는 '자기주도성'이다. '자소설'로 의심 받기 쉬운 자소서 작성에서는 더더욱 강조될 수밖에 없다.

독서는 자기주도적인 학습과 탐구의 필요충분조건이다. 비교적 '탈사교육적'이라는 점도 학교와 수험생 모두에게 매력적이다. 관심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하고 방대한 독서는 배움에 대한 열정을, 읽은 책들의 수준과 실천적 독후 활동은 성장가능성을 드러내기에 매우 유용하다. 또한 기존 과학고 합격자 사례를 보면 자신의 수·과학적 창의성이나 통찰력을 독서 과정에서 끌어낸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재 과학고 2학년에 재학중인 A군도 그런 경우였다. A군 입학 당시 면접 중에 다음과 같은 취지의 질문이 제시됐다.

'제시된 10여 가지 이상의 물건들을 자신만의 기준으로 분류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평소 천문학에 관심이 많았던 A군은 그 순간 자신이 읽었던 수많은 책들을 떠올렸고, 그 중에서도 행성의 분류에 관한 내용을 답변에 응용했다. 일반적인 행성의 분류와는 다르게 기하학적인 관점으로 다룬 해당 책의 내용이 인상적이기 때문이었다. A군은 질문에서 제시된 물건들을 기하학적인 기준으로 분류하며 자신의 수·과학적 역량을 드러낼 수 있었다.

수·과학과 더불어 자소서와 면접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는 인성 영역에서도 독서의 영향력은 직·간접적으로 지대하다. 정답이 없는 인성 영역 질문들은 자신의 가치관과 그 진정성을 드러내는 게 핵심인데, 단순한 '취향 고백'에 그치지 않으려면 주장하는 바의 근거와 논리들이 필수적이다. 좁게는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의 일부를 인용하는 것에서부터 넓게는 자기 세계관을 구축하는 재료로서의 독서와 사색이 경쟁력일 수 있다.

과학고 합격을 위한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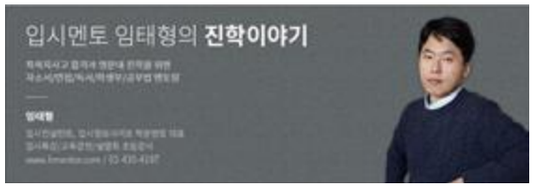
과학고 입시를 위한 독서 실천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고민해야할 것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어떤 책을 읽은 것인가, 둘째는 얼마만큼 읽은 것인가, 셋째는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이다.

책의 선택에서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수준의 적정성이다. 반드시 수학, 과학 등 관심 분야의 책만 집중적으로 읽을 필요도 없다. 소설이나 시집을 읽더라도 이해와 공감을 통해 스스로 내면화할 수 있다면 입시에서도 의미 있는 활용이 가능하다. 너무 쉽거나 어려운 책은 자칫 전시용 활동으로 비춰져 진정성까지 의심받을 수 있다. 유명한 추천도서라 할지라도 서점이나 검색을 통해 목차 등을 미리 살펴보고 주변의 조언도 구해 가며 자신에게 잘 맞을지를 신중히 고민 후 선택해야 한다. 설령 수십 페이지 이상을 읽어 들어간 책이라도 속도가 나지 않거나 기대했던 내용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과감히 포기하고 다른 책을 선택하는 독서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진로나 관심 분야에 연관된 고난도의 전문 서적으로 '스펙'을 채우는 식의 무리한 독서는 경계대상 1호다. 면담·면접 과정에서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확률이 높다.

몇 권의 책을 읽어야 할지에 관한 결정은 지금껏 학생부 독서활동에 기재된 책의 권수와 향후 학습 일정 등을 고려한 사전 계획이 핵심이다. '다다익선'의 막연한 독서 계획은 빽빽한 스케줄에 우선순위가 밀려 실현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독서가 정량적으로 평가되는 요소는 아니지만 자소서 작성이나 면접 답변 등을 고려할 때 관심 분야, 진로, 인성 등 평가 영역별로 자신 있게 내세울 만한 도서가 최소 3~4권씩 이상은 확보되는 게 좋다. 학생부에 이미 많은 책들이 등재되었고 해당 책들에 대한 실제 독서가 부실했다면 외연의 확대보다는 이들에 대한 내실을 기하고 보완하는 데 주력해야 마땅하다.

마지막으로, 입시용 독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렵게 읽은 책들을 실제 입학전형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이다. 이는 독후활동과 연관이 깊다. 해당 책을 통해 얻은 인상적인 지식들을 간단하게라도 정리해 두는 것은 기본이다. 더 중요한 것은 독서를 교과 학습이나 다른 탐구 활동들과 연동하기 위한 고민과 실천들이다. 독서 자체만으로도 좋지만 단순한 지식 습득 이상의 의미부여로 그 가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자신만의 독서장을 작성하고 책 내용과 연관된 과거 경험이나 향후 실천할 아이디어 등을 생각날 때마다 함께 적어두는 것부터 시작해보자. 자소서나 면접뿐 아니라 교내대회, 수행평가, 각종 산출물 작성 등 다른 모든 활동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지금부터라도 그 재미와 요령을 익혀간다면 훗날 대입에서도 '넘사벽'의 학업 역량으로 빛을 발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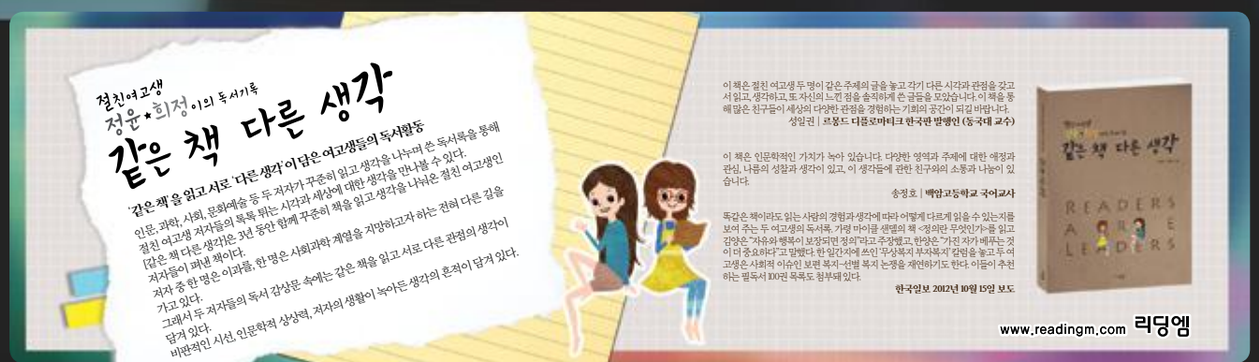
www.readingm.com

과학이든 인문이든 책읽기와 글쓰기로 판가름 나더라

정독, 지속독, 다양독, 잠재독, 책읽기와 글쓰기는
전문성 있는 리딩엠에서 성공하세요.

리딩엠의 독보적인 전문적인 힘

- 필독도서 대출 시스템(초중고 필독도서 12,000권 보유) ▶책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 매주 수업도서 1권 + 담당교사 추천도서 1권 + 본인 선택도서 2권 대출 가능
- 리딩엠 특허등록 독서이력진단과 교사추천 도서 프로그램 (편독방지와 잠재독 실현)
- 독서이력진단과 관리(학교생활기록부)(교육청 독서교육지원시스템)
- 창의적, 차별화된 글쓰기 완성, 학교 수행평가 및 교내외 대회



★★★
소비자가 선정한
2017
대한민국
교육기업대상
★★★

과학이든 인문이든
책읽기와 글쓰기로 판가름 나더라

초등 섹션

-

토론한마당 · 세상을 읽는 즐거움

-

중 · 고등 섹션

-

원장 기고

-

교사 기고

책 읽 기 와 글 쓰 기
리딩엠

www.readingm.com

나의 소원에 대해 쓰세요.

이수민 (대도초1)

<까마귀의 소원>에는 늙은 까마귀가 주인공이다. 까마귀의 취미는 반짝이는 것을 모으는 것이다. 어느 날 덫에 걸린 백조를 도와주어서 파란색 상자를 선물로 받았다. 그 상자에는 소원을 들어주는 별가루가 들어있었다. 그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친구들을 만났고 친구들의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별가루를 친구들에게 나눠주었다. 다 나눠주고 없는 줄 알았는데 딱 한 알이 남아 있었다. 까마귀의 소원은 다시 젊어지는 것이었다. 그 한 알이 소원을 이루어 주었다.

내가 만약 까마귀처럼 소원을 들어주는 별가루가 있다면 나는 친구들에게 별가루를 나누어 주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난 소원이 엄청 많다. 그 소원을 이루려면 별가루가 많이 필요할 것 같기 때문이다.
진짜로 소원을 들어주는 별가루가 있다면 빌고 싶은 소원이 있다. 첫 번째 소원은 내 사촌 동생 '박지건'이 나를 좋아해 주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남자라서 같은 남자인 우리 오빠만 좋아하기 때문이다. 오빠한테는 말을 많이 하는데 나한테는 말을 거의 걸지 않기 때문이다.

두 번째 소원은 엄마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 이유는 나는 엄마랑 같이 살아야 하는데 엄마의 마음이 아프면 내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나는 살 수가 없을 것 같기 때문이다.

세 번째 소원은 사람들이 나한테 날씬해서 좋겠다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날씬하다는 말을 들으면 더 많이 먹어야한다. 10배 100배는 더 먹어야한다. 난 속으로 말한다. '아이구야 배터지겠네' 내가 쓴 소원이 전부 다 이루어진다면 큐피트의 사랑의 화살이 나에게 꽂히는 느낌이 들어서 아주 행복할 것이다.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간절한 마음 같다는 생각이 든다.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이 좋을까? 스마트폰은 꼭 있어야 할까?

오다연 (계성초1)

나의 생각은 반반이다. 왜냐하면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할 때 전기를 아껴쓰게 걸어가거나 차를 타고 가서 할 말을 하면 되는데, 아주 먼 곳에 있는 사람과는 전화를 하면 편리할 것이고 게임도 안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해서 눈도 아파지고, 전기도 없어지고, 안경도 쓰니깐 없애도 되고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나도 계속 게임을 하게 된다. 그런데 요즘엔 안하긴 하지만 언니가 계속 하니깐 나도 하고 싶은데 참고 있는 것이다. 나도 스마트폰이 있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있으면 사전도 찾아보고 모르는 말도 많이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에 스마트폰이 없으면 스마트폰을 개발한 사람에게도 실망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정성껏 만든 걸 없애는 건 너무 미안하고 그 편리한 것을 다 없애 버리는 것도 싫다. 그래서 나는 반반이다.

우리 집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박현준 (송전초1)

우리 집 현관을 지나 안으로 들어가면 거실이 있습니다. 거실에는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나는 거실에서 라바를 봅니다. 라바는 매우 재미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내 동생과 사이좋게 봅니다. 엄마는 텔레비전으로 뉴스를 보시거나 신문을 봅니다.

부엌에는 물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정수기가 있습니다. 엄마는 내가 수돗물을 먹으려 하면 먹지 못하게 하시고 정수기 물을 주십니다. 요리하는 곳은 정수기 오른쪽에 있는데 우리 엄마는 요리를 아주 잘 하십니다.

나는 우리 집 중에서 내 방을 가장 좋아합니다. 내 방에는 멋진 작품이 있습니다. 나는 내 방을 사무실이라고 부릅니다. 내 동생과 함께 사용하는 사무실입니다. 사무실에서 멋있게 책도 보고 공부도 합니다. 우리 아빠의 방은 잠자는 방입니다. 아빠의 방은 내 방보다 더 넓습니다. 나는 아빠의 방으로 가서 함께 잠을 잡니다. 아빠는 잠을 많이 주무십니다. 엄마의 방은 아빠방 보다 작지만 내 방보다는 더 큽니다. 우리 가족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 할 수 있는 방이 참 좋습니다.

가족 가운데 한 명에게 책 소개를 하는 편지를 쓰세요.

원정연 (한양초1)

나의 슈퍼맨 아빠에게

아빠 저 정연이에요. 오늘 제가 읽은 책을 소개할게요. 소개할 제목은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이에요. 먼저 책의 줄거리를 소개할게요. 어느 봄 날 겁이 없을 것 같은 수평아리가 태어났어요. 온 동네의 수평아리를 아무도 이기지 못했어요. 어른이 되자마자 세상에서 제일 힘 센 수탉이 되었어요. 그래서 많은 암탉이 졸졸 따라다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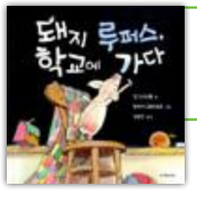
그러던 어느 날, 동네에서 힘 센 수탉보다 더 힘이 센 수탉이 나타났어요. 속이 상한 수탉은 거의 매일 술에 취해서 생활했고 자기가 옛날에 얼마나 힘이 셌었는지 얘기를 반복해서 했어요.

아빠도 술 마신 적 있지요? 아빠는 어떤 때는 재미로 마시죠? 아니면 스트레스를 풀려고 마셔요? 저는 아빠가 술을 마시는 이유가 궁금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아빠는 재미로 마시는 것 같아요.

책 속의 수탉이야기처럼 어느 날 아빠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제가 위로해 줄게요. 무슨 있어도 언제나 용감하게 이겨내세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아빠보다 더 똑똑한 사람은 없을 거 같아요. 있으면 저에게 연락해주세요. 전화기로 위로해 주는 말을 해드릴게요.

저는 아빠랑 자전거를 타면 상쾌한 공기 덕분에 스트레스가 풀려요. 그리고 고모가 집이 생기면 거기로 가서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을 알려 주세요. 우리 집 앞에 있는 양재천 길을 간다고 예전에 약속했죠? 꼭 약속 지켜주세요. 아빠 사랑해요.

2017년 2월 27일 -정연 올림-



나의 학교생활에 대해 쓰세요.

김지호(서울교대부설초1)

내가 다니는 학교는 교대부설초등학교이다. 학교 선생님은 친절하시고 좋으시다. 그리고 예쁘고 멋지시다. 학교도 예쁘다. 운동장 둘레에는 목련, 진달래, 철쭉, 개나리, 벚꽃, 산수유가 폈다. 그래서 꽃밭처럼 화려하고 예쁘다.

우리 담임선생님은 친절하고 아름다운 여자 선생님이시다. 선생님은 안경을 썼고 짧은 머리이다. 머리색은 염색을 안하셔서 검은색이 아니다. 선생님은 결혼을 했고 아들이 두 명이다. 한 명은 2학년이고, 한 명은 5학년이다. 개구쟁이 라고 하셨다. 선생님은 아들만 둘이 있어서 딸을 낳고 싶다고 하셨다. 내가 보기에 선생님의 아들들이 개구쟁이라서 딸을 낳고 싶다고 하신 것 같다.

선생님 다음으로 많이 보는 사람은 내 짝꿍이다. 내 짝꿍은 김시헌이다. 친구는 그림을 잘 그리고 이야기 만들 때도 아주 재미있게 잘 만든다. 친구는 나한테 착하게 대한다. 그래서 도서실 갈 때도 나랑 손잡고 간다. 학교에서 내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은 미술 시간이랑 k-pop시간이 제일 좋다. 나는 미술시간에 공주를 그리는 게 제일 재미있다. 내가 좋아하는 공주는 인어공주, 라푼젤, 자스민 공주이다. 특히 이 그림들을 프린트해서 색칠할 때가 재미있다. k-pop에서는 트와이스 언니들과 여자친구 언니들의 노래로 춤을 추니까 신난다.

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시간도 있는데 그 시간은 봄책을 공부하는 것이다. 봄책은 좀 지루하다. 앞으로 봄책은 좀 덜 했으면 좋겠다. 내가 앞으로 하고 싶은 것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나는 학교에 있는 동물도 만져보고 싶고 공기놀이, 바둑, 발레, 바이올린과 첼로 연주도 해보고 싶다. 또한 친구들과도 사이좋게 지내고 싶다.

갯벌 생물들을 만나 본 적이 있나요?

김명석 (가주초1)

갯벌은 바다의 밭이다. 물이 많던 바다가 썰물 시간이 되어 물이 빠져나가면 바다 안 갯벌 속에서 숨어있던 많은 생물들을 만날 수가 있다.

나는 가족과 함께 갯벌에 놀러 간 적이 있다. 갯벌에서 바위, 굴밭 등을 돌아다니며 다양한 생물을 만날 수 있었다. 피조개, 꼬막, 낙지구멍, 게 등 다양한 친구들을 만났었는데 그 중에는 내가 먹어본 조개도 있었다. 바로 맛조개이다. 갯벌에 있는 작은 구멍 위에 소금을 붓고 조금 기다리면 조개가 쏘옥 하고 올라오는데 그 때 손으로 빠르게 잡으면 된다. 잡아서 먹어보니 굉장히 맛이 있었다. 갯벌 근처에 있는 갯마을에서 먹을거리도 먹었다. 너무 맛있었다. 그리고 앞장불에서 갯일을 하는 사람도 보았다.

나도 같이 갯벌에 들어갔었는데 갯벌이 너무 질퍽질퍽 거려서 발이 푹푹 빠져서 걷기는 힘들었지만 재미있었다. 기분이 매우 좋았다.

나의 일상 속의 수학 이야기를 적어보세요.

김민유 (대도초2)

<수학의 저주>는 수학의 중요함을 알려준다. 책의 주인공은 피보나치 선생님께 수학의 저주를 받아 주인공은 모든 것이 수학으로 보였다. 그래서 버스, 옷, 우유, 사과파이, 사회, 국어, 체육 시간 그리고 피자를 먹을 때도 분수 문제로 보였다. 그리고 주인공은 어떤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은 방에 갇히는 것이다. 주인공은 분필 하나로 세상에 필요한 수학 문제를 다 푼 후에야 해방이 되었다. 겨우 수학의 저주가 풀린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우리 생활이 수학과 많이 관련 됐다고 느꼈다. 평소에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던 것이 수학과 관련이 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나는 하루에 물을 1.5리터 넘게 마신다. 이러한 것도 수학적 개념을 알아야 표현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음악이나 미술에도 수학이 사용된다. 그것은 미술 시간에 구도를 잡을 때도 수학은 필요하다. 그리고 음악 시간에는 박자를 셀 때도 수학이 사용된다. 만약 수학이 없었다면 노래를 부를 때 박자를 맞추지 못해 노래가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말인 '감개가 무량하다, 도무지 불가사의하다' 등에도 수학적 표현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았다. '무량'이나 '불가사의'는 '매우 큰 숫자'를 나타낸다.

이처럼 우리 생활 속에서 수학은 꼭 필요하다. 만약 수학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뒤죽박죽이 될 것이다.

속마음보다 겉모습이 더 중요할까요?

이승민 (목운초2)

프리먼 아저씨의 얼굴이 못생겨서 성격도 나쁠 것 같다고 오해받았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릴리와 길가에 길 잃은 고양이들을 돌봐주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겉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사람들은 반지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반지는 아름답고 멋지기 때문이다. 만약 반지가 반짝거리지 않고 더러우면 사람들이 사지 않을 것이다. 또 겉모습이 못생기면 사람들이 못생겼다고 놀리고 성격도 이상하다고 오해받아서 억울할 수 있다.

앞으로 사람들이 겉모습을 멋지게 꾸미면 예쁜 여자친구도 사귈 수 있다. 그리고 꿈도 이루기 쉽다. 왜냐하면, 겉모습이 좋으면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이다.

나는 앞으로 사람들이 겉모습을 멋지게 하고 다녔으면 좋겠다.

인상 깊게 읽은 책을 소개해보세요.

권예은 (문현초2)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책은 '무지개 물고기' 라는 책이다. 무지개 물고기는 반짝이는 비늘을 가지고 있었다. 어느 날 파란 물고기가 무지개 물고기의 비늘 하나를 떼어달라고 부탁했다. 무지개 물고기는 비늘을 주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서 파란 물고기가 어찌나 속상했는지 다른 물고기들에게 소문을 냈다. 무지개 물고기가 친구가 없어져 그 이유를 알기 위해 문어 할머니께 물었다. 문어 할머니께서는 무지개 물고기의 반짝이는 비늘을 떼어주면 분명히 친구가 생길 거라고 말씀하셨다. 무지개 물고기가 비늘을 나눠주자 무지개 물고기는 친구가 많이 생겼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친구에게 소중한 것들을 나눠주면 내 주변에 친구가

생긴다는 것을 깨달았다. 물고기를 비유로 든 줄거리가 흥미진지하고 관심이 갔다. 그동안 책을 많이 읽다보니 많은 장점을 알 수 있었다. 먼저 책을 많이 읽을수록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내가 바다 속의 물고기 주인공이 되어 직접 그 상황을 겪는다고 생각하니 배경이 전부 이해되기 시작했다. 게다가 책을 읽으면 책 속의 주인공에게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 또한 책을 읽다보면 간접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다. 책을 통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직접 경험한 것처럼 느낄 수 있다. 내가 가보고 싶은 장소에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마음껏 만날 수 있다니 신이 난다.

나는 앞으로 위인전 분야의 책들을 많이 읽고 싶다. 많은 위인들을 벤치마킹하고 좋은 일들을 따라해서 나도 그들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 앞으로 책을 통해서 내 삶이 더 좋게 달라졌으면 좋겠다.

곤충과 관련된 직/간접 경험을 쓰세요.

정준서 (숭의초2)

이 책에는 엄청난 종류의 곤충의 설명 되어 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곤충은 장수말벌, 칠성 무당벌레, 그리고 왕사마귀이다. 장수말벌은 말벌보다 2배는 더 크다. 그리고 말벌과 똑같이 노랑색과 검은색 줄무늬가 있다. 칠성무당벌레는 빨강 바탕에 7개의 검은 점이 있다. 껍질 속에는 1쌍의 날개가 있다. 날개 안에는 단단한 껍질이 있다. 왕사마귀는 평소에는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는다. 그리고 심지어 왕사마귀 애벌레도 곤충을 잡아먹는다.

책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는 정말 다양한 곤충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많은 곤충들 중 우리에게 해를 입히는 곤충들도 있다. 반대로 좋은 것을 주기도 한다. 예를 들어 꿀벌은 우리에게 침을 쏘기도 하지만 꿀을 주기도 한다. 꿀벌은 참 이로운 곤충이다. 반면 장수말벌은 침을 쏘아서 안 좋다.

나는 직접 곤충을 본 적이 있다. 길을 가다가 여왕개미를 봤다. 나는 개미를 밟아서 죽였다. 그랬더니 바로 죽었다. 나는 죽은 개미를 들어서 다

리를 찢기도 했다. 그랬더니 문득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묻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냥 갔다. 사실 끝까지 묻어주고 싶었다. 그런데 엄마한테 혼날까봐 그냥 갔다.

나는 이 책을 읽기 전에는 곤충은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곤충은 징그럽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은 후 곤충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 우리 생활에 좋은 영향을 준다. 이제는 함부로 대하지 않을 것이다.

일상 생활에서 손의 중요성에 대해 써보세요.

박준용(송전초2)

나는 보통 평소에 손을 '밥을 먹을 때'와 '물건을 만지는 것'에 사용해왔다.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손이 얼마나 소중하고 쓰임새가 많은 중요한 부위인지 깨달았다.

손을 가지고 사용하는 직업 중에는 야구선수, 의사, 판사 등이 있다. 야구선수는 손으로 공을 잡아서 던지고, 의사선생님은 손으로 아픈 환자들을 고쳐준다. 또한 과학자는 자신의 손으로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새로운 분야를 실험하고 연구하기도 한다.

이렇게 중요한 손은 우리 생활 속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 손은 학교에서 체육을 할 때 꼭 필요하다. 만약 손이 없으면 글씨를 쓸 수도 없고, 물건도 잡을 수 없고, 만들기도 할 수 없다. 지문으로 범인도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손은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쓰이고, 중대한 일을 하는 데에도 꼭 필요하다.

손바닥에는 손금이 있는데 우리는 이 손금을 보고 우리의 미래를 살짝 엿볼 수 있다. 손금 중에 생명선이 길면 오래 살고, 지능선이 길면 똑똑하다. 지문 중에서는 달팽이형, 말굽형, 아치형, 혼합형 등 47개의 종류로 나누어졌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가족은 모두 달팽이형인 것이 신기하다.

이처럼 이 귀한 손을 앞으로 잘 씻고 소중히 여길 것이다. 또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도록 내 손을 사용하고 싶다.

사람은 개미와 반대로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요? (같이 삽시다!)

조혜인 (목운초2)

개미의 특징은 작고 사회성 곤충이라는 것입니다. 사회성 곤충은 여러 곤충이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럼 무거운 짐도 한 번에 들 수도 있고 외롭지도 않고 천적이 왔을 때 힘을 합쳐서 적을 물리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람들도 개미들처럼 사회성 있게 다 같이 어울려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행복하게 사는 것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떨까요? 그 사람들 옆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혼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대로 있을까요? 혼자 살면 아주 외로울 것입니다. 방콕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방콕족은 방에 그냥 틀어박혀 낮에 자고 밤에 일어나서 TV나 보고 제대로 생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같이 살면 추억이 생길 것입니다. 같이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 같은 재미있는 기구도 탈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는 여행도 같이 못 가고 물놀이를 같이하는 즐거움도 전혀 모를 것입니다.

앞으로 하는 일은 모두 다른 사람들과 같이합시다!

내가 소개하고 싶은 곤충은?

고두해 (잠신초2)

곤충은 매우 다양한 종류가 있다. 그 중에는 위험한 곤충도 있고, 또 어떤 곤충들은 순하고 착한 곤충들도 있다. 위험한 곤충으로는 사마귀, 나방, 장수말벌, 말벌, 털보말벌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사마귀는 다른 곤충들을 잡아먹을뿐만 아니라 사람도 사마귀에게 물리면 매우 아프고 상처가 나기 때문에 위험한 곤충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말벌은 사람을 공격하면서 침을 쏘고 그 침에 쏘이게 되면 심한 경우엔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반대로 순하고 착한 곤충은 개미, 나비, 잠자리, 무당벌레 등이다. 나비는 예쁘고, 피해를 주지 않으며 물지 않는다. 또한 잠자리 역시 사람에게 친근한 곤충으로 아이들도 무서워하지 않을 정도로 착하고 순하다. 그래서 나는 잠자리를 관찰하는 것을 즐긴다. 무당벌레는 색이 알록달록하면서 귀여운 모습으로 사람을 함부로 물지 않는다.

내가 소개하고 싶은 곤충은 착한 곤충에 속하는 '개미'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개미의 모습은 귀엽고 아기 같지만 성품은 지혜롭고 착하다. 동화책에도 개미는 언제나 착한 역할로 나온다. 개미는 위협을 느낄 때 물기는 하지만 자기 일은 스스로 해결하고, 게으르게 행동하지 않고 부지런하고 성실히 일한다. 이것이 바로 개미의 장점이다. 개미는 죽은 사마귀, 과자 부스러기, 젤리를 먹이로 먹는다. 땅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땅 위로 올라와 떼 지어 다니기도 한다. 앞으로 나는 개미를 키우면서 더 가까이에서 관찰해 보고, 더 친해지고 싶다.

책의 줄거리를 소개하고, 자신이 인상 깊었던 책을 소개해 보세요.

조은혁 (대도초2)

오라시오는 이 세상에서 책을 제일 좋아한다. 부모님은 오라시오가 책을 제일 좋아한다는 것을 걱정한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물쇠로 책을 가두어 버린다.

그 후 오라시오는 광고를 보고 퀴즈쇼에 나갔다. 거기에서 우승을 했다. 우승한 상으로 책장을 받았는데, 책이 한 권 사라졌다. 알고 보니 부모님이 그 책을 읽고 있던 것이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책을 많이 읽으면 머리가 좋아진다는 것을 알았다. 또 똑똑해진다는 것을 깨달았다.

내가 만약 오라시오였다면 부모님이 책을 가져갔을 때 화가 많이 났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못하기 때문이다.

나도 오라시오처럼 책을 좋아한다. 왜냐하면 책을 읽는 것이 재미있기 때문이다.

내가 재미있게 읽은 책은 먼저 <여우의 전화박스>이다. 이 책은 처음에는 엄마 여우가 자기 아들이랑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아기가 죽었다. 그 후 엄마 여우가 아이를 위해 전화박스가 되었는데, 그게 무척 신기했다. 또 <개구리네 한솥밥>이다. 이 책은 친구를 사귀는 내용이다. 나는 소라게가 친구들을 위해 거품으로 밥을 지어 준 게 정말 재미있었다.

책을 읽으면 머리가 좋아지고 똑똑해진다. 그래서 앞으로 책을 좋게 생각할 것이다.

책의 줄거리를 소개하고, 우리 생활 속의 수학을 설명해 보세요.

김서진 (대도초2)

피보나치 선생님이 나에게 수학의 저주를 주었다. 그래서 모든 게 문제와 계산으로 되었다. 수업 시간에 수학이 나왔고, 내 방이 온통 수학 감옥이 되었다. 그 후 그곳에서 해방이 되었다.

나는 이 책을 읽고 재미있는 마음이 들었고, 수학을 못하면 저주가 걸릴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다. 내가 만약 주인공이었다면 수학의 저주에 걸렸을 때 엄청 긴장이 되고 무서웠을 테다. 왜냐하면 주변이 온통 수학밖에 안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 생활 속에는 수학이 많다. 사람도 수학이다. 이유는 머리카락이 몇 cm인지도 수학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간을 잴 때도 수학이다. 예를 들어서 교실에서 시험을 볼 때 몇 시간이 남았는지 계산하는 것도 수학이다.

놀이동산에서도 수학이 있다. 예를 들어서 놀이기구를 타기 전에 키를 재는데, 그때 수학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백두산도 수학이다. 백두산에 나무가 얼마나 많은지도 수학이고, 백두산의 높이도 수학이다.

앞으로 나는 수학을 소중히 생각하고 재미있게 생각할 거다. 그 이유는 수학이 생활 속에 많이 나오기 때문이다.

책에서 가장 재미있었던 내용은 무엇이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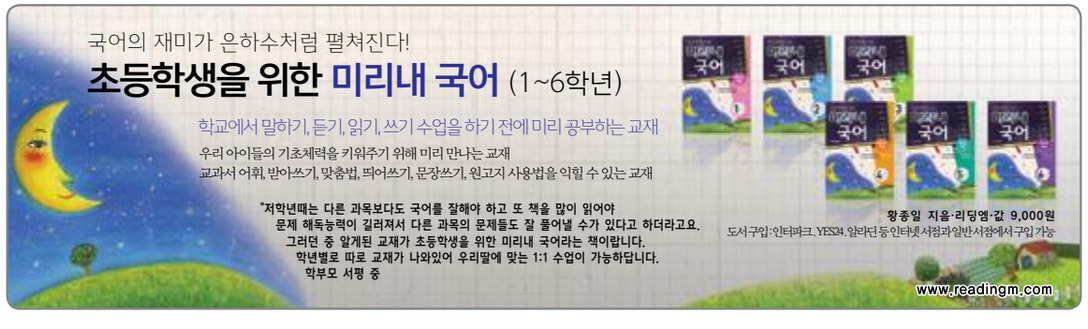
박정현 (반포초2)

<안녕, 난 개미야>는 개미에 대한 내용을 그림과 글로 표현하는 책이다. 어른 개미들은 탐험을 했다. 그리고 개미의 엄마는 여왕이다. 개미 아빠는 제일 먼저 돌아가셨다. 개미는 달달한 것을 좋아했다. 주인공은 엄마 똥도 치워주었다. 엄마가 알을 낳았는데 수컷이었다. 하루는 개미집에 무당벌레가 침입하자 개미들은 '산'이라는 액체를 쏘아 공격했다. 무당벌레가 개미 한 마리를 먹었다. 개미는 무당벌레의 등을 물어뜯었다. 그러다 개미들이 많은 줄 알고 무당벌레는 도망갔다.

내가 만약 개미였다면 비가 많이 오는 날은 날아오르지 않겠다. 왜냐하면 빗물에 휩쓸려서 떠내려갈 수 있기 때문이다. 비가 왜 싫으냐면 내가 수영장을 갔는데 물에 빠져 숨을 못 쉴 뻔 했기 때문이다. 물이 너무 무서웠다. 내가 개미였으면 물에 안 빠지게 조심했을 것이다.

제일 기억에 남는 내용은 수컷이 나오는 장면이었다. 그 이유는 개미가 하늘을 날면 시원한 바람을 느낄 수 있고 마음도 평화로워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전에 박물관에 가서 그런 사진을 보았다. 만약 나에게 날개가 있다면 하늘나라까지 가고 싶다.

개미는 일을 많이 하고 또 서로 다른 일을 한다. 암컷과 수컷이 결혼한 뒤 암컷은 다른 데로 간다. 그리고 거기서 여왕개미가 된다. 일을 많이 하면 힘들텐데 개미가 그 일을 재미있어 해서 신기했다.



책을 읽고 가장 인상 깊었던 시 3편을 소개하고, 자신이 직접 시를 한 편 써 보세요.

이서준 (대도초3)

'시' 하면 노래와 일기가 생각난다. 왜냐하면 보통 시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쓰고, 시를 좀 더 활기차게 낭송하면 노래가 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예전에 시집에 있는 '수박씨'라는 시를 노래로 바꾸어 보았는데, 정말 웃기고 재미있었다. 그래서 나는 시를 쓸 때, 나에게 일어난 일이나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떠올려 본다.

이러한 시란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짧은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 <콩, 너는 죽었다>라는 시집을 읽었는데, 3편이 아주 인상 깊었다. 먼저 '봄봄봄'이라는 시는 상쾌하고 화창한 시였는데, 봄을 표현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콩, 너는 죽었다'라는 시를 낭송하여 보았다. 이 시는 '또르르 또르르' 같은 반복되는 말을 많이 써서 정말 웃기고 실감났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라는 시를 읽었다. 이 시를 읽자, 나는 우리나라의 사계절은 정말 좋고, 우리나라가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만약 시를 쓴다면 나는 활기차고 웃긴 시를 쓰고 싶다. 그래서 진짜 시를 한 편 써 보았다.

<봄>

봄이 시작되면 꽃이 나타나고
봄이 시작되면 에어컨이 나타난다.
그런데 봄이 시작되니, 학교가 나타나네?!
안 돼! 방학숙제 못했는데...

오늘 시도 써 보고, 또 읽어도 보니 시가 전보다 재미있어졌다. 그래서 앞으로 시를 많이 읽어야겠다.

"사랑과 희생"을 주제로 독서 감상문을 작성해 보세요.

허예범 (개일초3)

사람들은 누구를 따뜻한 마음으로 사랑한다. 누구를 사랑하면 더 즐거워지고, 나쁜 마음이 사라진다. 만약에 도둑이 사람을 사랑하면 물건도 안 훔칠 것이다. 누구를 놀려대는 아이들도 사람들을 사랑하면 누구를 안 놀리고 오히려 더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누굴 사랑하면 착한 마음이 된다. 사람들은 희생을 하기 싫어한다. 희생을 하려고 하지만 귀찮아서이다. 아이스크림이 있는데 동생이 먹으려고 하지만 그 맛있는 걸 참을 수 없으면 다 먹으려고 한다. 그리고 쓰레기가 있으면 귀찮은 사람은 그냥 땅바닥에 버린다. 이처럼 희생을 귀찮아하거나 싫어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이 많다.

이렇게 사람들은 희생을 주기보다 받고 싶어 한다. 그런데 그거랑 반대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은 부모님이다. 부모님은 우리가 잘 살아가려고 희생을 많이 하는 것 같다. 만약에 우리가 아플 때 약을 사서 약을 주고 그런다. 우리가 길을 잃으면 우릴 찾으려고 노력하신다. 이렇게 희생을 주기보다 받고 싶어 한다.

책에서도 사랑과 희생이 나온다. 송이랑 철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랑 가난해서 판자촌에서 산다. 그래서 송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고 절에 보냈다. 송이는 책가방을 너무 가지고 싶어서 철이는 농산물 상품권으로 가방을 사 줬다. 가족사진을 찍고 절로 보내지만 다시 데리고 왔다.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슬프고 감동적이었다. 나도 만약 동생을 절에 보낸다면 나는 안 보낼 것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누구를 사랑하는데, 사람들은 희생을 하기 싫어한다. 힘들지만 희생을 하면 슬픔이 지워지고 즐거움이 많이 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

자신이 조금 특별한 이유를 밝혀 보세요.

김아정 (대도초3)

사람들은 저마다 특별한 것이 하나씩은 있다. 영어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운동을 잘하는 사람도 있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과학적으로 유능한 사람도 있다. 이처럼 사람들은 누구나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있어, 그 재능으로 직업을 결정한다.

물론 나에게도 특별한 점이 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첫째, 책을 잘 읽는다. 나는 책을 잘 읽어서 내가 이루고 싶은 꿈인 작가에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만화를 만들고 있는데, 책을 많이 읽어서 재미있는 만화를 만들고 있다. 책을 잘 읽으면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내가 이런 글을 쓸 때 많은 도움이 되기도 한다.

둘째로 나에게 특별한 점은, 동생과 잘 놀아 준다. 그래서 좋은 점은, 동생과 더 친해질 수 있고, 동생과 사회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울 수도 있다. 앞으로 동생과 더 관계를 굳게 맺어서 동생과

슬기롭게 해쳐나갈 것이다. 나는 동생과 둘이 있을 때 동생과 잘 지내서, 동생이 울거나 떼를 쓴 적이 없다. 이처럼 동생과 잘 논다는 사소한 특별한 점도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셋째로, 나는 편식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키가 커져서 친구들에게 키가 작은 꼬맹이라고도 놀림을 받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보다, 키가 커서 건강에 좋다는 것이다. 나는 좋은 점이 참 많은 것 같다.

책에서도 자신을 특별히 여기는 아이가 나온다. 그 아이는 손에 눈이 달려 있다. 하지만 좌절하지 않고 그 사실을 받아들인다. 나는 이 이야기를 보고 에밀리가 참 지혜롭고 슬기롭고, 침착한 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처럼 사람들은 특별한 특징이 하나씩은 꼭 있다. 이 특별한 점을 기분 나쁘지 않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책을 통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이 드러나도록 감상문을 쓰세요.

전혜인 (대도초3)

미생물에 대해 아는가? 우리 몸 구석구석 퍼져 있고 알 수 없는 병을 퍼뜨리는 물체다. 이 책은 미생물의 요모조모를 알 수 있는 고마운 책이었다. 읽기 전에 책의 표지를 보았을 때 표지그림에는 문에서 바이러스들이 나오고 있고 남자, 여자 아이가 한 명씩 있다. 이 책 뒤엔 바이러스 모양으로 'GG 지식 박물관'이라고 쓰여 있다.

내가 읽은 <미생물>의 내용은 광 박사가 바이러스 음모를 퍼뜨리는 줄 알고 솔비와 우람이가 미생물에 대해 알아 가는 내용이다. 책의 이곳저곳에는 재밌는 이야기가 많이 있다. 또한 둘이 친해지는 과정에서 오해도 있었다. 광박사의 컴퓨터에는 '죽음의 잠수함 '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광박사가 쓰는 소설의 제목이었다. 이 둘을 통해 나는 많은 정보를 얻었다. 나는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읽고 또 읽었다.

나는 이 책을 통해 알게 된 사실이 있다. 그것은 떠돌아다니던 포자가 물건이나 음식에 붙으면 곰팡이가 생긴다는 사실이다. 다락방이나 오래 된 화장실의 구석, 침대의 각진 부분 등에는 곰팡이가 잘 생기는 대표적인 곳이다. 참고로 발에 포자가 붙으면 무좀이 생기는 것이다. 버섯도 곰팡이의 일종이다. 나는 책을 읽기 전에 버섯은 맛있는 음식 가운데 하나인줄만 알았지 곰팡이 일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정말 이런 신기한 지식은 처음 본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버섯이 곰팡이라는 사실은 신기하다.

또한 건강해지는 비결은 균을 마시는 것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 특별한 균은 유산균이다. 우리 집에도 블루베리 맛이 나는 유산균 가루 2박스가 있다. 유산균을 먹으니까 기운이 나서 운동은 잘하고 면역력이 강화되었다. 더 신나서 하루에 2봉지를 먹었더니 체육시간에 철봉 10개를 넘을 수 있을 정도였다. 그래서 유산균은 좋은 것이다. 김치를 먹으면 포도상구균을 막을 수 있다.

젖산균과 유산균이 풍부한 김치, 요구르트, 포도주, 치즈, 빵 등의 음식은 우리의 건강 1등 도우미이다. 나도 이러한 좋은 미생물들처럼 알뜰하게 일할 것이다.

'나의 가족'이라는 글감으로 자유롭게 쓰세요.

김도윤 (대도초3)

나에게 가족은 인생을 함께 하는 두 얼굴의 동료와 같은 존재이다. 가족 때문에 화가 너무 날 때도 있었지만 즐거웠던 일도 많다.

내가 가족에게 화가 났던 일은 혼자서 놀고 있는데 동생이 계속 방해를 했던 일이다. 내가 동생에게 침착하게 혼자 놀고 싶다고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었다. 결국 나는 동생에게 빽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말았다. 빽 소리와 함께 동생은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다음 단계는 엄마에게 혼이 나고 만다. 여기까지는 괜찮지만 더욱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것은 내가 훨씬 더 많이 혼난다는 것이다.

나의 이런 모습이 엄마의 눈에는 별로 화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겠지만 나는 속으로 엄청나게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속으로 나도 모르게 욕이 막 나온다. 이렇게 해도 내 화는 풀리지 않는다. 그 다음 날이 되도 나는 뿔이 나있다. 그런 날은 학교에 가서 발표도 거의 하고 싶지가 않다. 그리고 가출을 하고 싶기도 하고 내가 할 것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 그냥 하루 종일 만화책만 보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나를 화나게 하기도 하는 가족이지만 나를 아주 행복한 시간으로 초대하기도 한다.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일 중 하나는 강릉을 가는 길에 용평에 들렀던 일이다. 그곳은 놀이공원과 비슷하였다. 범퍼카를 타고 한 바퀴를 돌기도 하고 물썰매도 탔다. 물썰매는 눈썰매와 비슷한데 양 쪽 벽에서 시원한 물이 나오는 썰매이다. 이 썰매를 여름에 타면 거의 수영장에 온 느낌이다. 한 5번 정도 타고 나면 옷이 흥건히 젖어 있다. 또, 거기서 마운틴 코스트도 타보았다. 올라갈 때는 아찔한 리프트를 탄다. 레일에서 벗어날까봐 천천히 가다가 재미를 느끼기 위해 초고속으로 내려오면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흥미진진하다.

이처럼 나에게 가족은 나를 화나게도 하고 즐겁게도 하는 감정의 롤로코스를 태워주는 놀이기구 같다. 그래도 즐거운 일을 더 많이 만들어 준다. 그래서 나는 가족과 있었던 행복한 일을 더 자주 떠올릴 것이다. 가족은 행복하라고 신이 준 선물인 것 같다.

또한 나에게 가족은 셰익스피어와 같이 값진 존재이다.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인도 전체보다 더 소중하다고 했다는 것을 책에서 읽은 기억이 있다. 물론 이것은 비유일 뿐이다. 가족의 소중함은 그 어떤 비유로도 표현이 안 될 귀중한 것이다. 가족이 있다는 것이 참 행복하다!

음식을 먹을 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어야 하나요?

김경은 (목운초3)

음식은 보기만 해도 너무 맛있게 보이고 빨리 먹고 싶어서 감사함을 까먹는다. 그리고 음식에는 엄마 정성만 들어가나보다 이렇게 생각해왔다. 음식은 땅, 하늘, 사람의 정성이 들어가 있지만, 눈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믿고 잊는 것 같다.

음식을 먹을 땐 감사한 마음이 꼭 필요하다. 고생해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깨끗하고 싱싱한지 검사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서 항상 힘들어도 열심히 일하셨기 때문이다. 엄마의 정성도 들어갔지만, 음식을 제공하시는 농사짓는 분들의 얼굴에 땀이 눈물처럼 줄줄 흐를 정도로 최선을 다하셨고 우리들의 입에서 정말 맛있다. 소리가맛있다 소리가 나올 정도로 정말 싱싱하고 맛있게 최선을 다한 기운과 상각이 들어있다.

그리고 햇빛이나 비에 감사해야 한다. 이렇게 감사해야 하는 공통적인 이유는 노력하고 피, 땀 흘린 것같이 노력이 들어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음식에 고마운 마음을 느끼면서 잘 생각하고 먹을 것이다.

성모랑 기영이 중 누가 진정한 친구일까요

김이린 (목운초3)

성모는 좋아하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지만 싫어하는 아이들은 무시하고 속상하게 하는 아이다. 친구보다 선물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잘난 척쟁이다. 성모가 좋아하는 애들은 성모를 좋게 생각하겠지만, 성모가 관심 없어 하는 애들은 성모를 친구 뺏어가는 악마처럼 생각할 것이다.

기영이는 남들한테 착하고 진정한 친구이다. 성모처럼 선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기영이는 마음이 따뜻하고 성모의 성격과 반대이다.

나는 기영이가 성모보다 더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성모는 자신이 좋아하는 친구와 관심 없는 친구랑 차별 하지만 기영이는 그렇지 않기 때문이다. 성모랑 친진 친구는 좋지만 다른 애들은 외톨이가 된다. 하지만 기영이랑 친구가 되면 모두 다 행복할 것이다.

진정한 친구는 남을 먼저 생각하고 남의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무리 값이 비싼 선물을 줘도 마음이 없으면 진정한 친구가 되고 싶던 사람들은 슬프기 때문이다. 감동과 마음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받으면 더 친하고 더 재미있게 지낼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기영이가 더 진정한 친구라고 생각했다. 누구에게나 기영이처럼 좋은 친구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앞으로 사람들은 관심 없는 애들이라도 그 애들한테 나쁘게 굴지 않고 관심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착하게 대하면 정말 좋겠다. 그렇게 하면 관심이 없었는데 좋은 점도 알게 되고 더 친해질 수 있다. 그럼 친구가 더 많아져서 외톨이 없이 다 같이 친해질 수 있다. 우리 모두 기영이처럼 마음을 전달하는 진정한 친구가 되자.

종이밥을 읽은 뒤 느낀점을 적어보세요

하윤채 (목운초3)

송이는 판잣집에 사는 친구입니다. 판잣집은 판자로 만든 집입니다. 그 동네는 다른 마을 애들이 자주 놀리는 마을입니다. 송이는 그 마을에 사는 주민입니다. 송이는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울하고 슬펐습니다. 하지만 다솜이가 울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애들이 얄밉고 불쌍했습니다. 나중에 송이가 그때 놀렸던 애들보다 높은 대학에 들어가서 놀렸던 친구보다 공무원이나 의사처럼 좋은 직업을 갖고 나타나 다시 그 친구들을 놀릴 것 같기 때문입니다.

송이의 오빠는 동생을 좋아하고 저금을 잘하고 자기 자신도 아끼는 것 같습니다 오빠는 동생을 사랑해서 자기 저금통을 털고 비상금도 털어서 동생이 사고 싶은 곰돌이 푸 가방도 사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송이는 마음씨가 착하고 심심하다고 울고 싶을 텐데 참고 견디는 것을 보면 대단한 아기 장수 같습니다.

내가 만약 송이였다면 그 애들이 놀릴 때 욕하지 말라고 말하고, 너희도 똑같이 놀리면 좋겠냐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얄미워서 때리고 싶은 마음이 들 것입니다.

송이를 절에 보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형편이 좋지 않아도 어린아이인 송이를 절에 보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송이는 학교 가는 걸 기대하면서 지냈을 텐데 20일 놔두고 절에 보내는 것은 정말 나쁜 것 같습니다.

저는 만약 할아버지 할머니였다면 송이를 절에 보내지 않고 철이와 송이를 같이 학교에 보낼 것 같습니다.

학생 수가 너무 적은 분교를 폐교시켜야 할까?

김유민 (서정초3)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사라지는 이유는 다 도시로 이사 갔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시골에서 농업으로 버는 돈보다 도시에서 버는 돈이 더 많기 때문이다. 이러다가 사람들이 다 떠나서 학교도 폐교가 되는 것 같다.

학생 수가 너무 적은 분교를 폐교해야 할까? 안된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수업을 두 명만 한다고 하자. 그런데 두 명 다닌다고 해서 왜 폐교를 해야 하나? 그 애들도 배워야 하는 사람이다. 폐교하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학교를 다녀야 할까? 학교도 다니지 말라는 걸까 다니라는 걸까? 그리고 이사할 때 돈이 많이 든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냥 반을 하나만 만들든지 해서라도 분교를 폐교하면 안된다.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 보면 안 된다. 사람을 돈으로 치려고 해도 계산할 수 없다. 그 두 명을 가르칠 때 5억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 5억은 사람보다 중요하지 않다.

아이가 2명 있는 섬 학교를 폐교하면 사람들이 떠나고 심하면 그냥 잊힌 무인도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 폐교를 하면 그냥 무인도 만드는 거랑 마찬가지다.

젊은 사람이 적은 농촌은 자연을 가꾸고 예쁘게 꾸며서 다시 올 수 있도록 하면 된다.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야 한다. 그러니까 아이가 적어도 폐교는 시키지 말자!

내가 만약 멀뚱이였다면 무엇을 관찰했을까요?

최하나 (동작초3)

나는 <멀뚱이의 곤충일기>라는 책을 읽었다. 곤충을 관찰한 내용이 나오는데 일기 형식으로 쓰여져 있다. 제비나비와 사향나비에 대한 내용이 나오기도 한다. 제비나비는 모양이 아름답고 예뻤다. 사향제비나비는 독이 있어서 새들이 무서워한다. 나도 이 나비는 독이 있어 무섭다. 제비나비붙이류는 사향제비나비랑 비슷하게 생겼지만 꽁무니에 붉은 점이 많이 있다. 그렇지만 독은 없다.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멀뚱이 엄마에게 꽃 이름을 물어보면 무조건 예쁜 꽃이라고만 하는 장면이다. 나비의 이름을 물어봐도 예쁜 나비라고만 한다. 이 장면이 웃긴 이유는 우리 가족이랑 말투가 똑같았기 때문이다. 가족 중에 제일 곤충을 잘 아는 사람은 아빠다. 아빠는 몇몇 나비들은 몰라도 대부분의 나비는 다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 아빠는 설명도 자세하게 해 주어서 몰랐던 것도 다 알게 해준다. 그래서 친구들이 물어볼 때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게 대부분 아빠 덕이다. 그래서 나는 아빠가 참 좋다.

내가 만약 멀뚱이였다면 나는 나비랑 잠자리 같은 곤충을 관찰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곤충을 관찰하면 모기를 잡아 먹게 하고 꿀도 만들어 팔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곤충 전시회도 열고 무당벌레로 진딧물도 먹게 해서 일석이조일 것 같다. 너무 진딧물이 많아서 식물들이 잘 자라지 못하면 돈만 날린다고 엄마가 너무 속상해하신다. 그래서 나는 좋은 곤충만 관찰할 것이다.

이 책을 읽고 지렁이가 정말 중요한 이유와 인간들이 본받을 점을 서술하세요.

허예준 (개일초4)

지렁이는 지구의 창자라고도 불릴 정도로 중요하다. 지렁이는 모든 쓰레기를 먹고 분해해 흙에게 좋은 지렁이 비료를 만든다. 그 비료 덕분에 흙이 기름져지고 비옥하게 된다. 그러나 지렁이가 없으면 땅이 마르고 점점 죽게 된다. 그러나 그런 지렁이를 인간들이 앞날만 생각해서 흙에 안 좋은 화학약품을 넣어 흙과 지렁이까지 죽이면 흙에 쓰레기(오염물질)가 쌓여서 농작물도 죽을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지렁이는 징그럽게 생겼다고 생각하고 있다.

심지어 셰익스피어는 '지렁이가 당신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여자 화장품에 쓰이는 립스틱이나 파우더는 남극에 사는 깨끗한 지렁이를 갈아서 만든 것이다. 이처럼 깨끗한 지렁이도 있다. 우리가 '지렁이 농장'을 만들어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면 지렁이들은 정말 좋아할 것이다. 사람들이 만약 지렁이였다면 지렁이들은 모두 사람들을 놀렸을 것이다.

지렁이들을 다르게 보면 지구에 있는 모든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고 볼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세상에 있는 모든 지렁이에게 감사해야 한다. 지렁이들이 우리에게 맛있는 농작물들을 제공해 주어서이다. 지렁이를 꿈틀거리고 징그럽게 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사람들도 모두 제각각 다 다르게 생겼다. 못생겼을 수도 있고, 잘생겼을 수도 있다. 그러나 외모로 특징이나 성격을 판단하는 건 옳지 않다. 중요한 것은 땅을 비옥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우리들은 지렁이에게 많은 것을 본받아야 한다. 사람들이 농약을 뿌려도 지렁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흙을 비옥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본받아야 한다. 그리고 외모로 재능, 특징, 성격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본받아야 한다. 내가 지렁이를 도와준다면 '지렁이 농장'을 학교에 만들어 지렁이를 키울 것이다.

'용기'를 주제로 독서 감상문을 작성해 보세요.

문채호 (대도초4)

사람들은 누구나 용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용기를 제각각 작거나 크게 가지고 있다. 많은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있지만 용기가 많은 사람도 있고 조금밖에 없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모두가 용기를 조금씩이라도 가지고 있다. '용기가 없다'라는 표현은 그저 용기가 조금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 표현은 그저 비유하는 것이다.

나는 용기가 평소 조금밖에 없었다. 그래서 형이 가끔 놀리기도 한다. 하지만 나는 그것이 부끄럽지 않다. 자랑스러워하지도 않는다. 나는 그저 그것이 내가 태어났을 때 운명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귀신의 집'도 잘 못 가고, 롤러코스터도 생애 딱 한 번 탔다. 나는 징그러운 것도 싫어하고, 무서운 것도 싫어한다. 무서운 것을 보면 일주일 동안이나 잠을 설칠 정도이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부끄러웠던 적은 없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 쏠려 있었지만 그게 내 운명이니 받아들였다.

이 책은 사라가 용기를 내어 인디언들과 친해진다는 내용이다. 나는 이 사라 이야기를 보면서 사라는 겁쟁이가 아니라 용기가 많다는 생각을 하였다. 그 이유는 사라는 인디언이 무서웠지만 용기를 내어 인디언에게 적응하였기 때문이다.

나는 평소 용기가 많이 없었다. 하지만 내친김에 오늘 용기를 가져 볼 것이다. 내가 만약 사라였다면 혼자 남았을 때, 너무 무섭고 힘들었을 것이다. 그 이유는 너무 외롭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라나는 나와 완전 다르다. 그 이유는 사라는 아빠 없이도 잘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사라가 부럽다. 그 이유는 나는 용기가 없어서 피했지만 사라는 용기를 내어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책 속의 사라처럼 용기 있게 지내야 한다. 꼭 그러라고 강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용기를 가져 보는 것이 좋다.

올바른 지구 사용이란 어떤 모습인지 쓰세요.

홍우진 (대도초4)

지구란 우리가 살고 있는 초록빛 행성이다. 처음 지구는 바다와 땅, 자연이 어울린 살아 숨 쉬는 생명체였을 것이다. 지금도 그 모습일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내가 읽은 책 <지구 사용설명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이 책에는 지구와 똑같은 행성, 우쿠더스에 살던 사람들이 왜 우쿠더스를 떠나고 멸망했는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하면서 지구인들에게 경고를 주는 책이다. 우쿠더스는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유한한 자원을 펑펑 쓰고 환경을 밥 먹듯이 훼손시키면서 멸망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 지구의 꼴도 우쿠더스를 비웃기만 할 수는 없다. 지구도 우쿠더스처럼 유한한 자원을 펑펑 쓴다면 언젠가는 우쿠더스 사람들처럼 우주 미아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첫째, 석유 사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둘째,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 셋째, 환경을 아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구체적인 해결책에는 먼저, 비닐봉지는 최소한으로 써야 될 것이다. 비닐봉지 1개로 만드는 석유로 자동차가 100m를 달릴 수 있다. 그러니 단거리를 갈 때는 자전거로 가고 버스를 많이 타면 좋을 것이다.

우리가 일회용품을 쓰면 그것은 땅에 묻히거나 불에 태워지거나 물에 둥둥 떠다닌다. 예를 들어 땅 속에 묻으면 100년 동안 있어야 썩는다. 불에 태울 경우 이산화탄소보다 150배 더 위험한 메탄가스가 3L나 나온다. 물에 떠다니는 쓰레기는 바다생물의 생명을 위협한다.

석유 사용을 최소화라고 또 일회용품을 적게 쓴다면 자연이 훼손되는 것을 분명히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나무를 함부로 베지 않고 식물을 뿌리째 뽑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집에서 식물을 몇 가지 키우는 것도 좋다.

나는 직접은 아니지만 앱으로 나무를 심은 적이 있다. 이 앱은 나무 씨앗을 골라서 키워주면 중국의 사막화된 지역에 나무가 한 그루 심어진다는 앱이다. 나는 총 10그루를 심었다. 또, 나는 집에서 각종 허브를 키우기 때문에 집에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고 푸른빛 식물을 볼 수 있다. 나뿐 아니라 이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작은 실천이 처음 지구의 모습인 초록빛 행성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동물들이 위험해요!

조희재 (양명초4)

얼마 전에 'tv 동물 농장'을 보았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가끔씩 멸종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나는 그곳에서 너구리를 보았다. 너구리의 모습은 참 처참하였다. 목에 끈이 묵인 채 쓰레기통에 버려진 모습을 보니 눈물이 핑 돌았다. 사람으로 따지면 거인이 사람의 목을 조르는 거다. 어떤 나쁜 사람이 이런 무서운 짓을 저질렀을까? 나는 너구리가 너무 불쌍했다. 동물들도 사람과 같은 생명체인데 말이다.

멸종 위기의 동물들은 인간의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생긴다. 물론 인간과 동물은 서로서로 도와가며 살아간다. 하지만 동물들은 고기, 털, 가죽을 다 주는데 인간은 동물에게 위기 상황을 준다. 어떤 사람은 지주가 인간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동물이 사라지면 인간도 살아가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나는 지구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이 동물이라고 생각한다.

동물들의 멸종을 막아야 한다. 왜냐하면 동물이 멸종되면 책임은 인간이 저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동물이 사라지면 인간도 결국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우리는 동물이 사라지면 생태계가 파괴되어 결국 인간도 살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부모님의 사랑을 느꼈던 경험에 대해 써보세요.

최정우 (온수초4)

지난주 토요일에 엄마가 "날씨도 좋은데 아빠랑 같이 나가서 자전거 타는 거 어때?"라고 하셨다. 아빠와 나는 자전거를 들고 나와서 우리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참 시원하구나." 아빠가 말씀하셨다. 나도 자전거를 타면서 불어오는 바람이 수영할 때처럼 시원하게 느껴졌다.사실 요즘에 나는 아빠랑 같이 시간을 보내기 힘들었었다. 평일에는 회사에서 늦게 오시고 주말에는 피곤하신지 늘 소파에 누워계셨기 때문이다. 그날도 아빠의 표정은 피곤하고 눈은 졸려 보였다. 그래서 아빠가 나보고 혼자 갔다 오라고 하실까 봐조마조마했었는데.....아빠랑 단둘이만 이렇게 멀리 나온 건 처음이어서 가슴이 더 벅차올랐다. 그동안 아빠랑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한 서운함도 바람과 함께 다 날아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드디어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올 때 아빠의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것을 보니 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다. 돌아오는 길에 내가 "동생도 함께 오면 좋았을 텐데."라고 말하자

아빠는 "동생은 너무 말썽 피워서 안 돼."라고 하셨다. 다음에 아빠를 설득해서 꼭 동생과 함께 올 거다. 아빠랑 둘만의 시간도 좋았지만 동생이 함께 오지 않아서 좀 허전했기 때문이다. 가족은 서로 함께 하는 것이다. 함께 하면 즐겁고 같이 웃을 수 있다. 힘들 때는 서로 도와주는 것이 가족의 사랑이다. 이번 어버이날이 되면 카드에 내 마음을 표현해서 부모님께 드릴 것이다. "엄마 키워주셔서 고맙고 사랑해요. 꼭 나중에 은혜를 갚을게요.라고 말이다. 그리고 동생이랑 연극을 준비해서 보여드리고 싶다. 왜냐하면 아빠가 나를 웃게 했듯이 나도 부모님을 웃게 해드리고 싶기 때문이다.

〈지구사용설명서〉를 읽고 깨달은 점을 적어 보세요.

고서현 (반포초4)

<지구사용 설명서>라는 책은 우크더스라는 행성이 어떻게 멸망했는지 설명해 주는 내용이다. 우크더스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성에서 무엇이든 펑펑 썼다. 하지만 미래를 생각하지도 않고 쓰다가 결국에는 환경이 오염되었다. 그리고 멸망하기 약 10분 전에 후회했다. 이 책은 지구도 우크더스처럼 될 위험이 있으니 환경오염이 되지 않게 하자는 의미에서 쓴 것 같다.

이 책에서 가장 재미있던 부분은 아주 작고 귀여운 벌레가 쓰레기를 계속 먹다가 무섭고 큰 거인 벌레가 되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우크더스 사람들이 쓰레기를 얼마나 많이 버렸길래 귀여운 벌레가 괴물이 되었을까 생각하는 것이 재미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우크더스 사람들이 미래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네가 살고 있는 행성을 멸망시키는 행동이 비겁하다고 생각했다. 나도 내 친구가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고 식물에 버리는 광경을 보았다. 이것도 일종의 환경오염이다.

내가 만약 우크더스 인이라면 쓰레기를 마구마구 버리는 성격이 될 테니 지구인들을 보고 뭐하러 그렇게 물건과 음식을 안 버리고 아끼냐고 할 것 같다. 생각이 우크더스 사람처럼 되니 지구인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책을 읽기 전에는 전자피아노를 쓰지 않을 때 코드를 빼지 않았지만 이제부터는 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우크더스 사람들처럼 자연을 함부로 하고, 모든 것이 무한정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겠다.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김다니 (반포초4)

<뚱뚱해도 넌 내 친구야>에서는 책의 표지처럼 뚱뚱한 아이와 날씬한 아이들이 나온다. 이 책을 읽으면 등장인물의 마음을 깊이 깨달을 수 있다. 주인공은 펠릭스와 디디라는 뚱뚱한 아이들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경험으로 체중 감량이라는 같은 목표를 이룬다.

나는 펠릭스가 볼거리에 걸려 살이 빠지는 이야기가 가장 인상 깊었다. 왜냐하면 운동도 하지 않고, 살이 엄청 빠진 것이 엄청 신기했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모두 글에 담기는 어렵지만 펠릭스는 1달 몇 주일 만에 몇십 킬로그램이나 빠진 것 같다. 내가 장염에 걸려 며칠 고생해 3킬로그램이나 빠진 경험과 비슷하기도 하다. 만약 내가 펠릭스라면 일부러 병에 걸리고 싶었을 것 같다.

내가 만약 디디였다면 펠릭스와 다시는 친구로 남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펠릭스는 디디를 자기와 다르다고 무시했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하면 기분이 무척 나쁘다. 디디는 펠릭스 덕분에 살이 많이 빠져서 고맙기도 하겠지만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사람을 무시한 것은 용서하기 힘들다.

외모 하나로 사람을 평가하는 일은 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람은 모두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기 때문이다. 펠릭스와 디디는 둘 다 뚱뚱했다. 그래서 이 둘은 자신의 외모 때문에 수영장에서 차별받았다. 나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차별당한 사람은 기분도 몹시 나쁠 것이다. 내가 남을 차별하는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되겠다.

독재는 왜 나쁜가요?

유승준 (은혜초4)

<꼬마 독재자>는 독재자 아이가 아이들을 괴롭히다가 결국엔 물러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견식이는 힘이 세다고 아이들을 때리지만 아이들은 견식이를 혼내주기 위해 학급회의에서 독재의 싹을 자르자고 말합니다. 학급회의가 그렇게 진행되자 견식이는 아이들이 안 보이는 곳으로 다니게 됩니다.

책에서 제일 재미있었던 내용은 학급회의가 열리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견식이한테 맞았던 원수를 갚기 위해 용기를 내어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책 내용처럼 우리 반에서도 아이들을 때리고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맞았던 아이들은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친구는 선생님께 혼나고 외톨이가 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니 독재는 아이들을 괴롭히면서 조종을 하려는 나쁜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키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때린다고 협박했기 때문입니다.

견식이 같은 친구가 있다면 아이들은 시키는 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독재자 같은 친구는 폭력으로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반에서 힘이 센 아이가 다른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나는 그 아이에게 심부름을 시키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화를 내면서 나를 공격했습니다. 그때 나는 공격하지 않고 피하면서 그 아이의 팔을 잡고 선생님께 끌고 가서 아이가 한 일을 말했습니다. 그러자 선생님은 그 아이를 많이 혼냈습니다.

독재는 폭력을 사용하여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므로 이런 일은 나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으로 다른 사람을 통치하는 것이 편하겠지만 당하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꾸리찌바를 홍보하는 글을 쓰세요.

조에스더 (잠신초4)

안녕하세요! 저는 꾸리찌바 홍보대사 조에스더입니다. 저는 꾸리찌바에 대해 홍보하겠습니다. 꾸리찌바는 남아프리카 반도에 있는 브라질 빠라나 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친환경 도시이자 생태도시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자연과 인간이 사이좋게 어우러진 도시는 아니었답니다. 이곳은 30년 가까이 동안 노력해서 제 3세계의 가난한 지방 도시에서 손에 꼽히는 생태도시로 변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꾸리찌바가 변화된 비결에는 사람과 환경을 존중하는 마음에 있습니다. 이곳은 따뜻하고, 자연환경, 생명과 조화를 이룹니다. 무분별하게 개발하지 못하도록 하며 어릴 때부터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자기가 사는 곳을 사랑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이 곳에서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신기한 것들이 많습니다. 땅 위에 지하철이 있어서 숲을 보며 갈 수 있고 꽃의 거리에서는 자유롭고 창조적입니다. 항상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저는 다음으로 꾸리찌바의 장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꾸리찌바는 망가진 건물을 부수기는커녕 다시 아름답게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재활용 하려고 하지요. 이곳은 숲이 울창해서 그런지 공기도 아주 맑고 깨끗하고 도시 한 가운데에 맑은 강물이 흐릅니다. 그리고 아주 자랑할만한 지혜의 등대가 있습니다. 그 곳에는 미니 도서관이고 그늘이 있어 시원합니다. 그리고 위급할 때 비상용 전화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밤이 되면 등대가 불을 밝혀줍니다.

다음은 꾸리찌바의 도시건축 계획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도로를 확장 시켜서 자연과 사람이 더 넓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중심에서 사람과 자연의 조화 중심으로 모토를 바꾸고 많은 것들에 그러한 정신을 접목시킬 것입니다. 또한 스포츠, 음악, 미술, 연극, 예술을 접목시킨 종합 예술 도시로 만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환경 규칙을 만들어 꾸준히 잘 관리되는 도시가 되도록 할 예정입니다. 많은 애정을 가지고 꾸리찌바의 밝은 미래를 지켜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혼혈인이 겪는 어려움과 해결 방법을 생각해서 쓰세요.

조항빈 (잠신초4)

혼혈인에 대해 소개해주는 '까만 달걀' 책을 읽고 나는 혼혈인이라는 이유로 놀림을 받고 차별받는다는 것이 불쌍하다고 느껴졌다. 자연스럽게 다문화 가정에 대한 편견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그 사람들에 대한 애처로운 마음이 들었다.

사람들이 혼혈인과 다문화 가정에 대해 가지게 되는 편견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다. 그 예로는 혼혈인들이 사회에 적응을 잘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혼혈인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지 않는 기본적인 생각과 행동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교육을 받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학업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다. 또한 고용주가 혼혈인들의 생김새와 언어가 보통 사람들과 다르다고 쉽게 일자리를 내주지 않는 이유로 혼혈인들은 일자리를 얻기 쉽지 않다. 이런 어려움들은 사람들이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져서 생기는 문제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의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없애는 근본적인 방법을 생각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늘 마음과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형성되어 있는 선입견을 바꾸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과 행동들이 필요하다. 그 작은 움직임은 우리부터 시작할 수 있다.

우리가 혼혈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행동들을 생각해보았다. 그들과 같이 길을 다니면서 길을 소개해준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이 친구도 사귀면 좋기 때문이다. 또한 다문화 가정은 서로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서로의 문화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자주 주는 것이 필요하다. 함께 이벤트나 체험 활동을 하면서 한국 문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한국 문화를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다. 그리고 외국인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키고 우리는 그들의 모국어를 배우면서 서로 상부상조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혼혈인들이 우리의 친구라는 마음가짐을 가지면 다문화가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화성여행을 가보면 어떨지 적어보세요.

김나현 (갈산초5)

화성은 태양계의 행성 중 지구와 가장 흡사하다. 언젠가 우리 지구에 사는 사람들의 화성여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화성여행을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가능하다고 보는 이유는 화성에 거대한 물의 자국 때문이다. 물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이다. 화성에 물의 자국이 있는 것은 우리가 화성여행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다. 그리고 화성의 자전주기는 약 24시간 정도인데 지구와 자전하는 시간이 비슷하기 때문에 밤낮이 지구와 비슷하여 적응하기 좋다.

우리가 만약 화성여행을 간다면 무엇을 챙겨야 할 지 깊게 생각할 것이다. 나는 마법의 주머니를 가져가야겠다. 무엇이든지 다 들어가는 마법의 주머니에 식량, 식물, 옷 등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담아 가져가겠다.

화성의 관광지는 어디일까? 너비는 미국, 길이는 호주의 크기만하다는 '마리너 계곡'을 가야겠다. 그곳은 화성에서 물 자국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 규모가 어마어마해서 기회가 되면 정말 가보고 싶다.

나는 화성에 가족과 친구들을 데리고 갈 것이다. 여행이 힘들어도 가족과 함께 있고, 친구와 수다를 떨면 화성과 지구간 왕복 3년을 길지 않게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별똥별 아줌마 덕분에 태양계 중 지구와 가장 흡사한 행성이 화성이라는 것, 물자국이 있다는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만약 '화성에 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라며 재미있는 생각도 했다. 또한 화성 이외에 지구와 비슷한 행성은 무엇이 있을지 궁금해졌다.

생태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벌과 박쥐. 지구에 벌과 박쥐가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지호 (신서초5)

벌과 박쥐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동물이다. 먼저 꽃의 꿀을 모으는 꿀벌들이 없으면 식물과 나무들이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한다. 박쥐는 지구상 동물 중 70% 차지하고 있는 곤충의 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만약 벌과 박쥐가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된다면 우리는 생활이 어려워질 것이다. 벌은 인간의 욕심으로 야생 벌집을 부수고 꿀을 쓰게 되면 사라질 수 있다. 또한 박쥐는 동굴을 부수고 공원 등의 건물을 만들거나 환경오염에 의해 사라질 수 있다. 지구온난화는 이 동물들을 멸종시킬 수 있다. 만약 벌과 박쥐가 사라진다면 벌이 수분을 하지 못해 식물이 많이 사라져 산소가 부족해질 수 있고, 과일 같은 식량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 박쥐가 사라진다면 온 세상은 곤충들로 가득할 것이다. 왜냐하면 박쥐는 한 시간 동안 1000마리의 모기를 잡아먹고 미국의 텍사스 브라켄 동굴의 박쥐들은 하루에 200톤의 곤충을 잡아먹기 때문이다. 그리고 밤에는 박쥐가 벌을 대신해 수분을 도와주기도 한다.

벌과 박쥐가 사라진 세상이 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에어컨 온도 너무 낮게 하지 않기, 되도록 걷거나 자전거 이용하기를 통해 에너지를 아껴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한다. 또 우리의 욕심으로 터널을 많이 뚫지 않기, 살충제 이용을 줄이기 등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환경오염을 만들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실천한다면 후손들은 더욱 잘 살 수 있을 것이다.

장길산, 임꺽정, 홍길동은 도둑일까? 의적일까? 나의 생각을 써보세요.

이건우 (계남초5)

장길산, 임꺽정, 홍길동은 우리나라의 의적이다. 장길산, 임꺽정, 홍길동은 벼슬아치를 공격했는데 백성들은 이들을 무서워하면서도 통쾌한 맛을 보았다. 힘없는 자신들을 대신해서 싸워주는 도적이라고 생각했다.

이들은 의적이다. 첫째, 장길산, 임꺽정, 홍길동은 부잣집 물건을 훔쳐서 백성들 대신 싸워주었다. 둘째, 그들은 탐관오리들을 위해 한양으로 가는 많은 물건들을 가져갔기 때문에 의적이다. 셋째, 부패한 나라를 훔치려고 했기 때문에 대담한 의적이다.

그러니 장길산, 임꺽정, 홍길동은 우리나라의 의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잣집의 집도 열고 가난한 이들의 모습을 했기 때문이다. 홍길동은 새로운 나라를 찾아 갔고, 임꺽정은 도망치다가 화살을 맞아서 고슴도치처럼 죽었다. 그리고 장길산은 전해져오는 이야기를 들으면 백두산 부근으로 가서, 양민과 천민을 구분하지 않으면서 화목한 마을을 이루면서 살았다고 한다.

나는 장길산, 임꺽정, 홍길동이 착한 도적인 것 같다. 왜냐하면 두려운 한편으로는 백성들의 통쾌함을 느끼게 해주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도 백성들처럼 힘없고 천대 받는 처지였기 때문이다. 나도 홍길동처럼 가난하고 약한 자를 돕는 사람이 되고 싶다.

전쟁의 피해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서술하세요.

박지원 (잠신초5)

나는 '전쟁과 소년'을 읽고 전쟁 후의 많은 아픔과 희생에 대해서 생각해보았다.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치열하게 싸우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는다. 또한 일반 민간인들은 전쟁이 나면 집을 비롯한 모든 것을 잃기도 하고,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미사일 폭격에 맞아 죽기도 한다. 이로 인해 민간인들은 전쟁 때문에 무서움을 느끼고, 아이들은 부모를 잃어버려 고아가 된다. 아이를 잃은 부모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평생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이렇게 전쟁은 군인과 민간인 또는 아이와 어른을 비롯한 모든 인간을 불행하게 만든다.

전쟁의 아픔은 또 다른 문제를 낳는다. 바로 이산가족 문제이다. 전쟁 중에 가족을 잃어버리면 서로 너무 힘들 것이다. 기억 속에 여전히 살아있는 가족과의 추억을 떠올리면 너무 보고 싶고 그리워서 혼자 살기 싫은 충동을 느낄 수도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북 간의 관계에 따라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고 있다. 서로간의 생사를 확인하기도 하며 어렵게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 자리에서 다시 만난 가족들은 울음바다 속에서 재회한다. 나도 그 현장을 텔레비전을 통해 볼 때면, 그들의 마음이 전해져 울컥하곤 한다.

전쟁 후 문제가 순조롭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평화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이유 없이 피해를 겪어야 하는 이산가족의 아픔을 생각해서 모두가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평화로운 만남의 분위기와 접촉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남북한이 서로 화합하고 배려하는 자세로 바뀌길 원한다. 그리하여 남쪽, 북쪽이 하나가 되고 결과적으로 휴전선이 사라지게 된다면 더 크고 강한 대한민국 한 민족이 생겨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더 큰 힘을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행복하고 모든 국민의 미래를 책임지는 나라가 될 것이다.

책을 읽고 핵전쟁과 관련하여 자신을 생각을 적어보세요.

한병민 (잠신초5)

핵폭발이 있었던 쉐벤보른 마을은 도저히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마을이 되었다. 사람, 건물, 자연 등의 모든 것들이 불타서 없어졌고 사라져 버렸다. 핵폭발 이후, 방사능으로 인한 피폭 때문에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기형아 또는 눈이 멀거나 듣지 못하는 등의 장애를 갖고 태어났다. 먹을 것이 남아있지 않았고 농작물이 있다 해도 먹을 수가 없었다. 새들이 모두 사라져 버려 벌레들을 잡지 못하자 해충이 많아져 병충해가 심해졌다. 남아있는 사람들은 모두 희망을 잃어버렸고 차가워졌다. 이처럼 책에서 나오는 핵폭발로 인한 전쟁의 참상은 읽으면서도 두 눈을 의심할 정도로 무섭고 참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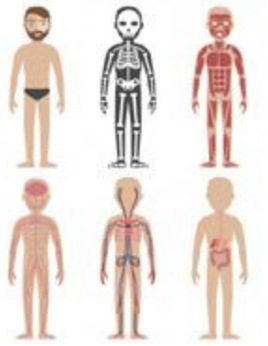
나에게도 이런 상황이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핵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존재이다. 나라를 집어 삼킬 만한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핵을 무서워하고 핵 전쟁을 두려워한다. 우리가 방사능에 조금이라도 노출된다면 죽거나 상상 못할 끔찍한 고통을 겪을 수 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일본이 원자폭탄을 2번 맞으면서 결국 항복을 했던 일이 있었다. 그 당시에도 핵이라는 무기가 사용되었고 만약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분명 핵 전쟁이 본격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한다. 온 나라가 사라지거나 불타 없어질 것이고 사람이 다 죽을 것이다. 사람들이 살아남더라도 방사능 때문에 피폭을 당해 암에 걸리거나 기형아를 낳을 수 있다. 동물들도 방사능에 오염된 풀과 물을 먹고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일들 모두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다. 우리나라도 지금 휴전 중인 전쟁국가이고 북한은 핵무기로 우리와 세계를 위협한다. 앞으로 전쟁이 일어난다고 가정 했을 때 조금 무섭고 두려웠다.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 나를 두렵게 했다. 하지만 두려움으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관심을 갖고 서로를 이해하며 평화와 안전하게 각자의 문제들을 서로 잘 해결 할 수 있는 세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의 몸'을 주제로 독서 감상문을 작성해 보세요.

이지헌 (대도초5)

나는 평소에 내 몸에 대해 그냥 기본적인 상식만 알고 있었다. 예를 들어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보내고, 폐가 숨을 쉬게 하고, 뼈가 있어서 우리를 지탱하게 해 주고, 눈은 보게 해 주고, 코는 냄새를 맡게 해 주고, 마지막으로 귀는 듣게 해 준다. 이처럼 우리 몸은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것들은 대부분 상식적인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우리 몸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게 되었다. 먼저 우리 몸은 너무나도 많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기본적인 것은 세포이다. 우리 몸은 세포라는 작은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우리 몸에서는 내 생각으로 가장 중요한 2가지가 있다.

첫째, 머리가 있다. 머리에는 얼굴, 뇌 등 여러 가지 장기가 있는데, 우선 뇌는 우리가 생각하고 움직이게 해 준다. 우리의 뇌는 우뇌와 좌뇌가 있는데, 좌뇌는 우리의 몸 중 오른쪽을 조종하고, 우뇌는 우리의 왼쪽을 조종한다. 뇌는 정말로 멋진 세계인 것 같다.

둘째, 상체가 있다. 상체에는 간과 심장, 콩팥 등 여러 중요한 내장이 있다. 심장은 우리 온몸에 피를 보낸다. 그래서 심장이 뛰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것이다. 또 내장 중에 폐가 있는데, 폐는 우리를 숨 쉬게 해 준다. 앞으로도 내 장기들을 소중하게 다뤄야겠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몸을 망치는 사람들이 있다. 예를 들어 무리한 다이어트, 담배, 술 등을 하는 사람이 있다. 무리한 다이어트를 하면 건강에 안 좋을 수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 많이 굶어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면 간이 안 좋아져서 세균이 죽지 않고 간이 독을 못 걸러내서 죽을 수도 있다. 이처럼 우리 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우리 몸을 소중하게 다뤄야 한다.
이처럼 우리 몸은 많이 소중하므로 함부로 대하지 말고 소중하게 다뤄야 할 것 같다.

'동물과의 조화로운 삶'을 주제로 독서 감상문을 작성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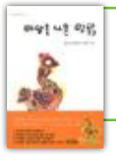
최은우 (대도초5)

사람들은 야생동물을 많이 잡는다. 그 이유는 천연기념물을 팔아 큰 돈을 벌기 위해서나, 야생동물이 몸에 좋다는 소문을 들어서이다. 밀렵꾼들은 약과 올무를 이용해 야생동물을 죽인다. 돌고래, 물개 등의 동물들도 함부로 잡아 훈련을 시키기도 한다.

나도 돌고래와 물개 쇼를 본 적이 있다. 현장 체험학습을 하러 놀이공원에 갔는데, 돌고래와 물개 쇼를 보았다. 쇼를 보는데, 어떤 돌고래가 실수를 했다. 그때 조련사가 돌고래를 때렸다. 그리고 물개 쇼를 하며 꼬리는 드는데, 꼬리가 떨렸다.

또 캥거루도 보았다. 캥거루는 누워 있었는데, 매우 힘들어 보였다. 캥거리는 팔을 다쳤다. 캥거루 말고 다른 동물들도 보았지만, 다들 나한테 풀어 달라고 애원하는 것처럼 보였다. 만약 다른 생명체가 사람들이 동물을 가두듯이 우리를 가두면 어떨까? 두려움에 떨고 지내야 할 것이다. 동물들도 이런 생각이 들 것이다. 동물들에게 이러는 것은 절대 바른 일이 아닌 것 같다.

이 책에서는 야생동물 구조대의 석이 대원이 다친 고라니를 치료해 주고, 아이들에게 야생동물 이야기를 해 주는 내용이다. 나는 석이 대원이 해 주는 야생동물 이야기 중 수달 이야기가 가장 기억에 남았다. 새로 들어온 연이 대원은 동물 보호를 맡게 되었는데, 귀여운 수달을 돌보게 되었다. 그 수달을 달구라고 짓고, 많은 사랑을 주었다. 그런데 그 수달이 야생에 적응해야 하자, 연이 대원은 달구에게 많은 사랑을 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인지 달구는 아프게 되었고, 죽게 되었다.
이 이야기 외에도 멧돼지 이야기, 두루미 이야기, 물개 이야기 등이 있었다. 이 책을 읽고, 나는 사람들이 모두 올무를 놓지 않고, 산불을 일으키지 않고, 야생동물을 보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유'를 주제로 독서 감상문을 작성해 보세요.

백채원 (대도초5)

우리들은 모두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어 한다. 꼭 사람이 아니어도 자유를 꿈꾸는 생명들이 많다. 내 집에 있는 햄스터는 항상 탈출할 기회만 엿보고 있고, 개나 고양이들도 틀에 갇혀서 자유를 빼앗기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처럼 모든 생명은 자유를 꿈꾼다.

사실 자유를 꿈꾼다는 것은 지금의 상태에 만족을 못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를 꿈꾸는 생명들은 모두 지금 상태에 만족을 못한다. 따라서 자유를 꿈꾸는 것은 희망을 가지고 지금의 인생보다 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삶을 꿈꾸는 것이다.

나는 지금 내 상태에 만족하는 것 같다. 이 상태보다 더 무엇을 바란 적이 없다. 자유라는 것은 방종과 다르게, 정해진 규칙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나의 상태는 자유로워질 대로 자유롭다고 생각한다.

<마당을 나온 암탉>에 나오는 주인공인 잎싹은 철장 안에 갇혀서 항상 알만 낳으면서 살고 있다. 잎싹은 이 철장에서 나가서 자신의 새끼를 키우면서 자유롭게 사는 것을 꿈꾼다. 하지만 모든 것은 대가가 있는 법, 철장을 나가자마자 족제비에게 잡아먹힐 위기에 빠진다. 이것은 자유가 위험하고 얻기 힘들 때도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자유가 없는 대신 누군가의 보호를 받는 게 더 좋을 때도 있다는 것도 보여 준다.
이런 것을 다 보고 나면 자유라는 것이 엄청 복잡해진다. 하지만 아무리 복잡해도 내가 만약에 잎싹과 같은 상황에 놓이기 되면 나는 위험하더라도 철장에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위험해도 도전하면서 사는 게 인생의 재미 같다.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자면, 사람들은 거의 다 본능적으로 지금의 상황보다 더 좋은 상황에 대해서 생각한다. 자유에 대해서 생각할 때도 있는데, 진정한 자유를 위해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

지구 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별이 있을까?

박지원 (잠신초5)

<우주 이야기>를 통해 내가 몰랐던 우주에 대한 지식을 많이 채워주었다. 우주에 대해 참 자세히 나와 있다. 나는 각각 행성의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었다. 그리고 처음 책 표지를 보았을 때 뭔가 재미있을 것 같다는 것을 느꼈다. 왜냐하면 태양계가 나와 있고 별똥별 아줌마가 인상적이었기 때문이다. 이 책을 통해 혜성과 유성의 차이점을 알게 되었다. 또한 명왕성이 왜 궤도에서 이탈을 했는지도 알 수 있었다. 우주는 내가 알고 있던 것보다도 더욱 신비하다는 것을 느끼며 여러 행성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 중 첫 번째, 명왕성이다. 명왕성은 그냥 일 년이 지구에 비해 긴 것만 알고 있었는데 명왕성이 궤도를 이탈하여 돌아서 이젠 태양계에 속하지 않는 소행성이 되었다.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마치 가족에서 떨어져 나간 고아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래서 명왕성이 불쌍하기까지 했다.
두 번째, 혜성과 유성의 차이점을 알았다. 이 책을 읽기 전에 혜성은 단순히 하나의 운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가 대기권 밖에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한 유성은 대기권에 들어와 불타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을 알고 나서 혜성은 지구 안에 들어 온 게 아니었다는 것을 생각했다.
세 번째, 토성에 대해서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나는 원래 토성은 지구보다 750배나 크다는 것만 알았는데 무게는 약 100배 정도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다는 것을 처음 알았다. 토성은 물 위에서 뜬다는 한다. 이 점을 알고 1000배면 크기에 비해 가벼워도 가라앉지 않을까라는 의문이 들었다.
또한 책을 덮은 후에는 지구 외에 다른 행성에 생명체가 살까? 라는 의문도 들었다. 내 생각에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지구 말고도 행성은 수천 억 개나 있기 때문이다. 있다고 가장하고 그 외계인의 모습을 숨 쉬는 기관이 지구인보다 아주 많을 것 같고 낙타와 같이 물을 저장하는 기관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지구인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생명체가 살고 있을 것 같다.

책을 읽고 재미있었던 부분을 적어보세요.

주필홍 (세검정초5)

<한국사 편지 2>는 후삼국 시대부터 문익점이 목화씨를 가져오기까지 이야기를 담은 내용이다. 이 책에서는 왕건이 새 나라를 만든 이후 무신이 봉기를 일으키는 장면이 나온다. 몽골이 침입하자 고려는 팔만대장경을 만들고 나중에 공민왕이 즉위한다. 책의 마지막에는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오고 최무선이 화포를 만드는 이야기가 나온다.
가장 재미있었던 부분은 서희가 말로써 거란을 물리쳤던 부분이었다. 왜냐하면 나는 멋지게 싸워서 이기는 것도 좋아하지만 어떨 땐 무기를 쓰지 않고서도 이기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한다. 서희는 결국 싸우지 않아서 병사 한 명 잃지 않고 보상만 받았다. 이것은 진짜 호박이 넝쿨째 굴러왔다고 할 수 있다. 내 경험상 주먹으로 싸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말로 해결할 수 있는 걸 굳이 싸움으로 해결하려 했기 때문이다. 나도 물론 싸운 적이 있지만 차분히 말로 해결하면 둘 다 평화롭게 끝날 수 있다.
문익점이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온 건 <한국사 편지 2>를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그런데 귀양 갔던 문익점은 왜 원나라에서 목화씨를 가져왔을까? 그 이유는 고려에 있던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해서 가져왔거나 아니면 백성들 때문에 가져오지 않았나 싶다. 난 이런 점에서 문익점이 존경스럽다.

역사는 원래 재미없고 그 스토리도 보잘것없게만 느껴졌는데 이 책을 읽고는 한국사가 재미있어졌다. 그리고 왕이 되면 편하게 먹고 자며 지내는 줄 알았는데 왕의 삶도 노동자 못지않게 힘들고 위험하다는 걸 느꼈다.

나는 어떤 사람일까요? 나에 대해 생각해보고,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세요.

윤지수 (갈산초6)

저는 '물감'입니다. 왜냐하면 물감이 다른 색깔과 섞이면 하나의 색깔이 되는 것처럼 처음 본 사람과 금방 친해지기 때문입니다. 저 윤지수는 '물감'같은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그림그리기를 잘합니다. 1학년 때는 처음 학교'라는 곳에 와서 처음 본 친구들과 서먹서먹했지만, 저는 친구들과 금방 어울리고 싶어서 먼저 다가갔습니다. 속으로는 창피하고 부끄럽고 그 친구가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가만히 있고 싶었지만, 용기를 내서 다가가니 친구들도 저를 좋아해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이후로 처음 본 친구들과도 어색하게 있지 않고 먼저 다가갔습니다. 그 이후로 제가 잘하는 것은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하고 잘 합니다. 처음에는 그림에 자신이 없어서 조그맣게 그리기만 했는데, 한 친구가 제 자리로 와서 잘 그린다고 칭찬해준 후로부터 자신감이 생기고 그림 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좋아서, 형편이 어려운 친구들을 많이 도와주고 싶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도 잘 들어줘야 그 사람도 저를 좋아해준다고 생각합니다. 형편이 가난하다고 어울리지 않고, 따돌리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의 목표는 마음이 아픈 친구나 말 못 할 고민이 있는 친구를 도와주는 심리상담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어떤 차별이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서 말해보고, 그에 따른 해결방안도 적어보세요.

노주연 (신서초6)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자신의 나라로 강제로 데려가서 노동을 시키는 일이 있었다. 그런 일본을 보고 우리는 잔인하다고 너희는 부모도 없냐는 식으로 비판하고 무조건 일본이 나쁘고 잔인하다는 생각을 어린이에게 심어주는데, 일본뿐만 아니라 일본에게 당한 우리나라도 같다는 사실을 이 십시일반을 읽고 깨달았다.

동남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사람들, 미국의 흑인들은 차별을 받으며 일자리를 잘 구하지 못한다거나 학교에서는 어린 아이들에게 놀림을 받는다. 만약 일자리를 구하더라도 힘들게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온 외국인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우리나라부터 일본과 같이 되지 않게 노력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빚이나 재산 때문에 큰 손상을 입어서 외국으로 노동하러 간 외국인들이나 전쟁으로 피해를 입어서 포로로 외국인 노동자가 되어서 힘들게 일하는 그 사람들의 인권을 존중해주면서 일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러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자신이 나는 '말을 못 알아들을 것이라고 욕을 하거나 심하게 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외국인을 차별하는 모습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에 노동자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길거리나 도시 곳곳에 외국인들도 인권이 있다는 의미를 가진 홍보물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면 사람들도 외국인 노동자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 사람들을 한국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서로 존중할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생각하는 우리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왜 위대한 영혼인가?

박진우 (계남초6)

이 책에서의 주인공 '나'는 1913년에 부서진 집과 사람 세 명 밖에 살지 않는 황무지를 지나고 있었다. 그곳에서는 엘제아르 부피에 라는 양치기가 나무를 심는 일을 하는데, 그 덕분에 30년 뒤에는 숲이 무성해져 샘이 넘치고 채소밭에선 다양한 채소가 자라고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깃들어 살게 되었다.

나무를 심어 숲을 가꾸기만 했는데 사람들이 1만 명이나 살게 된 것은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나무가 마을을 이롭게 했기 때문이었다.

우선 나무가 있으면 공기가 맑고 깨끗해진다. 그 이유는 나무가 이산화탄소를 빨아들이고 산소를 내보내기 때문이다. 물론 나무가 많으면 그늘도 생겨서 시원할 것이고 토양 오염등도 줄어들 것이다. 게다가 나무가 많으면 그 자체로 아름답고 분위기가 있어 보이기도 한다.

엘제아르 부피에는 일단 인격이 고결하다. 그 이유는 자기 땅이 아니어도 황무지 전체에 나무를 심었기 때문이다. 또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다. 황무지를 위해 나무를 열심히 심고 하나의 숲을 만들어서 엘제아르 부피에는 위대한 영혼이라 불렸을 것이다. 사람이 살지 않은 마을에 사람들도 부쩍 늘었으니 그런 칭송을 받을 만하다.

이 책을 읽으니 엘제아르 부피에는 자신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도 이 분처럼 조금 더 남을 위하며 살려고 노력해야겠다.

지구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김해인 (중대부초6)

<최열 아저씨의 지구촌 환경이야기 1>은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버리던 쓰레기부터 큰 공장이나 소각장 등 우리 환경을 파괴하는 주범에 대해서까지 설명한 책이다. 최열 작가는 아무리 쓸모없어 보이는 물건도 얼마든지 재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다. 예를 들어 지렁이를 이용해서 음식물 쓰레기를 비료로 만드는 것이나 사탕수수 껍질로 명함을 만드는 것처럼 말이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점은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환경 보호와 환경에 실제로 관심 있는 전문가들이 생각하고 실천하는 환경 보호는 많이 다르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환경 보호는 대충 분리수거하고, 일회용품을 쓰지 않는 것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하지만 실제 환경운동가들은 합성세제나 샴푸를 거의 사용하지 않고 , 친환경 물품은 물론이고 재생 종이나 사탕수수 껍질을 이용한 물품까지 사용하고 있었다.

나는 이런 환경 운동가들의 노력이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란 콩이나 옥수수 같은 식품이 자라기 전에 그 속에 있는 유전자를 분석해서 필요한 유전자를 넣고, 불필요한 유전자를 빼서 조작한 식품이다. 유전자 조작 식품은 미리 조작되었기 때문에 병충해에 강하고, 더 많은 양의 식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이런 유전자 조작 식품을 많이 먹게 되면 암에 걸릴 수도 있다. 또, 모든 생물과 생태계는 상호 작용하기 때문에 유전자가 과하게 조작된 식품이 나타난다면, 그에 따른 환경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옥수수에 해충을 이길 수 있는 슈퍼 유전자를 넣는다면 시간이 흘러선 옥수수 유전자를 이길 슈퍼 해충이 나타날 수 있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우리가 조금 더 환경에 신경 써야겠다는 것이다. 바다 한가운데 생긴 쓰레기 섬, 오염된 강과 공기, 쓰레기로 매립된 땅.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인간의 책임이다. 그렇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생태계를 훼손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을지도 모른다. 앞으로는 합성 세제, 샴푸 등의 사용을 줄이고, 친환경 제품이나 재활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또 재활용뿐만이 아니라 물도 아끼고 쓸데없이 음식을 많이 받아서 음식물 쓰레기를 만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 같다.

고통스러운 자유와 편안한 통제 중 어떤 것이 더 바람직한가?

김해민 (중대부초6)

나는 <기억전달자>를 읽고 하나의 생각을 떠올리게 되었다. 과연 고통스러워도 자유가 좋은지, 편안하지만 통제를 받는 것이 좋은지 생각해 보았다. 자유는 우리에게 다툼과 분열을 일으켜 인류를 통합시키는 데 방해가 되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인류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추진력이 되었다. 통제는 인류를 하나로 모을 수 있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을 감추고 사람들을 감시하는 체계가 생길 수밖에 없다.

자유는 다소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추진력이다. 자유가 주어지면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다. 이로 인하여 서로 경쟁이나 분쟁으로 서로의 발전을 도모했다. 하지만 이것이 너무나 심각해지면 전쟁이 일어나고 양측 모두에게 슬픔과 좌절을 안겨 준다.

통제는 다소 편안함을 주면서 우리 인류를 통합할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다. 자유가 있는 한 다른 생각들은 생겨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통합을 이룰 수는 없다. 통제 안에서는 싸움이나 분열 그리고 차별은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통제를 하기 위하여 사람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사실을 감추며, 사람들을 감시하는 체제가 생긴다. 그래선 자신들이 알아야 할 것들을 모르고 살 수도 있다.

나는 고통스럽지만 자유를 누리는 것이 편안함을 누리는 통제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 비록 인류가 분열되어서 싸우는 것을 계속하겠지만 그 때 배운 교훈들은 후세 사람들에게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줄 것이다. 통제되어있는 세상에서 발전은 없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우리는 최소한의 분열과 다툼에서 교훈을 찾고 경쟁을 하면서 모두가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다툼만을 추구하는 세상이 오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주인은 바로 나!

강지호 (대도초6)

나의 성향은 조용하고 혼자 생각하는 것을 좋아한다.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굉장히 혼란스럽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고 배려를 잘 한다.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걸 굉장히 싫어한다. 그래서 남을 잘 건드리지 않고 상대에게 상처주는 말은 하지 않는다. 나의 호불호는 조용하고 내성적인 친구를 좋아한다. 꼭 조용하지는 않아도 재미있고 잘 웃어주는 친구를 좋아한다. 반면 이기적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친구를 싫어한다. 또 남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은 싫어한다.

나의 꿈은 의사이다. 의사가 되고 싶은 이유는 엄마가 의사이기 때문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서 되고 싶은 것도 있지만 남의 병을 고쳐서 다른 사람의 삶을 편하게 하는 역할이 멋있다. 의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다.

가장 나다운 것은 조용하고 과묵하고 내가 신뢰가 가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위해 베풀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독서와 조용히 명상하는 걸 좋아한다. 이런 것들이 가장 나다운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가 내 꿈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은 수학 공부, 책 읽기이다.

열심히 노력해서 내 꿈을 이루었을 때 나는 나 자신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꿈을 이루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내가 어떤 걸 싫어하는지 알 수 있다.

게 맞붙고 있다.

책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 2019년, 소수의 특권층 인간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 복제인간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복제인간을 만든 사람은 복제인간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복제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서 복제인간들은 복제인간 수용소를 도망치기까지 한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복제인간이어도 감정을 느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현재 여러 동물을 실험을 통해 복제를 했고, 책처럼 실제로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물 실험 문제도 복제인간 문제와 비슷한 것 같다. 인간이냐 동물이냐는 누가 더 중요한지의 문제이다. 서로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결국 인간이 과학보다 자연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이것이 과학이 넘어야 할 큰 산이 생명윤리인 이유다.

'차별없는 세상'이라는 글감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쓰세요.

양세민 (대도초6)

'과학과 생명윤리'를 주제로 독서 감상문을 작성해 보세요.

황지민 (자곡초6)

인류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이유는 당연히 과학 때문이다. 과학 덕분에 인류는 불을 발견하고 도구를 만들었으며, 산업혁명을 이뤄 냈다. 이렇게 인류가 발전하게 된 원동력인 과학의 발전은 무궁무진해 보였다. 그러나, 과학이 넘어야 할 산이 있다. 바로 생명윤리이다.

생명윤리란 한 생명으로서 가지는 도덕적 윤리이다. 요즈음 이 문제는 과학의 발전을 막고 있다. 그동안 인간의 편리와 질 좋은 삶을 위해 많은 동물들이 죽어 갔다. 한 통계에 따르면, 매년 1억 마리의 동물들이 실험을 통해 죽어 나가고 있다고 한다. '생명윤리를 지켜야 한다', '과학 발전을 위해 생명을 어쩔 수 없이 죽여야 한다' 등의 주장은 현재 치열하게 맞붙고 있다.

책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온다. 2019년, 소수의 특권층 인간들은 영원히 살기 위해 복제인간을 만들게 된다. 그러나 복제인간을 만든 사람은 복제인간도 감정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복제인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서 복제인간들은 복제인간 수용소를 도망치기까지 한다.

나는 이 책을 읽고,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느꼈다. 아무리 복제인간이어도 감정을 느끼고, 생각해서,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다는 생각을 했다. 현재 여러 동물을 실험을 통해 복제를 했고, 책처럼 실제로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에 반대한다. 심각한 인권 유린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동물 실험 문제도 복제인간 문제와 비슷한 것 같다. 인간이냐 동물이냐는 누가 더 중요한지의 문제이다. 서로의 관점에서는 자신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결국 인간이 과학보다 자연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의 문제일 것이다. 이것이 과학이 넘어야 할 큰 산이 생명윤리인 이유다.

이 사회에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그림자가 있다. 이 그림자 속에서 인권을 존중해 주지 않고 차별하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 내가 읽은 이 책이 그 또 다른 세상에 대한 내용을 고스란히 비판과 함께 옮은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책의 제목은 <십시일반>이다. 십시일반이라는 의미는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모여서 열 숟가락이 되면 한 공기와 같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열 명의 만화가가 모여 밥 한 공기 즉, 책 한 권으로 한 권으로 차별에 맞서겠다는 의도로 이 책을 썼다. 이 책에는 차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았다. 인상 깊은 두 가지가 있었다.

그 중 하나는 '첫 발자국'이다. 이 이야기는 하반신이 마비가 된 학생의 입장에서 쓴 이야기이다. 이 학생의 이름은 해연이다.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은 해연이에게 " 화장실 갈래?"를 묻는다. 해연이를 도와주려는 마음이 드러나는 행동이다. 하지만 해연이의 입장에서 보면 불편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항상 자신을 도와주려고 한다면 자신은 마치 짐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만화를 읽으면서 앞으로는 나도 장애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한 후 도움이 필요한지 양해를 구한 후 도와줄 것이다.

또 다른 이야기는 '누렁이2'이다. 이 이야기는 여자나 동물, 즉 약한 여자, 약한 동물들을 함부로 대하는 차별에 관한 것이다. 이 이야기 속에 남자는 아내와 강아지에게 똑같이 폭력을 행사한다. 지금껏 나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없었다. 그런 나에게는 아주 충격적이었다. 너무 잔인해서 인상이 깊기도 하였지만 이런 잔인한 것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충격적이었다.

비록 내가 직접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피해를 받는 이들의 고통이 느껴진다. 어른들은 항상 우리 어린이들에게 강자가 약자를 도와주어야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어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내가 어른이 되면 <십시일반>은 기억하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이해해주고 인권을 존중하는 참된 가치를 선택하는 어른다운 어른이 될 것이다.

개인의 감정과 기억이 통제 받는 삶이라면 어떨까요?

고유나 (잠신초6)

사람은 여러 가지 감정들을 느끼며 살아간다. 슬플 때 마음껏 슬퍼하고, 기쁠 때 기쁜 마음을 표출할 수 있는 삶이 행복한 삶인 것 같다. 자연스럽게 느끼고 표출되어야 할 감정과 생각들이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어 살아가는 것은 '나 자신'을 잃는 것과 같을 것이다. 예를 들어 슬픔이 통제된 삶을 산다면 내가 슬픈 영화 장면을 보거나 슬픈 일을 겪어도 누구에게 말을 하지 못해서 그 슬픈 일로 인한 슬픈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고 우울증이 걸리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슬픈 생각은 털어놓거나 표출되어야 해소될 수 있다. 그런데 표출되어야 할 감정이 통제 받는다면 답답한 마음일 것이다. 심각하게는 정신병까지 걸릴 수 있다. 슬픈 상황을 무조건 참기보다는 적당하게 표출하면서 기쁜 감정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슬픈 감정을 기쁨으로 전환시켰던 경험이 있다. 예전에 수학여행 중에 평소에 키우고 있던 햄스터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아빠로부터 전해 들었다. 수학여행 도중에 죽은 햄스터가 생각나서 슬프긴 했지만 평소에 햄스터를 싫어하셨던 아빠가 직접 죽은 햄스터를 박스에 넣고 정리해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마음이 편안해졌다. 수학여행 후, 집에 돌아와 햄스터를 잃은 슬픔을 위로하기 위해 부모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치킨을 시켜주셨다. 치킨을 먹으며 대화를 나누면서 점점 내 슬픈 기억이 사라지고,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

부모님으로 인해 상황이 정리되고, 내 우울했던 마음과 생각도 쉽게 회복되었지만 나는 그때 깨달은 것이 있다. 슬픈 감정을 느끼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며 그것을 표출하고 새로운 생각과 기분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때부터 나는 나를 찾아가는 연습을 했다. 슬픈 생각을 하는 것도 나이고, 기쁜 생각을 하는 것도 온전한 나이므로 이 둘을 부정하지 말고, 감정을 느끼는 나를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항상 감정과 기억을 관리하는 방법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겠다는 것을 느꼈다.

평소에 잃어버린 기억과 감정을 찾는 나만의 방법은 간단하게 일기를 적는 것이다. 너무 길거나 쓰기가 어려울 때에는 제목만이라도 써서 기억에 남기는 방법이 있다. 또한 때로는 기분 나쁜 감정을 회복하기 위해 먹는 것으로 해소하기도 한다. 좋아하는 것을 실컷 먹고 나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답답한 기분도 풀린다. 나는 앞으로 슬픈 것을 억누르지 않고, 적당히 느끼면서 슬픈 원인들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방법을 찾아나갈 것이다. 그렇게 해서 기쁜 마음으로 바꿔가면서 내 감정과 생각들을 잘 관리해서 '나다운 나'로 살아갈 것이다.

'나는 내 인생의 전문가'라는 글감으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쓰세요.

최서영 (대도초6)

모든 사람은 10대를 거치게 된다. 10대에는 다양한 성장이 이뤄지는 시기이다. 자신의 재능을 찾기 위해 다양한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한 시기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10대의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지나치게 학업에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다. 10대를 더 효율적으로 보내고 20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나를 안다는 것은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하고 꼭 필요한 가치이다. 그것을 나는 한 마디로'자신감'이라 말하고 싶다. 자신을 알면, 무엇을 한다 해도 자신의 생각을 잘 떠올려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을 알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나 잘하는 것, 또는 좋은 점을 더 발전시킬 수 있고 나쁜 점은 보완할 수 있게 된다.

자신감을 느끼는 순간은 가장 행복하고 중요한 순간이다. 나는 가끔 어떤 문제에 내가 쓴 답이나 생각했던 것이 괜찮다고 느껴지거나 창의적이라고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 그럴 때 나는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 예를 들어 마음이 통하거나 함께 있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친구와 함께 있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노래를 잘 부를 때 등 다양하다. 이럴 때 나는 왠지 모르게 더 자신감이 생긴다.

자신감만큼이나 나에게 더 중요한 것은 의미 있는 그 어떤 순간이다. 나는 친구들과 너무 행복하고 즐겁게 놀다보면 가끔씩 슬로우 모션으로 보일 때가 있다. 그러다가 한 순간에 다시 현실로 돌아오게 된다. 이것은 친구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너무 간직하고 싶은 간절함에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나는 자신감이나 의미 있는 순간을 느낄 때 가장 가치가 있고 나를 잘 알게 되는 것 같다.

나는 순간의 슬로우 모션을 즐기는 사람이다. 초등학교 마지막 학년인 6학년 동안 여러 장면의 슬로우 모션을 찍을 것이다.

ISSUE **<외모를 가꾸기 위한 다이어트. 긍정적으로 보는가? 부정적으로 보는가?>**

Column In News Paper

조선일보 2017년 5월 16일자

[이영완의 사이언스 카페] 마네킹처럼 날씬한? 마네킹처럼 깡마른!

마네킹 체형 조사해보니 여성형은 하나같이 저체중 / 사람이라면 건강할 수 없고 생리도 할 수 없을 수준 / 정상 체형의 마네킹과 인형 필요성 공감 갈수록 높아져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마네킹'이란 할리우드 영화가 개봉됐다. 백화점 직원인 남자 주인공이 사람으로 변한 쇼윈도의 마네킹과 사랑에 빠진다는 단순한 스토리였지만 흥행에 성공했다. 당시 인형처럼 순수한 아름다움을 선보인 여주인공은 훗날 드라마 '섹스 앤드 더 시티'에서 개방적인 전문직 여성 사만다로 나온 킴 캐트럴이다.

동화 속 주인공이던 마네킹이 현실에서는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존재로 떠올랐다. 영국 리버풀대 심리학과의 에릭 로빈슨 교수는 지난 2일 국제학술지 '섭식 장애 저널'에 "의류 매장에서 사용하는 마네킹이 하나같이 비현실적인 마른 몸매를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는 영국 리버풀과 코번트리의 중심가에 있는 의류 매장 17곳을 찾아가 마네킹의 신체 치수를 일일이 쟀다. 마네킹은 여성형이 32점, 남성형이 26점이었다. 패션업체들은 옷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늘 마른 몸매의 모델을 선호한다. 마네킹도 마찬가지였다.

특히 여성 마네킹은 정상적인 몸매를 가진 경우가 하나도 없었다. 여성 마네킹의 평균 몸매는 신체질량지수(BMI) 1~ 12중 1에 해당됐다. BMI 1~2는 저체중, 3~4는 건강 체중, 5는 과체중, 6~12는 비만으로 분류된다. 반면 남성 마네킹은 8%만 과도하게 마른 몸매였다. 평균은 BMI 3으로 날씬하지만 건강 체중이었다. 로빈슨 교수는 "여성들은 마네킹을 보면서 자신의 몸매에 대해 자신감을 잃고 결국 거식증과 같은 섭식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마네킹이 지나치게 마른 몸매라는 연구 결과는 과거에도 있었다. 1992년 과학자들이 박물관에 보관된 1930~60년대의 마네킹을 조사했더니 만약 실제 여성이라면 생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나치게 마른 몸매였다. 결국 지난 80년간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눈부시게 발전했지만, 몸매에 대한 관념은 한 치도 변하지 않은 셈이다.

현대 사회는 성인 여성뿐 아니라 어린아이들에까지 마른 몸매가 좋다는 인식을 심고 있다. 바로 날씬한 몸매를 말할 때 관용어처럼 쓰는 바비 인형이다. 호주 플린더스대 심리학과의 칼리 라이스 교수는 올 초 '보디 이미지 저널'에 발표한 논문에서 "여자 아이들이 바비 인형 때문에 자신의 몸에 자신감을 갖지 못한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5~8세 여자아이 160명을 세 그룹으로 나눠 첫째 그룹은 바비 인형이 나오는 그림책, 둘째는 정상 체형의 인형 에미가 나오는 그림책, 셋째 그룹은 인형 없는 그림책을 각각 읽혔다. 이후 자신의 몸매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자 바비 인형을 본 아이들이 가장 낮게 나왔다. 연구진은 "아이들의 몸매에 대한 불만족은 우울증과 섭식 장애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에서는 바비 인형이 여자아이의 가족과도 같다. 3~10세 여자아이들이 평균 8개의 바비 인형을 갖고 있다고 한다. 여자아이들은 바비 인형과 함께 자라는 셈이다. 하지만 시실 바비 인형의 몸매는 현실에 존재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존재해서도 안 된다. 호주 과학자들은 바비 인형과 같은 체형을 가진 여성은 10만명 중 한 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특히 핀란드 헬싱키 대학병원 연구진은 바비 인형과 같은 몸매를 가진 여성은 생리를 하는 데 필요한 지방이 17~22% 부족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제 대안의 마네킹, 인형이 나와야 할 때다. 2014년 미국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니콜레이 랭은 인터넷에서 모금한 돈으로 정상적인 몸매를 가진 인형 '래밀리'를 선보였다.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서 제시한 19세 여성의 표준 체형을 기준으로 만들었다. 여드름·뱃살·흉터·점 등 보통 여성이라면 다 있을 법한 신체 특징들도 갖고 있다.

패션업계에서도 너무 마른 몸매의 마네킹을 쓰지 않으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현실적인 몸매의 모델들도 인기를 끌기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글래머 매거진은 모델 애슐리 그레이엄을 '올해의 여성'으로 선정했다. 그레이엄은 키 175㎝, 몸무게 77㎏의 풍만한 몸매를 가진 모델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라"고 주장해 여성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었다. 바비 인형을 만드는 마텔사는 이날 그레이엄을 모델로 한 인형도 선보였다. 그레이엄은 마텔사에 "인형의 양쪽 허벅지가 반드시 닿아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한다. 어쩌면 메릴린 먼로나 비슷할 만한 '밀로의 비너스'보다는 허리가 굵고 배도 나온 구석기시대 '빌렌도르프의 비너스'가 오늘날 생물학적인 미(美)의 기준에 더 가깝지 않을까.

사진 출처 : hansboodtmannequins.com – "Mannequins" / By Joanna Crawley For Mailonline and Valerie Siebert For Dailymail.com "Ashley Graham"

다이어트에 대한 긍정적 입장 VS 부정적 입장

노현수 (목일중1)

'외모지상주의가 없어지지 않는 이유'

현재,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을 맞이서 다이어트를 진행중이다. '다이어트'는 건강 또는 외모상의 이유로 체중감량을 하는 행위인데, 여름철에는 몸 라인이 부각되는 옷을 많이 착용하기 때문에 특히, 여성들이 체중감량에 많이 도전하고 있다.

다이어트에 관한 의견은 굉장히 분분하지만, 다이어트는 긍정적이라고 본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는 건강상의 이유다. '비만은 만병의 근원'이라는 말이 있다. 그 정도로 비만은 굉장히 위험하고 고혈압, 당뇨 등 각종 성인병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비만 예방 차원에서 건강한 몸을 만들어야 한다. '마른 몸'까진 아니더라도 '정상'에 미치는 다이어트는 꼭 필요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로는 외관적인 문제이다.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 남의 외모와 인격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격모독을 일삼는 사람도 있다. 그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 A에게 '넌 뚱뚱해! 살을 빼야 하겠어.'라고 한다면, A는 다이어트에 몰입할 것이 분명하다. 그런 후 A가 다이어트에 성공했을 때, 다시 그에게 나타나면 그가 A를 보는 시선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첫인상'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예쁘고 잘생기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예쁘고 잘생겼다면 처음부터 좋은 인상을 남길게 분명하다. 즉, 사람들의 외모지상주의가 없어져야 한다고 해도 사회는 이미 외모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있다. 남자든, 여자든 사람들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본다.

여기서 사람들이 가지는 의문점이 있다. 예뻐지고 성인병 예방을 하는 것은 좋지만, 과도한 다이어트는 위험하지 않느냐 라는 것이다. 그러나 적당한 다이어트는 건강과 외모에 좋다. 과도한 다이어트를 예방할 수 있게 다이어트족들을 위한 식단표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과도한 다이어트는 삼가야 하지만, 적당한 다이어트는 나쁘지 않을 것이다.

이정윤 (목일중1)

'부추기지 마요! 난 내 몸이 가장 좋아요!'

요즘 많은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목을 매고 있다. 10대에서부터 20대 까지, 수 많은 여성들이 아름다운 몸매를 가지길 바란다. 심지어 5~6살 아이들까지도 바비인형을 보며 자신의 몸매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아름답고, 날씬한 몸매가 최고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지면서 섭식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 역시 늘고 있다. 그렇다면 이런 다이어트는 좋은 것일까? 나쁜 것일까?

다이어트는 좋지 않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다이어트는 거식증 같은 병을 초래한다.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를 과도하게 하지만 않으면 건강에도 좋고, 보기에도 좋다고 한다. 하지만 인간은 가장 욕심이 많은 동물이다. 그런 인간이 다이어트를 단순한 이유로 적당히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과도하게 다이어트에 집착할 것이다. 과도한 다이어트는 여러 가지 섭식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이어트를 하면 가장 걸릴 가능성이 높은 거식증, 이 거식증은 과도한 다이어트로 몸과 마음이 음식을 거부하는 것이다. 거식증에 걸리면 밥을 먹지 않게 되고, 결국에는 몸에 들어오는 영양분이 없어 죽게 된다. 이 무서운 병에 걸리면 표준보다 훨씬 마른 자신의 모습이 뚱뚱해 보이며 여러 합병증을 유발한다. 따라서 이런 무서운 병을 초래하는 다이어트는 좋지 않다.

두 번째로, 다이어트는 외모지상주의를 부추긴다. 외모지상주의는 예쁘고, 잘생기고, 날씬한 사람들만 선호하는 현상이다. 이런 외모지상주의는 이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큰 상처를 줄 수 있다. 사람은 겉보다 속이 더 중요한 법이다. 한번만 보고 평가할 수 있는 외모보다는, 천천히 알아가며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의 속이 더 가치가 있다. 사람들은 뚱뚱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통해, 타인에게 자신을 새롭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시대에 따라 변하는 외모, 아름다움을 가지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외모지상주의의 눈초리를 보내는 다이어트가 정말 좋은 것일까?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 아름다움을 위해 다이어트를 해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평생 존중할 수 있고 변함없는 그 사람 자체가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다이어트, 성형 등 외모에 중점을 두고 바라는 것들은 이제 머릿속에서 지우고, 다시 사람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시각을 가지는 건 어떨까?

바다에 관심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고건 (목운중1)

인간과 자연은 예로부터 함께 어울려 살아왔다. 때로는 이용하고 때로는 보존해 주면서 서로 유용한 관계로 지내왔다.그 중에서도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푸른 빛의 '바다'는 예로부터 공포와 미지의 대상이었으나 과학의 발전으로 인류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터전이 되었다.

바다는 깊고 어두우며 무서운 존재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술의 발달로 그 중요성과 그 안에 있는 무한한 식량과 자원으로 육지와 함께 인간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했다.

그런데 현재 지구온난화와 쓰레기 등으로 해수면이 높아지고 바다가 오염되는 현상이 연속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최근 온난화를 유발하는 가스로 인해 오존층이 파괴되었고, 북극의 얼음이 녹는 지구온난화 현상이 일어났으며, 많은 국가들이 쓰레기를 불법으로 바다에 버린 결과 '쓰레기 섬'이라는 있어서는 안될 것들이 생겨났다. 이토록 우리의 터전을 우리 손으로 파괴한 상황을 완화시킬 해결책은 무엇일까?

나는 인간이 자신의 것이 아니고, 자신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고 하여 바다에 무관심한 것을 고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70억이 넘는 세계 사람들이 깡통을 하나만 재활용해도 70억 개의 쓰레기가 없어진다. 이는 쓰레기섬 70개는 없앨 수 있는 양이다. 또한 '나 하나쯤이야'라는 생각에 지구온난화에 무관심하면 결국 우리는 바다를 사용할 수 없을 것이다.

쓰레기 줄이기는 모두가 할 수 있는 간단하고도 쉬운 일이다. 기업 공장의 매연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관심이 바다를 흑빛으로 물들여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항상 머리 속에 새겨놓고 살자.

과학의 유용성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세요.

정성우 (역삼중1)

현재 인류는 엄청난 과학 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현재의 모습까지 오게 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과학 기술은 급격하게 발전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주변 모든 것이 과학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과학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이제 곧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과학의 발전에 따라 변화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나는 과학의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다는 것을 느낀 적이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스마트폰이 나올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 이처럼 미래에는 또 어떤 신기하고 새로운 발명품이 만들어질지 기대가 된다.

이 책에서는 지금 개발이 된 신기한 발명품이 많이 나와 있다. 스마트카드는 신분증, 신용카드, 여권 같은 자신의 모든 정보가 들어 있는 카드이다. 이 스마트카드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카드가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 스마트카드의 정보가 유출된다면 자신의 모든 정보가 다 유출되는 것이다. 이것이 범죄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매우 철저하게 관리된다면 인류에 매우 편리해질 발명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나는 새로운 많은 발명품들을 알게 되면서 과학의 발전 속도가 엄청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상상 속에서만 있는 물건들이 미래에 실제로 발명될지 궁금해지기도 한다. 우리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 과학에 맞게 변화하려는 자세도 필요하다. 나는 과학이 많이 발전했을 미래가 기대된다.

주인공의 모습을 보고 느낀점을 적어보세요.

주필립 (청운중1)

<시간을 파는 상점>은 인터넷 카페를 통해 의뢰를 받고 일을 대행하는 온조가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담았다. 처음 의뢰자는 자신이 훔친 PMP를 제자리에 돌려달라는 의뢰를 한다. 처음엔 이 일을 하면 안 좋은 일이 생길 줄로 생각했다. 하지만 완수한 후에 다른 의뢰자가 자신의 할아버지와 식사를 같이 하고 친구가 되어 달라는 일을 맡긴다. 이런 일들을 해나가며 온조는 기쁨을 느낀다. 그런데 PMP를 훔친 것은 의뢰인이 아닌 의뢰인 친구였다. 그 아이는 PMP를 훔친 후 자책감으로 자살을 결심하게 된다. 그리고 온조와 의뢰자는 그 자살을 막으려 한다.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첫 아르바이트였던 빵집에서 점장이 온조에게 보인 나쁜 태도가 나오는 장면이었다. 점장은 솔직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오늘 구운 빵만 판다고 해놓고 어제 구운 빵도 팔았다. 남은 빵은 기부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지 않았다.

이 모습을 지켜본 온조는 참다못해 점장에게 한마디 했다. 점장은 온조에게 모욕적인 말을 했고 온조는 그대로 가게에서 나온다. 나라면 그런 상황에서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을 것이다. 주인공이 용기 있게 행동하는 것이 내게는 대단해 보였다.

내가 만약 주인공이었다면 처음 PMP에 대한 의뢰를 잘 성공해내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훔친 것처럼 보여야 하는 상황이 닥쳤을 때 당황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훔치지는 않았지만 그런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양심에 많이 찔릴 것 같다.

온조는 억울한 일이 있으면 할 말을 정확하게 말하는 대담함이 있었다. 여지껏 나는 억울한 상황이 있어도 아무 말도 못 하고 가만히 있었다. 주인공의 모습이 부러웠다. 나도 이런 일이 있으면 할 말을 똑바로 해야겠다는 다짐을 했다.

"열네살의 인턴십"을 읽고 느끼고 깨달은 것을 써보세요

권예서 (목동중1)

루이는 수학, 국어, 독어 등 무엇 하나 빠짐없이 못하는 아이이다. 그렇다면 루이는 왜 이 책의 주인공일까? 그 이유는 루이의 특별한 손재주 때문이다. 루이는 미용, 그중에서도 헤어 디자이너에 실력이 대단하다. 루이는 인턴십 기간에 어떤 일을 할지 고민하다가 할머니의 추천으로 미용실에 가게 되었다. 처음에는 적응을 못하고 어색했지만, 갈수록 사람들과 친해져 가족처럼 지내게 되고 미용 실력이 대단해 많은 칭찬과 놀라움을 자아내게 된다.

만약 우리나라(대한민국)에도 인턴십이 시행된다면 나는 찬성 할 것이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몇 가지를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일단 인턴이라고 무시하지 않고 의견을 잘 들어주는 것. 작은 의견으로 큰 성공을 거둘지 누가 알겠는가? 오히려 인턴의 의견이 상사들보다 더 좋고 효율적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것이다. 그리고 인턴에게 적더라도 수고비를 주었으면 한다. 그러면 인턴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 더 열심히 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또한 처음부터 큰 비중의 말을 시키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올렸으면 한다. 처음부터 과한 일을 하면 그것을 기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한 부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조금씩 일을 가르쳐주면서 실력을 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훌륭한 상사라고 생각한다.

이 책처럼 자신이 원하는 꿈을 위해 노력하면 꼭 성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미용사나 메이크업 아티스트는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연예인들은 대학교를 나오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외과의사면 남자, 간호사면 여자라는 성적 차별적 생각도 존재한다. 이런 생각은 '편견'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편견을 버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꿈을 응원해 주었으면 한다.

청소년 자살 문제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서 적어보세요.

장예린 (강신중1)

현재 청소년 사망 원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자살이라고 한다. 과연 그저 듣고만 있을 일일까? 모든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는 절대 안 그래."라고 생각을 한다.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자살을 시도했던 청소년들의 부모님들은 자신의 자녀가 자살을 선택했을지 처음부터 알았을까? 그렇지 않다. 우리는 우리에게 앞으로 무슨 일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그동안 자살했던 사람들도 처음부터 자살이라는 선택지를 택하진 않았을 것이다.

요즘 청담동, 목동 등 학구열이 높은 지역을 돌아다니면 어디서나 보이는 게 바로 학원이다. 우리나라가 내세울만한 자원이 인적자원인 만큼 대한민국 부모로서 하나라도 더 가르치고 싶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점점 넘치고 넘치면서 그릇이 깨진다. 결국 청소년들은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로 죽음을 선택할 것이다. (자살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우리나라 사교육 문제로 자살하는 청소년을 예를 들어 말한 것이다.) 이처럼 부모들은 뉴스에 나오는 일을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학생은 공부만해야 된다는 편견을 깨고 우리나라 사교육에 대한 문제에 관련되어 청소년 자살 등 문제점을 정부에서 조정해주길 바란다.

우리는 앞으로 꽃이 피듯이 점점 성장할 청소년이다. 하지만 피지도 못한 꽃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다. 정부에서 제발 이런 비참한 일이 생기지 않게 교육 정책을 조정하고 부모님들도 과도한 사교육은 피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지, 또 좋은 교육 방식이란 어떤 것일지 적어보세요.

이정아 (목동중1)

제목을 보았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른이라면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나이도 어린 게 뭘 안다고 이런 것에 대해 논하냐고 하는 어른. 두 번째, 지금 교육방식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고 반영하는 어른. 일단 이렇게 나뉘는 것부터가 우리나라의 교육방식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듯 하다. 선생님은 어른이다. 어른은 아이에게 가르칠 권리를 가졌다고 하지만 우리를 내려다보기만 하는 것은 좋은 교육 방식이 될 수 없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문제점에는 고정관념, 이기심, 경쟁, 사교육 등이 있다.

이런 교육방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선생님의 인성을 확인하고 채용하지 않고, 또 본다고 해도 엄격하게 하지 않기 때문에 선생님을 채용하기 전에 하루 정도 예비 교육을 시키고 아이들에게 점수를 매기거나 평가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예로, 정규학교가 아닌 대안학교에서는 선생님을 직접 면접을 보고 뽑는 제도가 있다고 한다. 또한 오랫동안 학생들을 힘들게 하는 차별, 고정관념, 이기심이 있다. 항상 차별이 있는 곳에는 고정관념이 있었고, 그걸 만들어 내는 게 이기심이었으니 말이다. 일단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에게 먼저 심리검사나 고정관념 테스트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선생님에게 불안증이 있다면 그건 학생들에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고정관념 테스트를 보아서 선생님이 고정관념이 있다고 생각되면, 채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심각한 경쟁은 사교육이라는 문화를 생기게 했다. 이제는 그 경쟁을 넘어서서 일등을 해도 실수해서는 안 되는 사회가 만들어졌다. 빈부격차는 더 심해졌다. 부모님들은 이런 사회에서 아이들을 부유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 아이들의 시간을 뺏어 일등을 놓치지 않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을 이용해서 학생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수업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 될 것이다. 언제까지 사회가 일등만을 기억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진정한 교육이란 학생의 개성을 살리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게 하되, 공부를 하는 것조차 그 학생에게는 자신만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 공부가 삶의 모든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어도 성공은 성적순이다.”라는 말은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생들을 더 편안하게 만드는 것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은 이 나라의 미래라는 학생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선생님이 되려면 모든 학생들의 말을 귀 기울여주어야 하고 부모들이 항의를 해도 그 학생에게 맞는 교육을 하는 선생님, 학생의 고민 상담에 의견을 보태주고 고민을 덜어주는 선생님이 되어야 한다. 또 학생을 위해서라면 희생할 수 있고, 차별 없이 누구의 말에도 편견을 갖지 않아야 한다. 또한 장점을 잘 알아주고 단점을 보완해줄 수 있는, 말 그대로 학생에게 진짜 선생님이라고 불릴 수 있는 선생님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를 위해 학생들도 노력해야 한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목표가 확실히 있어야 하고, 선생님을 존경해야 한다. 요즘 학생들은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인데도 선생님의 욕을 할 때가 많다. 그렇기에 선생님이 아무리 학생들의 말을 잘 들어준다하더라도 학생들의 노력이 없으면 좋은 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또한 학생은 자신의 의사를 정확히 해야 한다. 계속 자신의 의견을 말하지 않으면 좋은 선생님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줘야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학생은 자신의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이 함께 올라가자는 곳까지 따라갈 수 있는 학생이 되기 위해서다.

이렇게 교육 방법이 바뀐다면 우리나라는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자살률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될 것이고 엄청난 발전, 그것도 지속 가능한 발전이 계속 될 것이다. 이러한 교육방식은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멀지 않은 미래에 교육 선진국이 되지 않을까?

'교육의 목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안재욱 (역삼중1)

사회는 대학을 안 나온 사람보다 대학을 나온 사람을 좀 더 높게 보고 있다. 하지만 매우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면 대학에 관계없이 일에 대한 능력은 거의 비슷하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배운 것들이 일상적인 일에서는 거의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사회에서 대학의 여부에 따라 차별하는 것은 옳다고 볼 수 있을까?

실제로 대학에서는 대부분 실생활에서 적용되는 것보다 전문성과 논리성에 관련된 것들을 더 많이 가르친다. 나는 교육의 목표는 전문성과 논리성이 아닌 실생활에서의 유용성과 사회에 대해 배우는 것이라 생각한다. 아무리 전문성과 논리성이 있는 지식이라도 실생활에 적용되기가 어렵거나 적용되지 않는다면 그 지식은 무용지물이 된다.

또한 사회에 대하여 배워서 사회에 적응을 돕는 것도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만약에 교육의 목표에서 사회에 대하여 배우는 것이 빠진다면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사회 생활이 상당히 힘들게 느껴질 것이다. 이처럼 지식은 실생활에서 적용될 정도만 배우고 사회에 대하여 미리 배우는 것이 교육의 목표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대학 같은 전문적이고 논리적인 지식을 가르치는 곳은 진로희망이 그에 관련된 사람들 중 희망하는 사람들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인식이 바뀌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한다. 아무리 교육과정을 개편해도 사회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 자신과는 관련 없는 지식도 학생들이 배워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도 계속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대학의 여부에 따라 직장에서의 차별이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인식을 바꾸는 것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다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을 것이고 그만큼 학생들의 고통도 커질 것이다.

물론, 대학 교육을 필요한 사람에게만 하게 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에 대해서 생각해 볼 시간이 줄어들 수도 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진로를 정하는 것에 혼란이 올 수도 있다. 하지만, 하고 싶지 않은 대학 교육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교육에 대해서 완전히 흥미를 잃고 더욱 방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 진로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진로를 선택하는 일에 도움을 줘야 한다. 교육의 목표는 교육에 흥미를 잃어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이 되고 사회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교육은 자신의 역할을 해 줘야 한다.

우리의 미래 바다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세요.

박지유 (목동중1)

인간들은 오래 전부터 바다를 아름다운 자연의 대상이 아닌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해왔다. 바다는 오늘날의 인간을 만들어준 것에 큰 기여를 했고, 그만큼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될 보물단지이다. 하지만 그에 대한 보답은 커녕 맑고 푸르던 바다는 점점 그 빛을 잃어가고 있다. 모든 것이 인간의 과도한 욕심과 자신들의 편리함을 위한 무분별한 개발 때문이다.

바다는 여러모로 소중하다. 마치 끝이 없는 보물창고 같은 곳이다. 하지만 이러한 바다를 보려면 우리는 자연과 상호작용하며 살아가야 한다. 가까운 미래보다 더 먼 미래를 봐야한다. 바다를 함부로 하고 오염시키면 나중에 부메랑이 되어 인간에게 되돌아 온다.

바다는 여러 이익이 있는 만큼 나라와 나라에서도 큰 분쟁을 불러 올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독도를 두고 우리나라와 일본이 몇 십 년 째 영토 문제로 싸우고 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땅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있지만 일본은 좀 더 구체적이고 은밀하게 세계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땅이라는 내용으로 알리고 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와 영토를 지켜나가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다. ‘내가 아니더라도 남이 해결해 주겠지’라는 생각이 아닌 내가 독도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명료한 논리를 내세워야 한다.

바다는 우리에게 우수히 많은 보물들, 그리고 꿈과 희망을 준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었지만 우리는 바다를 점점 오염시키고, 지키는 데 어려움을 격고 있다. 자연과 인간은 서로 밀접한 관계에 접해 있듯이 바다가 위태로우면 당장 우리의 생활도 불편한 점들이 생길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앞장서서 우리의 미래인 바다를 지켜나가는 것이 어떨까?

통일의 조건, 한국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조민기 (용강중1)

통일은 지금 아주 큰 문제이다. 남한이 통일을 하면 장점도 많을 것이지만, 단점도 있다. 하지만 나는 돈이 많이 들고 언어의 문제를 일으키는 단점도 있는 통일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자원이 더 풍부해진다. 북한은 지하 자원이 많고, 식량 자원은 적게 소지하고 있다. 이러한 자원들은 우리의 삶을 간편하게 해준다. 지하 자원이 부족했던 우리나라는 이제 더 이상 자원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며, 지하 자원을 수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더 많아진 식량과 식량을 재배할 수 있는 땅으로 인하여 더 이상 식량 부족 문제를 겪지 않을 것이다.

둘째,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북한은 지금 군사력이 많기 때문에 우리랑 한 나라가 되면 이 군인들은 우리한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나라가 더 잘 보호되는 것은 물론, 의무 입대가 사라져 더 많은 남성들이 더 빨리 좋은 질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지금 핵을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랑 한 나라가 되면 그 핵은 방어와 위협 용도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가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셋째, 이산 가족이 상봉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은 다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죽기 전에 같이 지내면 좋을 것이다. 만약에 이 글을 읽는 당신의 가족들이 북한에 있고, 그 가족들이 곧 죽는다면, 당신은 분명히 그 가족들과 같이 마지막 날들을 보내고 싶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해하고, 통일을 하여 가족들이 같이 지낼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물론 통일은 하루만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의지를 가지고 통일을 위해 노력한다면, 통일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더 좋은 대한민국을 위해 통일을 하자. 하지만 잠깐! 통일이 되기 전에 우리는 하나의 문제점을 겪게 된다. 만약에 통일된 남한의 이름을 정하는데 갈등을 겪으면 통일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그럼 이러한 상황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는 통일된 남한의 새로운 국호가 ‘한국 민주주의 공화국’ 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래야 북한이 통일에 동의할 것 같다. 지금 북한의 국호는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으로 새로운 국호는 그냥 ‘조선 인민’을 ‘한국’으로 바꾼 것 뿐이다. 그러면 큰 갈등은 없을 것이다.

내가 행복한 이유에 대해 적어보세요.

송채영 (금옥중2)

지금 나의 행복 점수는 90점이다. 나는 내가 그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해 본적이 없는 것 같다. 왜냐하면 충분히 내가 행복할 때 있어야 할 요소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나는 가족, 친구, 사람이 행복의 요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이러한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다. 내 곁에는 좋은 친구들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고 또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고 있기에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느낀다. 물론 불행하다고 아예 느껴보지 않은 것은 아니다. 가끔 가족과 심하게 다투면 내가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라고 생각하면 불행을 느낄 때도 있지만 그건 잠깐이다. 이 불행한 감정보단 행복한 감정이 더 많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불행은 금방 잊을 수 있다.

<꾸뻬씨의 행복여행> 책에서 나는 나를 한 번씩 되돌아보고, 내가 실제 경험한 것을 다시 한 번 떠올려 보며 행복에 대해 공감을 할 수 있었다. 내가 제일 공감했던 인생의 행복 3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는 '행복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이다. 비행기 좌석 에피소드를 떠올려 보자. 내가 평소에 이코노미석에만 타다가 비즈니스 석에 탔을 때의 기분은 새롭고 행복하겠지만, 1등석에 탔던 사람이 비즈니스석에 타면 별로 행복함을 느끼지 못한다. 그것은 사람마다 경험한 것과 그에 대해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항상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느끼는 것, 경험한 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행복함을 느껴야 한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는 '행복은 때때로 뜻밖에 찾아 든다'이다. 정말 일상생활의 뜻밖의 소소한 순간에 행복을 느낀다. 예를 들어 돈이 필요한 상황에서 아무 생각 없이 주머니에 돈을 넣었는데 필요한 양의 돈이 있었을 때, 그땐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소소하지만 뜻밖에 일어난 일들에 우리는 굉장한 행복감을 느낄 수가 있다.

마지막으로 불행에 관한 것인데, '불행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평소에 진정한 행복을 알지 못하고 불행해한다. 진정 불행한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인데, 우리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음에도 불행해하기 때문이다.

위에 적은 인생의 행복 3가지 중에 나는 두 번째가 가장 공감되는 것 같다. 왜 사람들은 아주 소소한 것에도 행복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일까? 우리 일상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일들이 많은데.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하다.

러시안 룰렛은 언제인가?

조하윤 (목동중2)

러시안 룰렛이란 총알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모르게 장전한 후 차례대로 머리에 겨냥하여 방아쇠를 당겨, 최후의 1인이 남을 때까지 계속하는 위험한 게임이다. 방아쇠를 당겼는데 총알이 박히면 뇌는 구멍이 뻥 뚫려버려 즉사할 것이다. 그런데 고기를 먹었더니, 뇌가 러시안 룰렛 게임의 최후처럼 뻥 뚫린다면?

이 무시무시한 병은 바로 '인간광우병'이다.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사람이 섭취했을 때 전염되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세계를 뒤흔드는 어이없는 인간 광우병 환자의 죽음이 보도됐다. 그는 11년간 고기를 먹지 않은 채식 주의자였던 것! 그가 먹은 채소의 비료는 닭똥으로 만들어졌으며, 그 닭이 광우병 소의 뼈를 갈아 만든 사료를 먹고 광우병에 감염되어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소로 인해 만들어지는 우유와 버터도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뉴기니의 프레족에서 나타나는 식인 전통이 있다. 가족이 죽으면 그 시체를 여성과 아이들이 나누어 먹는 전통인데 이것은 '쿠루'라는 전염성 해면상 뇌증이 나타났다. 똑같은 방식으로 소에게 소를 먹인 결과는 끔찍했다. '육골분 사료'를 먹는 소는 뇌에 스펀지처럼 구멍이 뚫려 '미친' 것처럼 비틀거리다 죽게 된다. 문제는 광우병 쇠고기를 먹인 인간도 똑같은 증상으로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간 광우병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편리한 세상은 과학이 없으면 발전할 수가 없었다.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하게 발전시키면 반대로 생명을 죽이는 병이 등장하거나, 환경을 파괴하는 등 우리 생활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오로지 직선처럼 달려가 발전하는 것을 멈추고 쉬어가면서, 인간과 환경을 위해 필요한 만큼만 발전해나가면 좋겠다.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이로운가?

김도현 (목일중2)

어떤 이들은 과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삶이 편리해지고 더 좋아졌다고 주장 한다. 그러나 반대로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에게 마냥 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과학기술이 자연의 섭리에 어긋나는 도전을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인간 존엄성을 해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우리 인간에게 가져오는 혜택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우선, 과학기술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풍요롭게 해주었고, 우리가 보다 더 많은 시간을 여가에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발달되지 않았던 중세나 고대 시대를 보면 물건을 만들 때 모든 과정을 사람이 직접 해내어야 했기 때문에, 같은 물건을 만들더라도 현재보다 훨씬 시간이 오래 걸렸고 보다 더 많은 수고와 노동이 필요했다. 물건들의 값이 비싼 것은 물론이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로 과학기술의 산물인 기계 덕분에 일일이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도 빠른 시간 안에 대량으로 물건을 만들어 낼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물건 가격도 싸져서 사람들의 경제생활이 더욱 더 풍요로워질 수 있었다.

다음으로, 과학기술로 인해 사람들의 삶이 더 안전하고 편리해졌다. 교통수단, 통신수단의 발달, 가전제품의 발명과 보급 등이 그 예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교통수단이 발전하고 먼 거리도 과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갈 수 있게 되었고, 통신기술의 발달을 통해 아주 멀리 떨어진 사람과도 쉽게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가정에서는 예전에 힘들게 해야 할 일들이 이제는 세탁기, 전기 청소기 등과 같은 가전제품들의 도움으로 훨씬 쉬워졌다.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과학기술의 이로움이다. 한편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매일 누리면서 "과학기술은 우리에게 이롭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나 모순된 것이다.

또한 우리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간의 건강한 삶과 수명 연장이 가능해졌다. 수백년 전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이라면 쉽게 고칠 수 있는 질병으로 죽는 일도 많았다. 아기를 낳다가 산모나 아기가 죽는일들도 흔했고, 작은 상처 하나조차 제대로 살균 소독되지 않아 썩어들어가 사지를 절단하거나 결국 죽게 되는 일도 자주 있었다. 요즘은 발달된 과학기술 덕분에 의학기술이 매우 발전하여 수 많은 병들로부터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고 수명도 크게 늘어나 80세를 넘는 사람들도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최근에는 사람이 아닌 로봇에 의한 수술 등을 통해 보다 더 정교한 수술이 이루어지고 줄기세포 연구, 유전자 연구 등을 통한 획기적인 의학기술의 발전 역시 이루어 지고 있다.

물론 과학기술로 인한 부작용도 있다. 공해 유발, 환경 오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윤리으 문제 등.... 그러나 나는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이로움이 훨씬 크다고 생각한다. 이제 과학기술이 없는 세상은 상상하기 힘들다. 과학 기술의 이로움을 의심하기보다는 과학기술의 혜택을 긍정하는 바탕위에서 과학기술이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을 어떻게 해결하고 최소화 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머피의 법칙이 지적하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김채현 (목일중3)

세상엔 잘되는 일도 많지만 진짜 안 되는 일도 많다. 꼭 우산을 들고 나갈 때는 신경 쓰일 정도로 햇살이 따사롭고, 소풍날이면 봄비가 내리는 일이 생긴다. "하필이면..." "오늘은 운이 안 좋네." 라고 종종 우리는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머피의 법칙'을 떠올린다.

그러면 '이 머피의 법칙'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될까?

이 법칙의 원리는 시원하게 설명해준 과학자가 있다. '로버트 에슈스'라는 이름의 칼럼니스트이자 연구원인 사람이다. 그가 증명했던 머피의 법칙은 '버터 바른 토스트'에 관한 것이었다. 출근 준비를 하느라고 바쁘게 준비하는 와중에 토스트에 버터를 발라 한입 먹으려 할 때, 토스트는 곧잘 바닥에 떨어지게 된다. 근데 꼭 '버터 바른 쪽'으로만 토스트가 떨어진다. 그러면 빵을 주워 먹기에도 찝찝하고 바닥까지 닦아야 하는 대참사가 벌어진다. 그러나 이때, 우리는 자기가 운이 없다고 탓할 필요는 없다. 그는 식탁 높이나 사람의 손 높이에서 토스트가 한 바퀴를 회전할 만큼 지구의 중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했다. 지구의 중력과 식탁의 마찰계수가 그럴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버터 바른 면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다른 예시를 들어보자. 슈퍼마켓에서 긴 줄이 늘어선 상황을 보고 어느 곳에 줄을 서야 하나하는 고민을 누구나 해보았을 것이다. 우리는 빨리 줄어들 것 같은 줄에 서지만 결국에는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드는 것 같은 경험도 해보았을 것이다. 하지만 실망할 것 없다. 만약 12개의 계산대가 있다면, 내가 선 줄이 가장 먼저 줄어들 확률은 몇일까? 당연히 12분의 1이 될 것이다. 그러나 다른 줄이 먼저 줄어든 확률은 12분의 11이 된다.

그가 이렇게 증명했던 머피의 법칙은 우리에게 메시지를 날린다. 우리는 일이 잘 안될 때가 잘 될 때보다 많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좋은 일만 일어나기를 희망하고 확률적으로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 잘 안되는 경우만을 보고 재수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일기예보에 100% 정확도의 기대했고, 항상 토스트를 떨어뜨려도 버터 바른 면을 위로 하면서 떨어지는 것을 기대했다. 머피의 법칙은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것을 무리하게 요구하는지를 지적하는가를 보여주는 법칙이다.

책을 읽고 생각한 과학과 윤리의 관계를 적어 보세요.

곽민선 (세화여중3)

<하리하라의 과학 블로그>는 유전자 조작 식품, 환경 호르몬의 공격, 다이너마이트의 발명 등 현대 과학에서 주목받는 10가지 이슈와 그 양면성을 잘 알려준 책이다. 그 중 '유전자 조작 식품' 부분에서는 평소 우리가 흔히 먹는 음식들이 거의 다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는 것에 놀랐다. 그리고 유전자 조작의 역사도 나왔는데, 신기하고 새로운 내용이 많아 재미있었다. 책이 전체적으로 새로운 내용이어서 집중해서 읽을 수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주제는 시험관 아기에 대한 것이었다. 요즘 아이를 배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부부도 많다. 그런 사람들은 시험관 시술을 한다. 내 주변에도 시험관 시술로 아이를 낳으신 분이 있다. 그분이 임신하셨을 때 시술을 받는 것은 비용도 많이 들고 실패할 확률이 높다고 했다. 이 이야기를 들으니 시험관 시술이 어려워도 아이를 가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부모들에게는 유일한 희망인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언급되었던 윤리에 대한 문제를 생각했을 때 나는 과학을 따르는 것이 바르다고 판단했다. 예를 들어 시한부 환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비록 윤리적이지 않아도 이런 환자에게 치료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치료하는 것은 희망고문을 하는 것일뿐더러 그 치료약을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것이 더 적절하기 때문이다.

책을 읽고 바뀐 생각은 과학이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벨은 광산에서 이용할 목적으로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가족과 남에게 피해를 주었다. 이처럼 과학자의 발견이 자신의 의도와 달리 인류에게 괴로움을 주는 일이 많았다. 과학을 다루는 사람은 자신의 연구가 다른 목적으로 쓰이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과학자들이 윤리의식을 잊어버리는 순간 그의 업적은 파괴의 도구가 될 뿐이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의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승주 (목동중3)

나의 영어이름은 레이첼이다. 어렸을 적 영어이름은 본래 샌디였는데, 그 시절에는 비록 모든 애들이 서로를 놀리며 놀던 때이긴 했지만, 친구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선생님까지도 샌디라는 이름을 놀리는 바람에 결국 레이첼로 바꿨다. 뭐 맘에 들었다. 그런데 어느 날, '내일은 실험왕' 이라는 만화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 책 부록 안에 내 영어이름과 똑같은 이름이 나와 있었다!

그 이름이 바로 미국의 해양 생물학자 레이첼 카슨이었다. 레이첼 카슨은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던 시절,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워준 환경 운동의 선구자이다. 그녀는 '침묵의 봄', '바닷바람 아래서', '우리를 둘러싼 바다' 등의 환경 관련 책들을 다수 내었고 그녀가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다.

내 꿈이 작가여서 그랬는지, 영어 이름이 같아서도 그랬는지, 환경운동가 겸 작가인 레이첼 카슨의 환경과 관련된 삶들은 나의 관심을 끌었다. 그녀의 메시지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레이첼 카슨이 자신의 책 '침묵의 봄'을 통해 살충제 사용의 심각성과 위험성을 알린 부분이었다. 살충제는 해충을 죽임으로써 생태계의 균형을 깬다. 해충 역시 생태계의 일부이고 생태계 균형에 꼭 필요한 존재이다. 살충제의 무차별적인 살포는 해충을 없애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로운 벌레마저 죽여 버리고 더 나아가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하게 된다는 메시지였다.

뿐만 아니라 살충제에 포함된 발암물질은 인간에게도 직접적인 해를 끼친다. 살충제와 환경호르몬 같은 물질은 아주 적은 양으로도 생물과 인간에 악영향을 끼친다. 면역질환이 증가하고, 암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사실, 환경호르몬과 살충제 등과 같은 환경 오염물질들은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고 불편을 감수한다면 사용을 충분히 줄여 그로 인한 환경 파괴와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 살충제 없이도 오리를 이용한 유기농법이나 계피나 고추 등으로 만드는 친환경 살충제 등으로 농사를 지어갈 수도 있다. 여성 동물학자 제인 구달이 "우리가 이해해야만 관심을 가질 것이며, 관심을 가져야만 도울 것이고, 우리가 도와야만 모두가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했듯이, 문제는 우리의 관심과 노력이다.

실제 인간의 관심과 노력으로 심각하게 파괴된 환경이 회복된 사례도 많다. 몇 달 전 교육방송에서 방송된 '지식채널 e'라는 프로그램에서, 우리나라의 회복된 숲에 관한 동영상을 본 적이 있다. 마을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땅을 비옥하게 해주며, 하천의 범람도 막아주는 숲의 역할과 이로움을 통해, 환경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숲이 사람들에게 휴식을 주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삶의 공간이라는 점도 정말 마음에 와 닿았다. 일제 강점기에 심각하게 파괴되었던 우리나라의 숲들이 사람들의 꾸준한 노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엿한 '숲 선진국'인 것이다.

내가 사는 동네에서도 파괴된 환경을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살린 사례가 있다. 따스한 봄날 휴일,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안양천 옆을 우연히 지나게 되었다. 예쁜 연분홍색 벚꽃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다. 아빠께서 그대로 차를 세우셨다. 가족들과 벚꽃이 휘날리는 안양천변을 산책하다 보니 실개천 생태공원에 이르렀다. 예쁜 꽃들과 초록빛깔의 풀들이 멋지게 어우러져 있었다. 본래 안양천은 과거에 무리한 개발과 산업화의 결과 심각하게 오염되어 죽어있던 하천이었다. 하지만 오랜 기간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다시 살아나 지금은 사람들의 아늑한 휴식 공원과 동식물들의 편안한 서식처가 되어주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만 한다면 오염된 환경을 충분히 되살릴 수 있는 것이다.

레이첼 카슨은 이렇게 말한다. "공기와 땅이 더러워져도, 음식이 이상해져도, 수많은 대중은 그저 참을 뿐이다. 먹고 살기에 바빠 우리의 의무를 소홀히 할 때 어느덧 그토록 원치 않았던 '침묵의 봄'이 우리를 맞이할 것이다." 크게 공감되었던 '침묵의 봄' 중의 글귀이다. 푸른색 별 지구. 생명이 살아 숨 쉬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곳이다. 하지만 만약 인간이 지금처럼 계속 자원을 고갈시키고, 삼림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킨다면 지구의 미래는 생명이 소멸된 회색별일 것이다.

푸른색별 지구가 회색의 죽음의 별이 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환경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환경을 보존하고 되살리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가 간의 국제협력, 기후협약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와 열대우림 파괴와 같은 지구적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 협력하고 실천해 나가야 한다. 기업들 역시 기업 활동 과정에 배출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투자에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다. 가정에서 우리들 각자의 개인적인 노력도 함께 해야 한다. 철저한 쓰레기 분리수거, 물 아껴 쓰기, 전력낭비 최소화 등을 통해 환경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상시로 기울여야 할 것이다.

"지구가 가진 자원은 모든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는 충분하지만 소수의 탐욕을 위해서는 부족하다."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의 말이다.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이기적 태도는 금물이다. 이기적 행동이 아닌 우리 모두의 협력과 공감이 필요하다. 물론 한 사람만의 실천의 결과는 너무나 작아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구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하면 커다란 힘을 가질 수 있다. '티끌'이 모여 '태산'이 되듯, 모두의 노력이 커다란 힘 합쳐져 푸른별 지구를 지켜낼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회계약론이 민주주의와 관련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정인화 (명덕외고1)

프랑스 대혁명의 사상적인 원동력이 되었던 장 자크 루소의 『사회 계약론』.이 사상이 지닌 영향력의 파장은 실로 어마어마하다. 당시 루소가 살던 1700년 대 후반은 시민계급의 성장과 봉건적인 신분제가 함께 공존하던 시대였다. 공고하게 유지되던 왕권신수설과 신분제는 아직도 시대를 지배하던 통념이었고, 루소는 『에밀』과 『사회계약론』 이 두 권의 책을 통하여 기존의 가치관을 뒤집었다.

사회 계약론을 논하기에 앞서 루소는 논문현상공모를 통해 『학문과 예술론』, 『인간 불평등 기원론』을 통해 인간 불평등이 어디서 비롯되었는지를 탐구하기 시작한다. 불평등의 시작은 사유재산이 생겨남에 따라, 지배자, 피지배자의 신분 격차가 생기고 이를 유지하기 위한 제도와 법이 생겨나면서부터라고 설명한다.

루소는 이렇게 권력으로 귀속되고 다스려지는 불평등하고 일방적인 권력의 공동체가 아니라 동등한 주권자끼리 '사회적 계약'에 따른 합의로 공동체를 만들려고 지향했다. 그는 인간이 선하다는 본성에 대한 믿음으로 협동을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개인을 영달시키는 공동체, 즉 '덕의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결국 루소가 말한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우리가 여태 쌓아왔던 모든 것, 문화, 관습, 체제를 버리고 원시인처럼 살아가자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한 시대적인 발전에 대해 저항을 강화하고 원시인이 지녔던 자연적인 선량함과 행복을 올바른 이성의 도움을 빌려 사회를 회복시키자는 것이다. 이런 정치 체제에서 인간은 자연 상태의 선한 마음과 행복을 회복할 수 있다. 사회계약론이랑 결국 온전한 민주주의의 기초를 말하고 있고, 근대에 들어 개인과 인권의 개념이 발전하게 될 수 있는 토대가 된 것이다.

루소에 의하면, 국가사회는 일반의지에 바탕을 둔 사회계약의 결과다. 일반의지란 시민 일반의 의지로서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시민들 공통의 의지를 말한다. 이 의지가 사회계약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서 주권의 기초이자 법과 정부의 출처이다. 일반의지는 절대적인 것으로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고, 이에 기초를 둔 시민주권 역시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다. 일반의지는 시민들의 계약에 의해 명시화되는데, 일반의지를 반영하는 국가는 직접민주제 국가이다. 사회계약은 주권자인 시민들 상호간의 약속일뿐, 국가에 대한 국민의 무조건적 복종을 뜻하지 않는다.

사회계약론을 읽고 나는 진정한 정부가 무엇인지,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지에 대해 생각을 해보았다. 정부와 공동체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나는 좋은 정부란 사회계약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일반 의지를 옳은 길로 인도하면서 가장 잘 실현시킬 수 있는 정부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정세만 봐도 온갖 부정부패와 정경유착이 어떠한 파국을 불러왔는지를 볼 수 있었다.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독점하여 민주주의를 좌지우지하는 정치는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좋은 정부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 또한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중우정치나 과두 정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정치에 참여하는 의식을 꾸준히 길러야한다. 하지만 최근 우리나라 투표율만 봐도 60%조차 넘지를 못한다. 1년에 1번 있을까 말까 하는 중대한 투표인데도 다들 어딘가 놀러가기에 바빠서 참여를 하지 않게 된다. 민주국가의 올바른 시민으로써 대표를 뽑을 때 신중하게 뽑는 것도, 우리들의 대표가 올바르게 일을 하도록 감시하는 것도 모두 우리의 일종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루소가 주장했던 바가 동시대의 사상가, 철학자와 가장 크게 차별화 되었던 점은 무엇일까? 우선 한때 루소의 정신적 지주였던 볼테르를 한 번 살펴보자. 볼테르와 루소는 백과전서파로 계몽주의 시대를 이끈 쌍두마차였다. 루소는 볼테르를 깊이 존경했다. 나중에는 의견의 차이로 거의 앙숙이 되지만, 루소의 사상이 옳지 못하다고 비난했던 볼테르는 결국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한다는 진정한 자유의 사상에까지는 닿지 못했다.

루소는 당대 계몽주의의 세례를 받은 당대 서구의 정신적 지도자들에 비하여 선입견 없이 당대의 문제들에 접근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전통(종교, 형식주의 등)의 압력의 영향을 받지 않는 소시민 계급에 속하지 않았으며, 그 계습의 관습조차 소속감을 느껴본 적이 없는 일종의 '뿌리 뽑힌 존재'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근본적으로 귀족세력의 영향을 받지 않은 스위스인 이었기 때문에 프랑스와 영국 같은 군주 정치

국가들보다 그러한 관습들을 좀 더 신축성 있게 다룰 수 있었을 것이다.

책을 읽어보니, 루소의 대단한 점은 절대준수의, 불변의 법칙을 깨려는 용기라고 생각한다. 종교가 모든 것을 지배하고 형식주의가 만연하던 시대에 당시 집권 세력인 왕과 귀족들의 권력을 위협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앞서간 사상을 제시했던 루소는 <에밀>과 <사회 계약론>을 내고 바로 도망자 신세로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안타까웠다.

인간의 삶에서 문화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장류은 (진명여고2)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인류학이라는 분야는 아직 나와 같은 청소년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지 않은 학문 분야 중 하나이다. 이 책을 읽고 인류학이 고고학, 생물학, 심리학 등 여러 다양한 학문분야와 밀접한 관련을 맺으면서 특히 "문화"라는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보고 분석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인간을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평소 심리학에 관심이 있는 내게 인류학 역시 흥미롭게 느껴졌다.

문화는 인간의 삶, 활동의 모든 영역을 포괄한다. 교육과 모방을 통해 문화가 전파, 전달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언어이다. 과거 인간의 언어만이 창조성이라는 특성을 가진다고 알려졌지만, 영장류의 경우 학습한 카드나 수화로 다양한 문장을 생성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언어의 특성 중 창조성은 인간의 언어만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내용은 매우 놀라웠다. 인간과 동물 사이의 언어적 차이는 질적인 차이보다는 양적인 차이라는 책의 관점이 매우 인상 깊었다.

언어와 관련, 책에 소개된 샤피어-워프 가설 역시 흥미로웠다. 언어가 사고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주장하는 샤피어-워프 가설은 사람들이 무지개 색을 7색으로 묘사하는 것과 연속된 시간의 흐름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분하여 인식하는 것 등을 그 근거로 들기도 한다. 다만 이 가설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는 윤리적 한계가 있다는 점, 언어 차이를 근거로 차별을 정당화하는 언어 인종주의로 흐를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의 한계를 갖는다.

인류학은 문화와 밀접한 만큼 그 문화를 대하는 태도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에 소개된 아마존의 '야노마뫼 부족'의 여아 살해 풍습은 그들이 사회적 환경에 적응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의 탓으로 비판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의 개선을 통해 악습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 아무런 배경 지식 없이 야노마뫼 족의 풍습을 접할 때는 상식 밖의 일이라 이해할 수 없었고 이상하게 느꼈지만, 그 밑바탕에 깔린 문화적 환경적 요인을 이해하면서 왜 이런 풍습이 생겨났는지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그 문화를 이해할 때 그 문화의 형성 배경 역시 충분히 살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양성차별 문제의 밑바탕에 깔린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이라는 관념 역시 인류학적 분석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남아선호, 가부장제, 남녀 차별의 밑바탕에 놓여진 이런 인식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강조, 서술한 유교 사상에 근원을 둔다. 하지만 뉴기니 섬의 여러 부족들의 경우처럼 남과 여의 성 역할이 우리의 고정관념과 반대인 문화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통해 이러한 양성간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기존의 인식이 단순한 고정관념일 뿐임을 알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뿌리깊게 잔존하는 잘못된 인식을 없애려면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이 기울여져야 한다.

마빈 해리스의 '문화의 수수께끼'에서 다룬 주제인 문화 유물론에 대한 설명 역시 흥미롭다. 마빈 해리스는 그 사회의 물질적, 경제적 요인이 문화를 규정한다는 문화 유물론의 관점에서 문화 현상을 파악한다. 예를 들어 인도의 암소 숭배와 이슬람의 돼지 혐오는 바로 각각의 자연환경적 경제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 것임을 설득력 있게 설명한다. 문화를 바라보는 여러 관점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흥미롭고 하나의 단순한 시각이 아닌 다양한 관점에서 문화를 바라볼 때 더욱더 깊은 이해가 가능해진다는 생각을 했다.

인류학이라는 학문을 이 책에서 처음 접하였는데 매우 인상적이고 굉장히 매력적인 학문인 것 같다. 21세기는 문화의 세기인 만큼 문화적 차원의 사회발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는 것이 필요하며 문화산업의 육성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저자의 주장에도 크게 공감할 수 있었다.

리딩엠이 스마트해졌습니다!

리딩엠의 교육방향, 교육목표 그리고 각 지점의 위치와 연락처를 보고 싶다면
➜ **리딩엠 홈페이지(www.readingm.com)**

리딩엠에서 이뤄지는 글쓰기 등 교육활동의 다양한 결과물을 눈으로 읽고 확인하고 싶다면
➜ **리딩엠매거진(magazine.readingm.com)**

내 아이의 다음주 수업도서 목록, 지금까지 읽은 독서이력, 글쓰기 결과물을 보고 싶다면
➜ **램스솔루션(online.readingm.com)**

과학이든 인문이든
책읽기와 글쓰기로 판가름 나더라

초6까지 독서습관 골든 타임, 사고력 높혀야

리딩엠매거진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조선일보에 실리며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끌었던 특집기사 <읽기혁명>을 싣습니다.

6세 때 '딥 러닝' 뇌 거의 완성… 선진국, 어릴 때부터 독서운동

12세까지 독서 습관 골든타임

책 읽어줬을 때 3~5세 유아의 뇌 사진

❶ 두정: 시각 이미지 처리 활성화 ❷ 측두: 연합·의미 처리 활성화 ❸ 후두엽: 시각 연합·의미 처리 활성화

책만 많이 읽은 학생, 성취도 높아…
어휘력, 독해력, 사고력 향상, 글쓰기로 마무리 필요해

리딩엠매거진에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조선일보에 실리며 많은 학부모님들의 관심을 끌었던 특집기사 <읽기혁명>을 싣습니다.

"책 많이 읽은 학생… '괜찮은 일자리' 얻은 비율 20%p 높았다"

직능원, 12년간 추적 조사

중학생 때 독서량과 수능 성적 차이

책·신문 같이 읽으면… 수능 국·영·수 최대 34점 높아

중3·고3 추적 조사해보니… "신문 읽기가 수능 성적 향상시켜"

신문 구독 여부에 따른 수능 점수 차이

	신문 미구독 등급	신문 구독 등급	등급차	표준점수(환산) 차이
국어	5.55	5.13	0.42	약 4점
수학	5.52	5.15	0.37	약 5점
영어	5.64	5.13	0.51	약 6점

책만 읽은 학생과 책·신문 동시에 읽은 학생 간 수능 점수 차이

	책만 읽은 학생 등급	책·신문 동시에 읽은 학생 등급	표준점수(환산) 차이
국어	5.22	4.15	약 12점
수학	5.16	4.36	약 10점
영어	5.23	4.16	약 12점

책 읽 기 와 글 쓰 기
리딩엠

“착한 아이가 성공한다”

책읽기의 가치에 대한 오해

“책읽기를 좋아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한다”는 말은, 이제는 너무도 당연해서 굳이 그 이유를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는 오해가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책에 담긴 정보를 책읽기를 통해 습득하고 이것이 학습에 연결되어 공부를 잘하게 된다는 인식이 바로 그러한 오해입니다. 때로는 이런 오해로 인해 자녀들이 소설이나 시 같은 문학 작품보다는 역사, 경제, 과학, 사회 분야의 책들과 같이, 학습에 보다 직접적으로 관련을 갖는 정보전달이 중심이 되는 책들을 되도록 많이 읽기를 바라는 학부모님들도 계시지요.

물론 책읽기를 통해 얻게 되는 정보와 지식이 학생의 학습에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그러나 이는 책읽기가 학생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과정에 있어서 극히 일부의 요소에 불과합니다. 책읽기를 좋아하는 학생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의 밑바탕에는 책읽기를 통해 학생들이 도덕성을 갖춘 따뜻한 마음을 가진 존재로 자라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도덕성과 따뜻한 마음이 학업에서의 훌륭한 성취를 이뤄내고 더 나아가 성공한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이 존재하는 것이지요.

내가 만약 홍길동이라면?

우리 고전인 전우치전과 홍길동전에 대한 책읽기와 글쓰기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만약 전우치나 홍길동과 같은 신비한 도술을 부릴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일을 하고 싶나요?”

이에 대해 한 학생이 이런 대답을 하였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면, 그 능력을 이용해서 은행을 털어 큰돈을 마련하고 그 돈으로 평생 편하게 살겠어요.”

또 다른 수업시간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친 것에 대해 한 학생이 이러한 논평을 했습니다.

“원자폭탄 때문에 죽은 일본 사람들은 나름 자신들의 죗값을 치룬 것이니 이에 대해 동정하거나 분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이때 죽은 사람들 중에는 전쟁에 책임이 있는 전범들뿐만 아니라 아무런 죄 없는 어린아이와 민간인들도 매우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의 희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생의 대답은 이러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일본인으로 태어난 죄이지요.”

착하면 손해 본다?

'착하면 손해 본다' 라는 생각은 이제 우리 사회에 만연된 인식입니다. 위에서 소개한 수업시간 중의 대화 사례들은 이러한 인식이 아이들에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능력을 이유로 도덕성의 하자를 눈감아 주는 사회 풍조가 일반화 되면서 도덕성의 가치와 중요성은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실은, 유년기와 청소년기에 형성된 도덕성이야말로 학생의 학업은 물론 장래 인생의 성공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예전 교육방송에서 방영되었던 5부작 다큐멘터리 “아이의 사생활” 중 제2부 “도덕성” 편에 담긴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룬 내용은 이후 “아이의 사생활”이라는 책으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지요.

도덕성이 높을수록 자제력과 집중력 더 높아

다큐멘터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리 도덕성 검사를 한 뒤 '도덕성지수가 높은 그룹'과 '도덕성지수가 낮은 그룹'으로 나누어 게임을 하게 합니다. 도덕성지수가 높은 그룹의 아이들은 규칙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람에 게임에서 계속 지고 맙니다. 반면 도덕성지수가 낮은 그룹의 아이들은 반칙과 편법을 통해 게임을 계속 승리로 이끌지요. 여기까지는 높은 도덕성이 경쟁에서의 승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일반의 인식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실험들에서 커다란 반전이 나타납니다. 실험 팀은 두 그룹의 아이들에 대해 ‘자제력 검사’를 실시합니다. 모니터에 검정색으로 “빨강” 이라는 글자를 띄우고, 글자가 아닌 색상을 말하게 하는 실험입니다. 도덕성지수가 높은 그룹은 규칙대로 글자의 색상을 잘 읽어낼 수 있었지만 도덕성지수가 낮은 그룹은 눈에 들어오는 글자를 읽고 싶은 충동을 조절하는데 애를 먹습니다. 결국 도덕성지수가 높은 그룹의 아이들은 자신의 충동을 참아내는 '자제력'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도덕성이 높은 그룹의 아이들은 규칙에 대한 준수 능력이 더 높고 자신의 충동에 대한 자제력 역시 높습니다. 그 결과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더 높은 집중력을 보여준 것이지요.

마시멜로 실험의 메시지

다큐멘터리에서 진행된 이 실험은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미셸 박사가 수행한 ‘마시멜로 실험’과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미셸 박사의 ‘마시멜로 실험’은 아이가 갖는 ‘만족지연능력’의 중요성을 밝혀주는 실험입니다. 이후 이어진 수많은 연구 결과, '자제력'과 '만족지연능력'은 학생의 학업능력을 비롯한 모든 부문의 성취결과와 높은 연관관계를 지니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 마시멜로 실험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월터 미셸(W. Mischel)박사는 1966년 653명의 네 살짜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마시멜로 실험을 진행합니다. 실험자가 아이들에게 달콤한 마시멜로를 하나씩 주면서 자신이 돌아올 때까지 먹지 않고 기다리면 한 개를 더 주겠다고 말한 후 방에서 나갑니다. 그리고 15분 동안 아이들을 방에 홀로 남겨둔 채 행동을 관찰한 것이지요. 미셸 박사는 이후 15년이 지나서 십대가 된 이 아이들을 추적 조사하여 1981년 이른바 “마시멜로 실험”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오래 참은 아이들이 그렇지 못한 아이들에 비해 가정과 학교에서 훨씬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고, 대학입학 시험(SAT)에서도 다른 학생들에 비해 뛰어난 성취도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후 추적연구는 계속되어 인내하지 못한 아이들은 어른이 되어 약물중독, 사회 부적응 등의 문제를 가진 어른으로 살고 있는데 반해 인내력을 발휘한 아이들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실험 팀은 이어서 두 그룹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사회성, 삶의 만족도, 지능, 낙관적 사고, 좌절 극복 능력 등에 대한 측정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 결과 도덕성지수가 높은 그룹의 아이들은 모든 항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결국 도덕성이 단순히 아이의 자제력과 관련한 행동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품과 성격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보여줍니다. 즉 도덕성이야말로 아이의 성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지요.

책이 사람을 만든다

성공하는 삶을 위해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책읽기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설과 같은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여러 등장인물들의 다양한 성격과 수많은 선택의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선과 악, 옳음과 그름에 대한 판단 기준을 세워나가게 됩니다. 역경과 좌절을 이겨내고 인류와 사회를 위해 일생을 바친 사람들의 삶을 담은 이야기를 통해 아이들은 봉사와 헌신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레 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의 인생역정을 통해 휴머니즘의 가치를 배우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한 고 장기려 박사의 삶을 통해 타인을 위한 봉사와 희생의 가치를 체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책은 사람이 만들지만,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격언처럼, 유년기와 청소년기의 책읽기의 중요성은 이 시기의 책읽기가 단순히 정보를 체득하는 방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도덕성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도덕성과 따뜻한 마음이 종국에는 인생의 성공을 가능케 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김대연 _ 리딩엠 목동교육센터 원장

“다양한 독후감을 경험해보세요!”

“독후감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새 학기가 시작되고 4-5월 정도가 되면 학생들의 발목을 붙잡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독후감 숙제들입니다. 독후감은 초등학교 때부터 심지어 대학교에 입학 후에도 해야 하는 과제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독후감을 과제처럼 생각합니다. 사실 독후감을 요구하는 학교 입장에서는 올바른 책읽기를 위한 계기가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과제를 내줍니다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독후감을 자발적으로 쓰는 학생도 드물뿐더러 독후감 자체를 위한 책읽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은 ‘책제목, 출판사, 저자, 출판연도, 줄거리, 느낀 점.’이라는 틀 안에 맞추어 자신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학생들이 독후감을 쓰기 위해 선택하는 책들도 자신이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아닌 독후감 쓰기 쉬운 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때문에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이런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독후감은 어떻게 시작해야 돼요?” 상담 중 학부모님들께서 자주 묻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너무 힘들어 해요. 독후감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독후감에 대한 고민

정말 독후감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시는 질문은 아닐 것입니다. 짜놓은 틀 안에서 ‘독후감을 잘 쓰는 법’을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라는 고민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실, 생각보다 독후감 쓰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독후감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흔히 접해봤을 법한 주인공에게 편지쓰기, 결말 바꿔써보기 등도 모두 독후감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시시하고, 전문적이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양한 독후감 방식을 놓치고 있을 지도 모릅니다. 틀에 박힌 대로 독후감을 쓰게 되면 그저 뻔하고 단순한 느낌의 서술만 하게 됩니다. 진정성 있는 감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겉핥기식의 서술은 그저 숙제를 위한 글쓰기가 될 뿐입니다.”

독후감은 책읽기의 시작

독후감은 오히려 책읽기의 마무리 단계가 아닌 책읽기의 시작입니다. 독후감을 쓰면서 책 속으로 들어 가볼 수 있게 됩니다. 독서가 풍경을 바라보는 단계였다면, 독후감은 직접 그 풍경 안에 들어가 경험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학생들이 독후감을 쓰기 전에 먼저 아이들에게 다양한 독후감 쓰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리딩엠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이 책을 읽고 오면, 책에서 다룬 여러 주제들을 놓고 자유롭게 토론을 합니다. 토론의 방향과 관점에 따라 같은 책을 읽었어도 다양한 글쓰기 주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5.18민주항쟁이 배경이 되는 윤정모 작가의 <누나의 오월>을 읽고 나서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설명해주고, 민주화 항쟁을 겪은 사람들의 마음에 대해 함께 토론해봅니다. 이때는 그날 수업 글쓰기 주제는 “5.18 민주항쟁을 가까이서 겪는 주인공이 되어 1인칭 시점에서 상상하여 이야기하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고 민주주의에 대해 주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다면 그날 글쓰기 주제는 “진정한 민주주의란 무엇인가?”가 됩니다. 이처럼 책읽기를 통해 나온 어떤 생각이든지 독후감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의 내용을 통해 내가 이 부분에 대해 깊이 사유하고 고찰해보았다면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쓰이건, 독후감이 될 수 있습니다. 독후감은 더 이상 해결해야하는 과제가 아닌 누군가에게 나의 마음과 생각을 들려주고 공유하는 경험입니다.”

책 속에 들어가 보자!

여기에, 독후감 쓰기에 다양한 방법이 있음을 보여주는 예로 제가 쓴 독후감 한편을 소개합니다. 동서양을 잇는 실크로드의 요충지로 화려한 번영을 구가했지만 지금은 모래 폭풍 속에 잠긴 폐허가 된 고대도시 ‘누란’에 대해 다룬 책을 읽고 쓴 독후감입니다. 누란의 탐사원이 되어 직접 책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영감이 되는 독후감의 좋은 예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양한 독후감 쓰기를 경험하며 오늘도 리딩엠 학생들은 책읽기와 글쓰기를 내 것으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 죽음 그 후에 더 치열한 삶 –

건조한 사막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숨쉬기가 불편했다. 탐사대장은 이곳이 누란유적지 소하묘라고 말했다. 탐사 대장의 표정이 사뭇 진지했다. 누란. 나는 귀가 닳도록 들었던 그 단어를 조용히 발음해보았다. 앞으로 발굴 되어질 소하묘 유적들의 숨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누란은 오랫동안 꿈꿔왔던 탐사지였다. 워낙 발견된 유물과 유적도 없어 신비의 왕국이라 불리는 곳. 문명의 도시, 누란. 그러나 워낙 가는 길이 험하고, 온통 사막이면서 모래 바람도 심하기 때문에 선뜻 탐사를 하기 힘든 곳이었다. 그런 누란을 오랜 기다림 끝에 통해 눈앞에서 보게 되었다. 소하묘는 황량한 타클라마칸 사막에 솟아있는 구릉의 집단 무덤이다. 무덤은 4000년이란 신비의 세월을 겪어온 것처럼 음산하고 신비해보였다. 마른 나무들이 모래 언덕을 따라 촘촘히 박혀있었고, 여기저기에 나무 인형이나 조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탐사는 탐사 대장의 지휘로 시작 됐다. 탐사는 모래와의 싸움이었다. 조심스레 모래를 파내려가자 유물들이 하나 둘 모습을 드러냈다. 나무 기둥 옆에서 작은 활과 화살이 발견되었다. 묘지에 활과 화살이라. 무언가 특이했다. 활과 화살로 죽은 이들이 무엇을 한 단 말인가. 그것은 그들의 사후세계의 인식과 깊은 연관이 있을 것이었다. 나는 활과 화살에 묻은 모래들을 털어내며 이 거대한 성전 안에 묻힌 사람들이 다음 생을 위한 모험을 떠나는 것이 아닐까 생각했다. 다음 생을 위해 맞서 싸우기 위한 활과 화살인지도. 누란사람들은 어쩌면 인간은 죽음으로써 더 편하고 안전한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더 치열하고 모험적인 곳으로 떠난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드디어 관이 나왔다. 관은 소가죽으로 덮여 있었다. 소를 키웠다는 건 목축이 발달했다는 것이다. 소가죽은 뜯어내기가 어려웠다. 피가 묻어있는 것으로 보아 막 만든 것으로 보였다. 소가죽을 만들어놓고 관에 쓴 것이 아니라, 바로 소를 죽여 관에 쓴 것이다. 그것 또한 아마 영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다른 생명의 죽음으로써 얻는 다음생의 생명일까. 가죽을 뜯어내면서 나는 어렴풋이 그런 생각이 들었다. 관이 점점 모습을 드러냈다. 관은 뜻밖에도 배를 뒤집어 놓은 모양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거의 나룻배와 흡사한 모습이었다. 이 세상과 저 세상의 강을 건너려는 것일까. 그리스 로마 신화의 아케론이라는 저승의 강이 이곳에도 존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많은 것이 발달한 문명의 도시였음에도 누란 사람들의 사후세계에 대한 인식은 생각보다 꽤나 깊어 보였다. 어쩌면 많은 것이 발달했기 때문에 더 그런 것일지도 모르겠다. 가지고 있는 많은 것들이 사후세계에는 어떻게 될까? 하는 관심이 그들을 더욱더 사후세계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었을 수도 있을 것이다.

마침내 관이 열렸다. 탐사대원들의 입속에서 아, 하는 짧은 감탄사가 터져 나왔다. 미라였다. 속눈썹까지 그대로 보존 되어있는 미라. 건조한 환경도 한 몫 했겠지만 두껍고 하얀 크림이 얼굴에 발라져 있는 것으로 보아 크림이 방부제의 역할을 한 것 같았다. 수 천 년 전에도 방부제가 있다니. 미라는 미인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현대인인 우리가 보기에도 무척 아름다웠다. 그러나 중국인이라고 보기엔 코가 높고, 눈이 움푹 들어가 서구적으로 생긴 얼굴이었다. 탐사 대장 또한 그것을 느꼈는지 미라는 유럽 인종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미라는 금방이라도 깨어나서 내게 말을 걸 것만 같았다. 당신에게 해줄 이야기가 많다고. 왜 어째서 여자는 이렇게 일찍 죽음으로 간 것일까. 미라의 코에서 누란의 숨이 내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동서양의 양식이 적절히 섞여 있는 모직물과 옥과 청동장식의 유물로 보아 나는 어쩌면 이 미라는 혼혈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동서양의 활발한 문화 교류로 인해 동양과 서양이 만나고, 그곳에서 다문화의 인종 또한 생기지 않았을까. 사람의 만남에는 사랑이 따라온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또 다른 문화와 양식을 만들어냈을 것이다. 여자와 남자의 만남이 처음, 그랬던 것처럼. 누란이라는 나라가 신비로운 건 어쩌면 그 때문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주위 나라의 시기와 열등감 때문에 많은 전쟁과 약탈에 시달렸을지도 모른다. 누란은 동양과 서양의 만남의 결정체다. 동양도, 서양도 아닌 그 중간쯤의 나라. DNA 분석을 해봐야 조금 더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지만 눈앞에 이 미라가 동양과 서양이 만난 아름다운 문화재인 것만 같다.

미라의 몸 주변에는 바구니와 식물이 있었다. 바구니에는 식물과 씨앗처럼 보이는 것이 들어있었다. 씨앗이 있는 것으로 보아 이곳에 농경 사회가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다. 소가 발견된 것도 그에 도움이 되었던 것일지도 모른다. 누란은 짐작만큼 비옥하고 풍족한 나라였던 것이다. 지금은 황폐한 사막 한가운데에 있지만 당시에는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문명 도시였을 것이다. 그리고 미라의 몸 위에 가늘고 긴 식물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마황이었다. 중추신경을 자극하는 마약의 일종인 식물이었다. 탐사대원들은 이것에 어떠한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다. 처음 소하묘에 왔을 때 구릉에 세워둔 나무에도 이 마황이라는 약초가 매달려 있었다. 마황은 사막에서 자라는 몇 안 되는 약초로 특유의 진통효과와 강렬한 각성 효과가 있었다. 죽음과 마약의 관계는 무엇일까. 나는 마황이 매달린 나무를 쳐다보았다. 마황은 현대에서 한약재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었다. 열을 내릴 때나 진통 작용에 쓴다고 들어본 적이 있다. 강렬한 각성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아 마황을 산 사람에게 쓰게 되면 아마 헛것을 보거나, 얼이 빠지는 행동을 보이게 했을 것이다. 때문에 고대의 누란 사람들은 그것을 영혼이 빠져나가거나 죽은 영혼을 만나는 식물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죽은 사람에게 이 식물을 넣었고, 몸과 영혼이 완전하게 분리되어져 나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어쩌면 산 사람에게도 나무에 달린 마황을 통해 이 묘지에서 죽은 영혼들을 만난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죽음과 마약. 그 독특한 사후세계의 인식에서 누란 사람들의 문화가 눈앞에 그려졌다. 웅장하고 화려했을 장례의식과 신비롭고 거대한 묘지. 지금의 삶보다 사후의 세계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던 누란 사람들의 모습. 지금과는 다른 문화다. 사후세계보다는 현세에 더 많은 관심과 애착을 갖는 현대 사람들이다.

누란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관심과 애착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것이 어쩌면 누란이 멸망한 것과 같은 이유일까. 죽음 후에 대한 의지와 용기. 누란 사람들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더욱 치열하게 살아내려고 했던 것 같다. 죽음이 그들에게는 삶의 시작일지도 몰랐다. 지금의 삶보다 더 큰 모험의 시작. 그래서 그것은 성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잠들어 있는 것이다.

모래 바람이 거세지고 있었다. 발굴을 멈춰야 할 것 같다는 탐사 대장의 말이 바람에 실려 들려왔다. 목이 말랐다. 나는 누란의 멸망이 필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많은 설들이 있지만, 이런 아름답고 신비한 도시 국가는 아마 잠 들어야함을 스스로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것이 기후 때문이었든, 수원이 부족했든, 자연환경이나 전염병 때문이었든 간에 그들은 아마 멸망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죽음으로 인해 또 다른 치열한 세상을 살아내야 할 것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죽음이 얼마나 존귀하고 성스러운가. 척박한 사막이 되어버린 누란, 그리고 죽음 그 후가 더욱 치열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누란의 사람들. 그들은 그렇게 치열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삶이 풍족하고 문명으로 빛난다 해도 죽음마저 풍요롭지는 않을 것임을. 죽음은 그들에게 어떤 도전이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도전이 되어 다가오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죽음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다.

동서양 만남의 결정체였던 누란. 그 아름다운 도시에서 치열한 죽음을 본다. 내가 다녔던 모든 유적 탐사지 중에 유독 소하묘가 이토록 성스럽게 느껴지는 것은 그 때문이던 것이다.

발견된 몇 구의 미라들과 유적들에게서 나는 벌써 많은 이야기를 들은 듯 하다. 점점 더 모래바람이 거세지고 있었다. 탐사 대장은 ‘여기는 이렇게 다시 잠드는 건가.’ 라고 했지만 그곳은 결코 조용하지 않았다. 수많은 목소리들이 타클라마칸 사막을 울리고 있었다

민윤경 _ 리딩엠 목동교육센터 지도교사

리딩엠은

'책읽기와 글쓰기를 통한 학습능력 향상'과 '책읽기와 글쓰기로 올바른 인성과 문제해결능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목표로 학생과 소통해왔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원, 바로 리딩엠의 정체성입니다.

2017년
2017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기업 대상」(어린이·청소년 독서활동 부문) 2년 연속 수상
리딩엠 잠실 교육센터 오픈
리딩엠 위례 교육센터 오픈

2016년
리딩엠 <독서 활동 매니지먼트 지도교사 양성과정> 제1기 수료
2016년 조선일보 주최 「소비자가 뽑은 대한민국 교육기업 대상」(어린이·청소년 독서활동 부문) 수상
리딩엠 송도 교육센터 오픈
리딩엠 분당 교육센터 오픈

2015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민간자격관리자 선정 '독서활동매니지먼트지도사자격증 1급, 2급'
YTN 사이언스 청년창업 RUNWAY '독서활동 매니지먼트 리딩엠 편' 방송

2014년
여성가족부 여성친화기업 협약서 체결
(주)리딩엠 서울시립대학교 산학협력 협약 체결
월간 경제인 '독서교육의 패러다임 제시하는에듀 컴퍼니 (주)리딩엠' 보도

2013년
소상공인진흥원 프랜차이즈 브랜드 디자인 R&D 지원 대상사업자 선정
(KIBO/한국기술보증기금) 벤처기업인증(제20130105499호) 획득
(KOITA/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기업부설 독서활동연구소 인정서 획득
KBS1 이규봉, 이지연 아나운서의 <라디오 전국일주> 성공사업장 리딩엠 소개

2012년
<독서이력진단 방법 및 그 시스템> 특허등록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2011년
한국경제 TV [아이디어발전소] 독서를 통해 꿈과 희망을 심는다
중소기업청 '이노베이션 스토어'선정
EBS 부모60분 방송

2010년
중소기업청 <신사업아이디어 모델 개발 대상업체>선정

2009년
서울특별시 청년창업프로젝트 우수 아이템 선정

리딩엠 본사 및 각 교육센터

리딩엠 본사 / 02-537-2248
리딩엠 목동 / 02-2646-8828
리딩엠 대치 / 02-573-2161
리딩엠 서초 / 02-537-2248
리딩엠 둔산 / 042-477-1399
리딩엠 분당 / 031-701-3138
리딩엠 송도 / 032-833-3331
리딩엠 잠실 / 02-425-4070
리딩엠 위례 / 031-756-0802

책읽기와글쓰기 리딩엠

발행처 | (주)리딩엠 발행인 | 황종일 편집 | 기명진
디렉터 | 김창윤, 김대연, 주성윤, 주정봉, 정연하, 박주성, 방보람, 최원철, 이정원
[책읽기와 글쓰기 리딩엠]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 27-12 2층 | TEL : 02-537-2248